"우리지역 일꾼 홍과장이 간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 사업 ● 곡성, 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사업 ● 단양, 제천, 영월, 평창, 영주, 봉화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 ● 동해, 삼척, 정선, 평창

이천시 광역소각장 사업 ●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소각장·하수처리장 공동설치 운영사업 ● 창원, 마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진천, 음성

와인&인삼트레인 사업 ● 영동, 금산

백제문화제 통합개최사업 ● 공주, 부여

거창 교육특구사업 ● 경남 거창

문화복지거점 시설 복합화 '다락원' ● 충남 금산

건강팔팔마을 ● 전남 곡성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 전남 순천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이야기

지역발전위원회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이야기

지역발전위원회

*책자에 소개된 사례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시도 및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았으며 파급효과, 지조성, 창의성, 문화권, 연계협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수집된 사례 중 현장취재를 하지 못한 나머지 사례는 요약 목록을 뒤쪽의 부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역의 정책 담당자들이 인접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상인물을 등장시켜 궁금증을 풀어가는 형태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생활권의 연계협력사업 사례 제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수록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지역발전위원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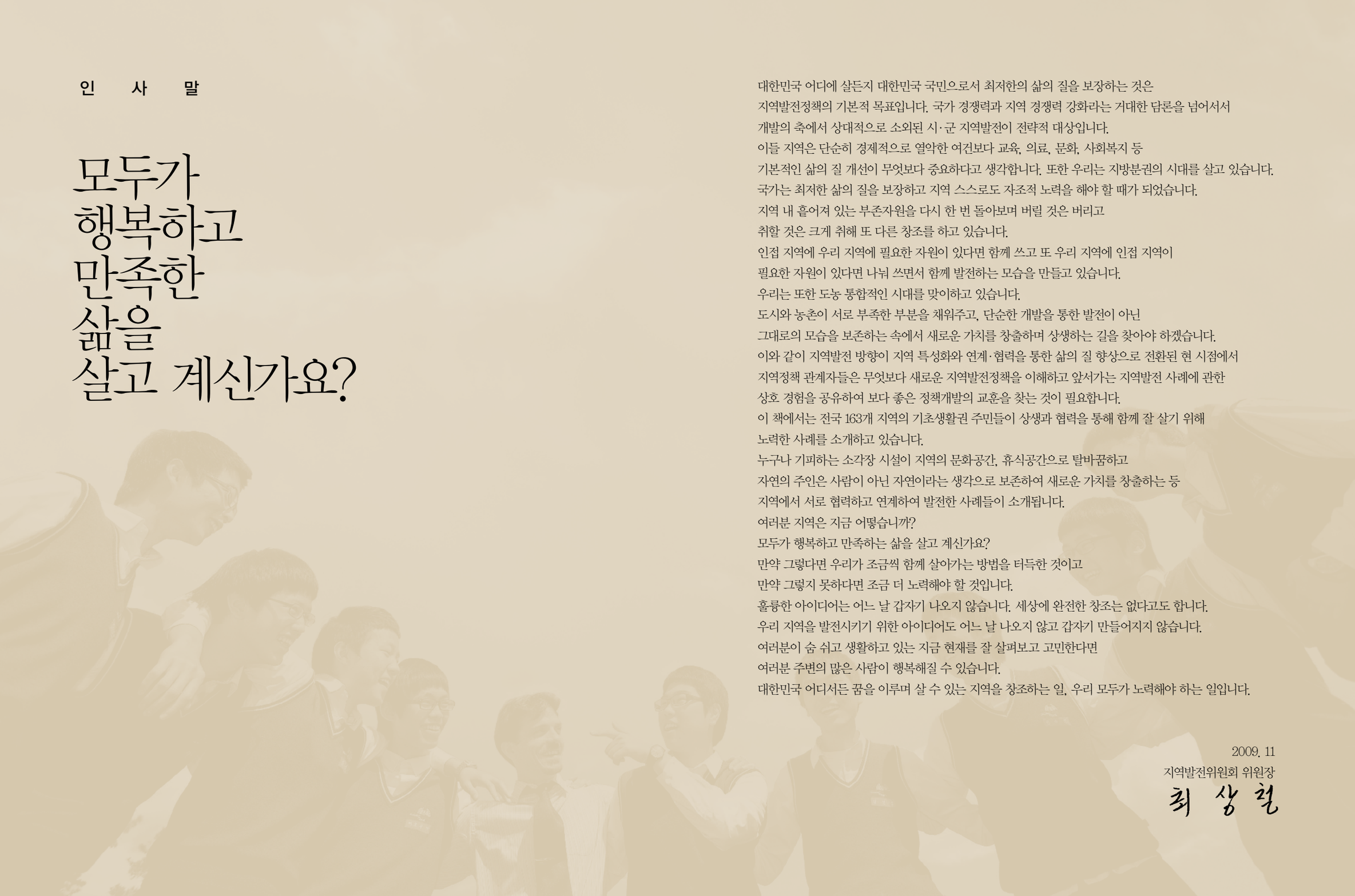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이야기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인 사 말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넘어서서
개발의 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군 지역발전이 전략적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보다 교육, 의료, 문화, 사회복지 등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최저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스스로도 자조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역 내 흩어져 있는 부존자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크게 취해 또 다른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함께 쓰고 또 우리 지역에 인접 지역이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나눠 쓰면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도농 통합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단순한 개발을 통한 발전이 아닌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 방향이 지역 특성화와 연계·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
지역정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이해하고 앞서가는 지역발전 사례에 관한
상호 경험을 공유하여 보다 좋은 정책개발의 교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전국 163개 지역의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피하는 소각장 시설이 지역의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자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자연이라는 생각으로 보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여 발전한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씩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창조는 없다고도 합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도 어느 날 나오지 않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잘 살펴보고 고민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지역을 창조하는 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2009. 11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 상 철

홍 과장은…

올해 38세의 홍 과장은 현재 지방 시청의 관광진흥과에 근무 중이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테스크 포스 팀(task force team)에 선발되어, 관련 자료와 기본조사의 업무를 맡고 있다. 자료 조사에 앞서 타 지역의 사업 성공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전국 12개 시·군을 돌며 현장의 담당자들을 만나 사업 진행의 어려움과 해결 과정, 성공 노하우 등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꿈이 있고
살고싶은
지역창조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이야기

contents

012 제1편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 사업 ● 곡성, 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전국 최초로 세운 7개 지자체 공동조합 '뭉쳐야 산다'는 백만금의 교훈 얻다

024 제2편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사업 ● 단양, 제천, 영월, 평창, 영주, 봉화
관광상품도 특산물도 공동 마케팅으로 명품화~ 소규모 지자체 6곳 상생을 위해 크게 뭉치다

036 제3편 헴프 지역특화사업 육성 ● 동해, 삼척, 정선, 평창
주목받는 친환경 소재 헴프, 알고 보니 우리 대마가 최우수 품종

048 제4편 이천시 광역소각장 사업 ●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5개 시·군이 똘똘 뭉쳐 세운 자원회수 시설로 3천억 절감, 전력 수익은 덤!

062 제5편 소각장·하수처리장 공동설치 운영사업 ● 창원, 마산
기피시설 함께 세워 공동으로 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효과!

074 제6편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진천, 음성
예산은 아끼고 보조금은 늘고 업무 효율은 쑥쑥 올리는 1석3조 자원순환형 시설

086 제7편 와인&인삼트레인 사업 ● 영동, 금산
와인의 낭만, 인삼의 건강, 꿈과 희망 실은 기차가 달린다

098 제8편 백제문화제 통합개최 사업 ● 공주, 부여
역사 속에 감춰진 동방문화의 찬란한 빛 '백제' 1300년 세월 넘어 세계로 나아간다

112 제9편 거창 교육특구사업 ● 경남 거창
촌동네 거창, 서울에서 유학 오고픈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다!

124 제10편 문화복지 거점 시설 복합화 다락원 ● 충남 금산
온 군민이 함께하는 사랑방 '다락원'에서 가족애도 새록새록~ 금산과 사랑에 빠지다

136 제11편 건강팔팔마을 ● 전남 곡성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팔팔하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148 제12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 전남 순천
갈대밭, 철새들의 공간, 개발이 아닌 보존으로 경제 효과 1천억원
세계적인 연안습지 순천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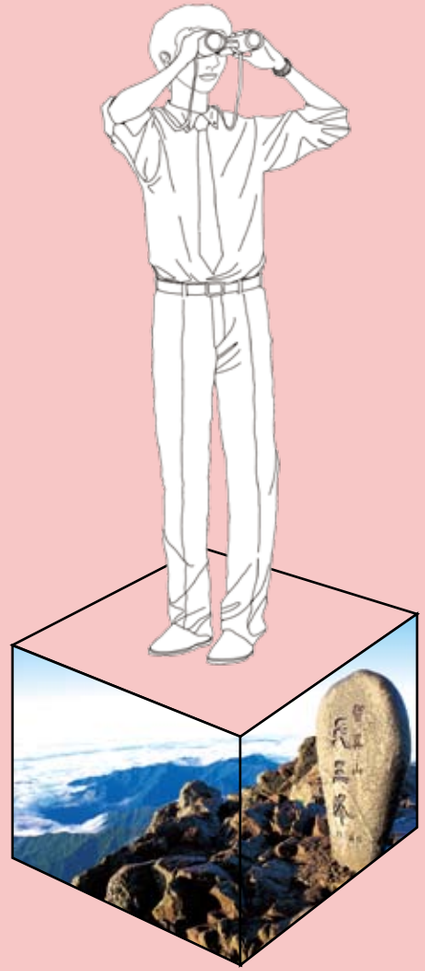
꿈 이 있 고 살 고 싶 은 지 역 창 조

전국 최초로 세운 7개 지자체 공동조합 '뭉쳐야 산다'는 백만금의 교훈 얻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은 예로부터 지리산과 더불어 사는 지역이다.
지리산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을 교환하기 위해 섬진강과
남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하며 통합문화권을 형성해왔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행정상으로는 7개 시·군으로 나뉘었으나
지리산과 함께 살기 위해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를 조직하고 이를 모태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현실을 관광 분야 개발을 통해
극복해보자는 목표 아래 세워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국내 최초의 지자체 공동조합으로
'뭉쳐야 산다'는 교훈을 직접 보여준 귀한 사례다.

tourism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신 팀장 만나다!

신동준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기획정보팀

홍 과장: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신 팀장: 우리 조합에는 7개 지역에서 파견된 21명이 행정지원팀, 기획정보팀, 자원개발팀, 기반조성팀으로 나누어 근무하는데 저는 기획정보팀 소속입니다. 기획정보팀은 조합 회의업무와 정보화시범구축사업을 주도하고 있죠.

홍 과장: 7개 지역이 공동으로 사업을 함께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 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안건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7개 시·군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7개 시·군이 서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나름대로 설득과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리산지역의 7개 시·군은 예로부터 자연스럽게 통합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리산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을 교환하기 위해 섬진강, 남강 등을 이용한 수로가 발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영호남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홍 과장: 정서적으로 통합문화권이 형성된 것과 제도적으로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듯한데요.

신 팀장: 물론입니다. 제도적으로 사업을 함께 하는 기구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지만 그 설립 모태는 1998년 10월에 구성된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리산 주변의 7개 시·군이 상호 업무협조를 하기위해 조직했죠. 7개 시·군이 돌아가며 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었는데,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현실을 관광 분야 개발을 통해 극복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리산권자치단체협의회에서 1999년 9월 지리산권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지리산문화권 개발이 반영되었어요.

홍 과장: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의 활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고, 중앙부처의 정책 확정이 뒷받침되었군요.

신 팀장: 관광 행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광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자체 스스로의 요구와 활동,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홍 과장: 공동조합의 대표와 사무소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은 없었나요?

신 팀장: 처음부터 지리산권자치단체협의회장(남원시장)의 고장인 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첫해 조합장을 남원시에서 파견하기로 합의했고, 지리적으로 남원시가 7개 시·군 가운데 위치한데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 과장: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업성과는 무엇이며, 비예산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 팀장: 지리산권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7품7미〉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비예산 사업으로는 관광교통체계 개선, 경관관리체계 구축, 국립공원 보호·관리체계 구축, 관광개발 갈등관리체계 구축, 지역관광혁신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홍 과장: 여러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신 팀장: 우선 중앙부처까지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 사무가 발굴되어야 하고, 조합원 간의 화합과 공동노력이 가장 중요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조합의 설립 과정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노력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인력 예산 등을 적기에 균등하게 부담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죠.

홍 과장: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신 팀장: 2008년 당초 계획했던 2009년도의 예산은 연계 관광상품 개발 외 6개 공동연계사업에 47억6천만원이었지만, 7개 시·군과 3개 도, 중앙부처가 관련되다 보니 경상남도에서 당초 계획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32억9백만원(국비 16억2천만원, 지방비 15억8천9백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또 전라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원시와 장수군에서 지방비를 시·군비로 충당했는데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특별한 반발은 없었지만 남원과 장수에서는 불만이 있었죠. 2010년 공동연계사업 예산은 200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던 것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비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게 되었어요.

지리산권 관광개발 성공 스토리

'낙후된 지역경제 관광으로 살리자' 의기투합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민선 시장·군수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리산 주변 7개 시·군의 상호 업무협조를 위해 1998년 10월 '지리산권자치단체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지리산권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관광 분야 개발로써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산권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01년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지리산문화권 개발이 포함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2000년부터 국토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대 광역권(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지리산권, 서해안 관광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 등)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때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도 사업에 포함되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산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개발 대상이 특정 자원에 한정되지 않아 낙후 지역의 대안산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특별법을 공포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립을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 계획은 전북, 전남, 경남 3개도와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7개 시·군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16개 공동연계사업에 630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표 1).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확정통보하면서 일부 사업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합을 조기에 설립하여 추진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따라 2007년 6월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산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낙후 지역의 대안산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 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리산권자치단체조합추진기획단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을 작성하여 2007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사전 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구성한 조합이므로 예산, 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단에서는 조합규약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조정하여 7개 시·군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였고, 시군별로 의회 의결 과정이 일부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2008년 7월 7개 시·군 지방의회의 조합규약에 대해 의결을 마치게 되었다. 기획단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 9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을 승인받았다.

조합규약을 발빠르게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

남원시에서 본부장과 직원 2명을 파견하고 이어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에서 각각 직원 3명씩을 파견, 당초 계획한 총 21명의 직원이 확보되었다. 조합에 파견된 직원과 기획단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이 잔류하여 남원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남원시 수도사업소 3층에 조합 사무실을 열고 2009년 11월 중앙부처, 3개 도, 7개 시·군의 공직자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행사를 가졌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기구·정원 승인 및 규약 제정 업무를 추진한 지리산권자치단체조합 추진기획단은 총 7명이 근무하였는데, 운영 예산은 7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며 주로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집기 구입,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비, 기구·정원 승인을 위한 용역비 등을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조합운영비는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계획상의 공동연계사업 추진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조합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동 사무가 우선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 사무는 각 도와 중앙부처까지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함께 추진하는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의 경우 7개 시·군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지리산권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3개 도의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07년 9월 1일 조합설립을 위해 조직된 지리산권자치단체조합 추진기획단에서 다른 조합 등을 벤치마킹하고 7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자체적으로 내용을 확정한 후에도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발빠른 업무 처리와 협조가 있었다면 조합 설립 기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신규로 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규약을 최대한 빠르게 제정하는 것이 설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될 듯하다.

▲단풍철을 맞아 지리산에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력을 산출했다는 근거를 요구하므로 불가피하게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획단은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27명으로 조직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가 기구 및 인원 산출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받고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초기 단계에서는 28명, 정착 단계에서는 53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고 200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합인력을 '조합장 1인, 2개 과, 4개 팀, 총직원 21명'으로 최종 확정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조합이 10년간 운영되는 데 소요되는 인력 21명은 7개 시·군에서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이하 14명을 어떻게 파견할 것인지 상호 협약을 통해 체결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군 간의 의견 조율과 방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결국 1회 파견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각 시·군에서 직급별로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협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자료는 기구 정원 승인 시 같이 제출되었다.

사업 규모 한계 극복 위해 특별법 제정 검토 중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은 16개 단위 사업에 630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용역은 2004년 9월부터 착수되었으며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3여 년의 시간이 지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강제 배분된 것이다. 단위 사업별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초기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10년간 균등하게 배분되었다든지, 사업비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몇 년간만 편성된 단위 사업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 부분이다. 공동연계사업 자체가 홍보, 교육, 행사 등이 대부분이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지리산권광역 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인 만큼 당초 용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에 부딪혀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계획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지리산권관광개발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특별법 제정 계획에 대해 7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시·군이 추진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2009년 7월 제4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에서 용역비 6천여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2010년 4월경에는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과 법안이 확보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2011년 6월까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리산권 7개 시·군의 관광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16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뒤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재계획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7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거나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공동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Region

mini interview

관광객에게는 더 좋은 풍경을~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남정식 남원시청 관광과 관광개발담당 계장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큰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지리산권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남원시청 관광과에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정식 계장은 조합의 공동사업 중에서 특히 '7품7미'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7품7미는 남원시의 목기와 추어탕, 장수군의 사과와 한우고기 등 7개 시·군의 대표 상품과 음식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미 수도권 가로변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1998년 당시 남원시장의 제안으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3개 도에 걸쳐 있는 지리산 삼도봉에서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모여 지리산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최종적으로 설립된 것이 2008년이니까 10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지요."

지리산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전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리산권의 다양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농촌 및 산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첫 시도인 만큼 설립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다.

"2009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일부분만 반영돼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인력 파견 부분에 있어서도 진통을 겪었는데, 모든 시·군이 더 높은 직급을 파견하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고심 끝에 각 시·군에서 직급별 추첨을 통해 인원을 파견하였고, 첫해 본부장은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장을 맡아온 남원시에서 추대하였다.

표1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과 단위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공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86,076	24,1342	103,945	137,397	44,734
단위사업 * 시·군 자체 추진	소계		223,016	178,282	73,121	105,161	44,734
	남원시		41,964	39,908	16,426	23,482	2,056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22,272	20,216	9,860	10,356	2,056
		남원 사랑정원 조성	19,108	19,108	6,352	12,756	–
		남원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	584	584	214	370	–
	장수군		35,662	14,510	6,882	7,628	21,152
		대곡제 관광개발	29,870	8,718	4,022	4,696	21,152
		방화동 레포츠관광지화	5,792	5,792	2,860	2,932	–
	구례군		27,872	26,616	12,158	14,458	1,256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23,152	21,896	9,952	11,944	1,256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4,720	4,720	2,206	2,514	–
	곡성군		23,758	23,758	11,593	12,165	–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10,760	10,760	5,318	5,442	–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	12,998	12,998	6,275	6,723	–
	함양군		27,602	27,602	12,023	15,579	–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15,004	15,004	7,024	7,980	–
		상림 주변 관광개발	12,598	12,598	4,999	7,599	–
	산청군		27,326	18,578	8,766	9,812	8,747
		죽림 관광지 조성	13,294	4,546	1,834	2,712	8,748
		중산 관광지 산악관광센터화	4,328	4,328	2,138	2,190	–
		남사 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9,704	9,704	4,794	4,910	–
	하동군		38,832	27,310	5,273	22,037	11,522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	19,258	19,258	2,612	16,646	–
		하동 야생녹차공원 조성	19,574	8,052	2,661	5,391	11,522
	소계		63,060	63,060	30,824	32,236	–
공동연계사업 * 조합 추진	공통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2,382	2,382	1,187	1,195	–
		지리산권 통합 축제 개최	5,320	5,320	2,450	2,870	–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3,640	3,640	1,750	1,890	–
		지리산권 7품·7미 육성	4,122	4,122	2,061	2,061	–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 조성	15,600	15,600	7,800	7,800	–
		타운 투어리즘 존 시범 조성	8,500	8,500	3,900	4,600	–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	3,600	3,600	1,800	1,800	–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	5,066	5,066	2,497	2,569	–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1,330	1,330	630	700	–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13,500	13,500	6,749	6,751	–

Key ponit 4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의 성공 요인

공동 사무 발굴 및 반영하려는 노력

중앙부처까지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정을 잘 보여주었다. 7개 시·군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지리산권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조합원 간의 상호 노력

조합을 설립할 때도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합 운영의 기본 방향은 '공동 부담과 공동 수혜'. 인력과 예산 등을 적기에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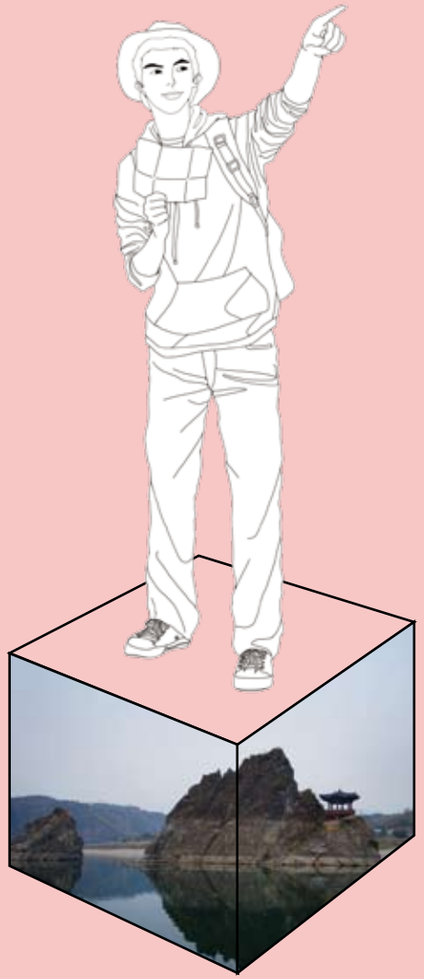
공동연계사업 자체가 홍보, 교육, 행사 등이 대부분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차례 협의하였다.

예산 확보의 효율성

2010년 공동연계사업 예산은 200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던 것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 국비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줄었다.

관광상품도 특산물도 공동 마케팅으로 명품화~ 소규모 지자체 6곳 상생 위해 크게 뭉치다

우리나라 중부 내륙에 위치한 제천시·단양군·영월군·평창군·영주시·봉화군은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3개 도의 경계지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러나 인구 비율이 낮은 소규모 지자체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만큼 발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자연환경과 생활 배경을 갖고 있던 이들 6개 시·군은 지난 2004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발족하고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상품을 특화시켜 전국적으로 강력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가 하면,
공동 특산물인 한약재를 명품화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중이다.



marketing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박 실무관 만나다!

박찬욱 · 제천시 전략기획실

홍 과장: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박 실무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이하 행정협력회)는 민선 3기 제천시장으로 당선된 엄태영 시장의 제안으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중부내륙에 위치한 시·군이 지리적 한계로 인해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협력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상생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던 차였죠. 2004년 제천시장을 중심으로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평창군, 경북 영주시 등 5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모여 행정협력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 행정협력회를 발족하였고, 경북 봉화군이 합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07년부터 3개 도 6개 시·군이 지금의 협력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홍 과장: 박 실무관님이 행정협력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박 실무관: 저는 제천시 전략기획실(전략기획팀)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며 행정협력회 회의운영실무위원회 및 협력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협력회는 회의운영실무위원회, 문화관광실무위원회, 지역(도시)개발협력실무위원회, 한방클러스터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각 시·군에서 해당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이 실무위원과 간사로 참여합니다.

홍 과장: 행정협력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박 실무관: 우선 6개 시·군의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관광, 도시개발, 한방클러스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어떤 안건을 갖고 행정협의회에 참여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뒤 시·군별로 1~3개의 안건을 제안하고, 행정협력회는 정기회의에서 이 안건들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논의한 뒤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 과장: 행정협력회의 의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 실무관: 행정협력회의 운영 초반인 2006년까지는 제천시에서 의장을 맡았고, 의장시군으로서 제천시가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주관했지요. 2007년부터는 6개 시·군이 1년씩 윤번제로 돌아가며 의장시군을 맡고 있으며 실무위원회와 정기회의 개최 등 업무를 전담합니다. 영월군(2007년), 영주시(2008년)에 이어 올해는 단양군이 의장시군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방클러스터실무위원회는 제천시가 2010한방Bio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 실무관: 지자체가 각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면 합의가 어렵지요. 하지만 공동의 발전을 위해 모인 만큼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 정기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이 회의에 가지고 나갈 안건을 회의 운영실무위원회에서 미리 점검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각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회의를 갖고 업무조정을 하는 임시회의를 거치고요. 때문에 정기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안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협의도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홍 과장: 6개 시·군이 함께 모여 일을 하려면 친목 도모도 중요하겠군요.

박 실무관: 그렇습니다. 행정협력회가 구성된 뒤 친목을 다지기 위해 6개 시·군이 모여 매년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지역축제 때는 시·군별로 30~40명의 공무원과 지역민이 대형 버스를 타고 축제에 참가하여 서로의 축제 운영 방식도 배우고 분위기도 띄워주지요. 또 실무회의자들은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고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 무척 친해졌습니다. 타 지역 행사장에서 6개 시·군의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마치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가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홍 과장: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도 있나요?

박 실무관: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주로 협력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여 민간교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사업은 행정협력회 소속 6개시·군의 지역 간 '유료 관광지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입니다. 우선 2010년에는 시행 가능한 관광지 요금 할인, 공공주차장, 문화복지시설, 공립박물관에 대한 요금 할인이 시행됩니다. 할인율은 해당 시군민의 적용율과 동일하며, 지역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어요. 6개 시군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방도로 확장 및 개선, 지방도로의 국도 승격 등 사업이 있어요. 도로 확충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국비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죠. 6개 시·군은 지방도로 개선 및 확장에 대한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보내어 도로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충사업이 잘 진행되면 지역 간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마케팅 성공 스토리

작은 지자체들, 상생을 위해 크게 뭉치다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3개 도의 경계에 자리한 제천시·단양군·영월군·평창군·영주시·봉화군은 우리나라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우뚝 솟은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과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청풍호(정식 명칭은 충주호지만 이 지역에서는 청풍호라 칭한다)를 곁에 둔만큼 아름다운 경관이 자랑거리다.

그러나 대부분 인구 비율이 높지 않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라 국가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다. 특별한 사업을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려면 재원 마련 등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발전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천시장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면서 힘을 합해 공동 발전을 꾀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12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영월군과 평창군, 경북 영주시 등 5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모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발족하였고, 2007년에 봉화군이 합류하면서 현재 체제인 6개 시·군 행정협력회가 구성되었다. 봉화군의 참여로 각 도별 2개 시·군이 고루 편성되어 지역적 균형도 이루어진 셈이다.

행정협력회는 매년 한 차례씩 정기회의를 여는 것은 물론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민의 편의와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사업, 즉 지역 간 전통축제 지원이나 지역의 국제적 행사 지원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확충사업, 중부내륙관광사업, 국가관심산업 발굴 등 사안을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연대감 쌓아가며 밀어주고 당겨주기

6개 시·군이 행정협력회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 간 연대감을 쌓는 것이었다. 상생의 길로 들어선 만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제각각의 목소리만 내다 보면 행정협력회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였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해를 거듭할수록 실무위원회의 협의는 물론이고 6개 시·군의 모든 부서들의 업무 협조가 유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문화축제 상호교환 방문도 실시하고 있다. 시·군별로 매년 2~3개의 지역문화축제가 열리는데, 그중 각자 특색 있는 축제를 하나씩 선정한 뒤 타 지역의 공무원 및 일반 시민, 유관기관단체원 등이 상호 방문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대형 버스 1대 인원의 지역민, 공무원 등이 지역축제에 참가하는데 운영 경비는 주최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방문단은 축제 안내와 편의시설 운영 등을 돕는다는 것도 무척 흥미롭다. 영월군은 단종문화제, 평창군은 효석문화제, 제천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단양군은 소백산철쭉제, 영주시는 풍기인삼축제, 봉화군은 봉화송이축제를 대표 축제로 선정하여 상호 지원하고 있다.

6개 시·군의 연대감은 체육대회나 문화축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발전했다. 가깝게는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의 공동 참여를 위해 협력회 5개 시·군이 각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한편 각 시·군의 홈페이지와 소식지, 간행물 등에 엑스포를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를 봉화군이 유치토록 하기 위해 행정협력회가 협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군 유치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홍보하고 지원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짐은 나누고, 파이는 키우는 관광산업

중부내륙권의 6개 시·군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행정협력회가 출범한 이듬해 2005년부터 관광협력실무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묶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함께 마케팅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 지자체 관광과(또는 문화관광과)의 실무진이 모인 관광협력실무위원회인 만큼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이 나왔다. 관광안내 책자 제작부터 시작된 논의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형성,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하는 부분까지 진전되었다.

첫해의 공동사업은 손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홍보용 관광안내 책자 제작이었는데, 6개 지자체가 제각각 제작하는 것보다 6개 시·군이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제작하면 만큼 경비가 절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또 한 지역을 찾았던 관광객에게 책자를 통해서 다른 5개 지역의 관광지를 알리는 시너지 효과도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2007년 첫 사업의 시작을 위해 6개 시·군이 각 2천만원씩 균등하게 공동 출연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물론 행정협력회를 통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그 해 행정협력회는 6개 시·군의 관광지 및 권역별 여행상품을 담은 홍보물인 〈중부내륙기행〉 9,000부와 리플릿 118,000부를 발간하였다.

공동출자로 전국 단위의 공격적인 마케팅

공동 홍보용 책자 발행으로 자신감을 얻은 행정협력회 관광협력실무위원회는 2007년 말부터 10여 회에 걸쳐 6개 시·군 관광 부문 담당자 회의와 워크숍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관광 공동사업에 착수했다.

▲단양 8경 중 기암절벽과 노송이 어우러진 사인암

2008년에는 예산을 2억3,064만원(시·군별 각 3,844만원)으로 늘리면서 홍보책자의 개정판을 발행하는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중부내륙기행(중부내륙 센트럴투어)' 홈페이지(www.ecentraltour.co.kr)를 제작하고 다음(daum) 검색광고에 31개의 검색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등 온라인 마케팅도 시작하였다. 아울러 (주)한국문화관광콘텐츠에 의뢰하여 중부내륙권 통합관광 패키지 상품에 대한 개발에도 착수하였다.

그 결과 6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2006년 2,700만 명에서, 2007년에는 3,000만 명, 2008년에는 3,4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관광객의 증가폭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기에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했다. 수도권 등 대도시 주민에게 중부내륙권의 연계 관광상품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중부내륙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전체 예산을 2억4,360만원(시·군별 각 4,06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6개 시·군은 각각 관광지 15곳을 선정해 소개하는 동영상 15개씩을 제작하여 총 90개의 디지털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한 4월 30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언론사와 여행사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중부내륙기행' 11개 테마 상품을 소개했다. 5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중부내륙권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오는 2010년에는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3억원(시·군별 각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중부내륙기행〉 홍보책자 및 리플릿, 홍보 영상물을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해외 박람회,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까지 시도하자는 것. 아울러 문화관광 패키지 상품개발의 구상을 세우고 행정협력회 6개 시·군의 문화체험과 레포츠 등을 혼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예를 들면 산사(山寺) 투어로 '영월 법흥사 – 평창 월정사 – 영주 부석사 – 봉화 청량사 – 단양 구인사 – 제천 정방사'를 잇는 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전문여행사에 대행시킨다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info 중부내륙기행 11개 테마 상품 List

- 그리움을 싣고 떠나는 **기차여행**
- 메밀꽃 향기 찾아 떠나는 **평창여행**
- 촉촉한 흙의 기운을 받으러 **농산촌체험**
- 옷깃의 인연으로 만나는 **산사 가는 길**
- 전통문화의 고향 **문화유산여행**
- 길과의 따뜻한 소통 **드라이브여행**
- 싱그러운 자연 속 여름 이야기 **자연관광**
- 시간의 지층에서 만난 추억 하나 **박물관**
- 눈과 입과 마음이 즐거운 **맛기행**
- enjoy your life **레포츠여행**
- 삶의 에너지 충전소 **축제여행**

정부의 정책과 함께하는 '맞춤형 발전전략'

지금까지 중부내륙은 광역개발계획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 지자체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발전전략을 일대 전환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행정협력회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단독으로 발전전략에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권역 단위의 발전전략이라면 6개 시·군이 모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광역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2008년 정기회의에서 제천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추진전략과 새로이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자는 안건을 냈고, 행정협력회는 이에 공감하여 정부정책에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공동용역을 통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행정협력회에서 협의가 이뤄진 만큼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았다. 시·군별로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공동출연할 수 있었다. 2009년도 의장시군은 단양군이지만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안건을 발의한 제천시가 주관하기로 했고, 추진은 제천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업체 선정에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중앙의 지역개발정책과 6개 시·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한 연구기관을 선정하자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맡기게 되었다.

정부관심사업 발굴 공동용역의 핵심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원형 자체사업과 공동협력사업을 개발해달라는 것. 물론 6개 시·군의 공동 참여 사업 외에 2~3개 시·군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과업 내용이었다.

이 사업의 용역 완료 시점은 2010년 2월로 행정협력회는 정부관심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중부내륙중심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협력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예산 확보에도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GAP시설 공동 사용으로 명품 한약재 생산

농촌과 산촌이 대부분인 6개 시·군의 특산품 중 대표적인 것이 한약재다. 한방클러스터실무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맞는 우수 한약재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예로부터 약령시로 유명했던 제천시가 주관하여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사업을 제안했고, 이후로 이 사업은 2009년 한약재 명품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약재 명품화사업(GAP사업)은 재배는 시·군별로 추진하되 제천시의 GAP 인증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이 시설로 입고 후 건조 가공하여 품질인증, 유통, 판매 등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천시는 시설 사용비의 60%를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시설을 백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부내륙권의 한약재를 명품 한약재로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2009년에는 제천시가 먼저 행정협력회의 5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어 GAP 한약재의 물량을 파악하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영주시 영주농협에서 생작약 70톤을 제천시의 GAP시설에서 건조 가공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제천시 산곡동 190-1번지 우리약초영농조합 법인을 연결시켜 제천시의 생작약 70톤을 건조 가공하도록 했다. GAP시설에서 한약재를 가공할 경우 1kg당 3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제천시에서 세척·건조·보관비의 60%를 지원해주고 영주시 영주농협에서 나머지 40%를 부담했다.

한방클러스터실무위원회는 2010년부터 이를 좀더 적극 홍보해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제천 외 지역에 있는 우수약초농산물유통센터(APC)까지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료를 상호 지원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APC 시설은 제천 5곳(약초 전 품목), 영주 1곳(인삼), 평창 1곳(당귀, 황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2010국제한방Bio엑스포를 통해 한약재 명품화사업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Region

mini interview

중부 내륙의 아름다운 풍광, 여행상품 속에 담았어요!

최영한 · 한국문화관광콘텐츠개발 대표

"우리나라 중부 내륙에 위치한 제천시·단양군·영월군·평창군·영주시·봉화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기차를 타면 한 번도 같은 길을 거치지 않고도 제천에서 영주, 태백을 거쳐 다시 제천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협력사업체로서 중부내륙권 패키지여행 콘텐츠를 개발한 한국문화관광콘텐츠개발(주) 최영한 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광역권 여행 콘텐츠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 관광객의 입장에서 6개 시·군의 관광지 및 권역별 패키지여행 상품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총 11개의 패키지여행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협력사업자로 선정된 후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기까지 꼬박 8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8개월 동안의 고생 끝에 탄생한 것이 '그리움을 싣고 떠나는 기차여행', '옷깃의 인연으로 만나는 산사 가는 길' 등 11개 여행 콘텐츠입니다. 각 시·군마다 홍보하고 싶은 장소나 문화상품이 많다 보니 콘텐츠에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여행상품이다 보니 6개 시·군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당 시·군의 이익보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1년에 4번씩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해나갔다.

"워크숍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막상 워크숍에서 공무원들과 만나 여행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음식점이 맛있지?' 같은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취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여행 콘텐츠로 다룰 때는 허투루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점 하나라도 직접 공무원들과 함께 다니며 평가한 후 소개하고 있어요." 패키지여행 상품을 통해 2008년 중부내륙권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07년 대비 30%나 증가했다고 한다.

참조 행정협력회 연도별 주요 협의 사항

2007년
-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영월군)
- 3도 연결 도로망(군도 8호선) 확·포장 및 국도 승격 요청(영월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동 노력(평창군)
-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사업(제천시)
- 2010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개최 협력(제천시)
- 수중보 건설사업 추진(단양군)
- 영춘면 의풍도로(군도 14호) 확장(단양군)
- 3도 연결 지방도 국도로 승격(영주시)
-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봉화군)

2008년
-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홍보물 공동 개발(영주시)
- 3도 연결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영주시)
-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확·포장 사업(봉화군)
-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 사업(봉화군)
- 중부내륙중심권 정부관심사업 발굴 사업(제천시)
- 우수한약재 생산 및 재배사업(제천시)
- 잡곡주산지 식품가공유통센터 설립(제천시)
- 중부내륙 행정협력 및 교류영역 확대(단양군)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단양군)
- 영월~평창간 지방도 413호 확·포장 사업(영월군)
- 신림~영월~봉화간(국지도 88호) 도로 확장(영월군)
- 3도 연결 도로망 개선(국가지원 지방도 접속)(영월군)
-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공동 협력(평창군)

2009년
- 기초생활권 성장촉진지역 지정 건의(단양군)
- 녹색연료 우드 펠릿(wood-pellet) 육성 지원(단양군)
- 2010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공동 협력(제천시)
- 중부내륙중심권 생산 한약재 명품화 사업(제천시)
- 3도 연결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영월군)
- 유료 관광지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영월군)
-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공동 협력(평창군)
- 중앙선 철도 복선·고속화 공동 대응(영주시)
-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유치 협력(봉화군)
- 국지도 88호선 국도 승격 건의(봉화군)

key point 4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성공 요인

6개 시·군이 친목도모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

6개 시·군은 행정협력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2005년부터
공무원 간 공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표 지역축제 상호 방문을 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는 일을 중시했다.
이렇게 유대감이 쌓이면서 업무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되었다.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

행정협력회의 4개 실무위원회는 6개 시·군에서
관련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이 참여하고 실무자가 배석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에 능한 공무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빠르고 서로 협조사항에 대한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시·군에서 올라온 안건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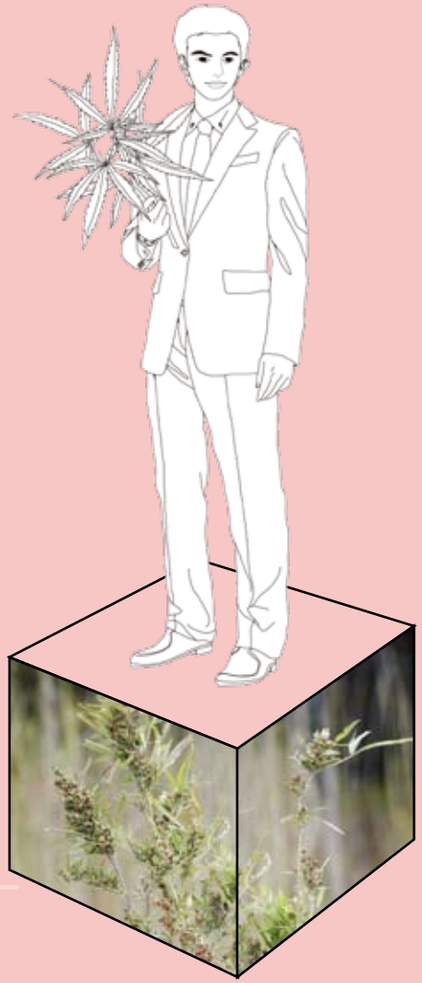
행정협력회는 정기회의에 앞서 각 시·군에서 부서별로
안건을 모으고 거르는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시·군의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안건을 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의장시군이 바뀌어도 업무 이관이 수월

6개 시·군이 1년씩 돌아가며 의장시군을 맡게 되는데, 의장시군은
실무협의회를 비롯해 사업 추진, 정기회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의장시군이 바뀌더라도 각 실무협의회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만큼,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도 업무 이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친환경 소재 헴프, 알고 보니 우리 헴프(대마)가 최우수 품종

우리나라에서는 잎의 환각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까지 받는 대마.
그러나 해외에서는 잎, 줄기, 껍질, 종자 등 대마 전체 부위가 친환경 신소재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첨단 신소재로 변신하기 위해 '헴프(hemp)' 영문명으로 이름까지 바꿨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수의를 만드는 데 쓰이는 대마가 유럽에서는 100% 유기 분해될 뿐 아니라
항균성·항독성·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을 지닌 친환경 의류 소재로 대접받고 있다.
또한 목질부는 하드보드 등 건축재로와 펄프 원료로까지 활용되니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헴프로의 변신을 주도하는 곳은 동해시 미래기획단으로 헴프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사업인
'동해 헴프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new composit

홍 과장, 김 팀장 만나다!

김시하 · 미래기획단 미래기획팀

홍 과장: 김팀장님이 '헴프 지역특화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김 팀장: 지난 2006년 김학기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동해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미래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저는 미래기획단 산하 미래기획팀에 근무하는데, 동해 헴프 지역특화사업을 기획했고 지금까지 사업 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헴프사업의 기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김 팀장: 새로 취임한 시장님이 2006년 신흥마을을 방문하던 중 헴프 재배가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지역주민들이 대체 작물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헴프의 산업적 가치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헴프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소재로 각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예로부터 강원도는 삼베의 고장이었던 만큼 동해시에서 주축이 되어 헴프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역특화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2007년 2월 산업자원부에서 균형발전포럼사업 운영 공고가 났고, 동해시에서 '동해 매직헴프' 기획포럼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홍 과장: 헴프사업에는 인근 지자체도 참여했던데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김 팀장: 동해시는 지역특화산업기획포럼 등을 통해 헴프의 다양한 산업 소재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재배 농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어야 했죠. 전통적으로 헴프를 재배해온 정선군, 평창군, 삼척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다행히 저희 쪽 제안을 다른 시·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양길로 들어선 헴프 재배를 대체할 작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공감한 부분도 있고요.

홍 과장: 대마에 대한 법적 규제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업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 팀장: 네, 맞습니다. 헴프 지역특화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대마에 대한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었어요. 우선 대마 잎이 환각 성분을 함유하여 대마초로 악용되기도 하고, 섬유 또한 삼베를 먼저 떠올려 수의를 만드는 거친 섬유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대마를 천연 웰빙 소재로서 연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마 대신 '헴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헴프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소재입니다. 포럼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관계부처의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홍 과장: 헴프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김 팀장: 동해시는 헴프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사업을 위해 헴프 관련 기업을 찾았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동해시가 찾아낸 기업은 헴프를 이용한 화장품, 벽지 등 100여 종의 특허를 출원한 (주)헴프리코리아였죠. 이 회사의 이병수 대표는 평생을 헴프 연구와 상품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입니다. 상품을 만드는 소재가 대마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횟수가 회사의 성장과 비례할 정도였으니까요. 동해시는 (주)헴프리코리아와 2008년 산업화 업무협약을 맺어 헴프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홍 과장: 헴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산업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것 모두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김 팀장: 그래서 포럼사업으로 헴프의 산업적 가치를 연구하고 알리는 작업부터 시작한 겁니다. 2007년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기획포럼사업'에 '동해 매직헴프' 기획포럼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며 관계기관과 농협 관계자, 지역 농업인단체, 시민 등을 참여시켜 헴프의 가치를 먼저 알렸습니다. 이어 2008년에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시·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지원 신규사업 공모에 '동해 헴프 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때도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시에 산업화하기 위해 한중대학교, KIST 강릉분원, 헴프 운용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헴프의 가치가 알려지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이 사업에 호응을 보였고 인근 지역인 삼척시, 정선군, 평창군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홍 과장: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김 팀장: 네, 헴프 상품개발 및 산업의 기조를 짜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은 필수였죠. 연구교수진과 미래기획단의 해당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애틀의 헴프축제 연수는 헴프를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신주쿠역의 헴프 상품 판매점과 시모기타자와역 부근에 위치한 대마 레스토랑은 헴프의 다양한 응용 범위를 확인시켜준 곳입니다. 국내의 대마 재배지도 둘러봐야 했으므로 충남 당진, 전남 보성과 목포를 차례로 돌았고요. 또한 갑자기 늘어날 헴프 수요량을 대비하기 위해 대마 재배를 활성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마 재배지도 방문했습니다. 벤치마킹은 헴프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확인하게 하였고, 2010년 발한동 헴프특화거리 조성사업을 기획하게 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헴프 지역특화사업 성공 스토리

헴프(대마)에 대한 자부심으로 부활 꿈꾸다

동해시를 비롯해 삼척시, 정선군, 평창군은 예로부터 경남의 영포, 함경도 북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대마 생산지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삼베는 '강포'라고 불렀다. 특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강종'이라고 하는 우수한 종자로 인정받고 있다. 강원도의 삼베 생산량은 1999년까지만 해도 전국 생산량의 ⅓을 차지할 정도였고 그만큼 대마 재배농가의 비중도 높았다.

대마는 화학섬유가 보편화되고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종전의 대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마산업 자체가 붕괴될 상황에 이르렀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재배농가가 2005년 88가구에서 2006년에는 44가구만 남을 정도로 급감했고 재배면적도 69㏊에서 30㏊로 줄었을 정도. 헴프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산업 소재로 각광받는 데 반해 강원도는 최고의 대마종자를 가지고도 이를 산업소재로 개발하지 못하고 그저 삼베 생산을 위한 재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만났다. 2006년 민선 4기로 김학기 동해시장이 취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그중 헴프(대마)사업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동해시 미래기획단 내 미래기획팀은 삼흥 지역을 중심으로 대마산업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헴프산업의 성공 사례를 모으는 한편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선진국에서는 헴프가 100% 유기 분해되는 친환경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뛰어난 항균성, 항독성, 자외선 차단 등 기능을 지녀 친환경 산업소재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이미 제지를 비롯해 화장품, 건축자재, 섬유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었다. 동해시는 헴프를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표1].

포럼사업을 통해 첫발 내딛은 헴프 지역특화사업

동해시가 헴프 지역특화사업을 계획하면서 도전한 것은 정부지원사업이었다. 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 동해시 신흥마을의 헴프 시험재배단지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재에 대한 연구부터 상품 개발까지 단계별로 지자체와 학계, 산업계, 향후 발전 방향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으며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홍보 및 산업계획을 세우기로 가닥을 잡았다. 때마침 2007년 3월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산업 기획포럼사업' 신규 선정사업 공모가 났고, 동해 헴프 지역특화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동해 매직헴프' 기획포럼 기획안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기획포럼 최종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어 포럼사업비로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 덕분에 동해시는 헴프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산·학·관·연의 네트워크 구축, 1·2·3차 산업 만족시키는 로드맵

우리나라에서 헴프산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나 산업소재로서 활용된 사례가 드물었다. 이런 상황이니 만큼 헴프에 대한 소재 연구부터 재배지 복원, 헴프를 소재로 한 상품 개발, 이를 생산할 기업 육성이 모두 필요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힘들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산·학·관·연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로드맵을 그려가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었다.

동해시는 포럼사업을 통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 헴프 관련 산업체, 한중대학교 헴프산업연구소, 헴프 소재 연구를 위한 KIST(강릉 분원) 등 헴프산업과 연관된 지역의 전문가 집단을

모두 포럼에 참여시켜 헴프 관련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특히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상공단체, 문화계 대표, 동해시, 동해시의회,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농협관계자 등을 영입하여 헴프산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포럼사업이 끝난 후 지식경제부 특화산업 기획포럼 수행 최종평가 결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우수' 판정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의 산업화를 위해 지역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해시가 헴프산업에 거는 기대는 단순히 헴프의 신소재로서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헴프를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에는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관광문화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동해시는 우선 헴프 재배농가를 다시 늘려 1차 생산량을 증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동해시 신흥마을 일원에 6,600㎡의 헴프 시험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재배를 시작하였다. 그 외에 헴프 자료관 및 김쌈농가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 산업을 다시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2009년에는 연구목적으로 1㏊를 계약 재배했고 점차 재배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2차 가공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헴프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헴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한중대학교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이곳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기업은 이 기술로써 북평산업단지에서 헴프 제품을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동해시는 헴프를 관광 상품화하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1년에 600만 명으로 이 중 10%만이라도 헴프를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헴프산업의 미래는 보장된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헴프사업은 1차 생산 단계부터 3차 문화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로드맵을 완벽하게 그린 뒤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대마'의 고정관념 벗어나면 무궁무진한 산업재원

헴프사업을 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은 헴프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마약류라는 인식과 '수의'의 소재라는 큰 벽을 넘어 친환경 신소재로서 헴프를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의 시행으로 헴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동해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헴프 환각성분의 허용기준치를 정하자는 건의를 하며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동해시는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헴프 연구 개발의 기지로 삼고 연구에 들어갔다. 헴프가 우수한 산업소재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한중대학교는 헴프의 줄기, 껍질, 속대, 잎, 열매와 속껍질에 이르기까지 헴프의 모든 것이 산업소재로 활용 가능함을 밝혔으며, 응용제품을 개발하는 작업에 이어갔다. 그 결과 헴프로 만든 친환경 건축자재, 고부가가치 화장품 등 2만5,000여 가지 상품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지식경제부와 강원도가 공모한 각종 포럼 및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다.

기반구축사업으로, 정선·평창·삼척 연계로 날개 달다

헴프 지역특화사업에 자신감을 얻은 동해시는 강원도가 지원하는 2008년 시·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으로 한중대학교가 주관하여 '동해 헴프 신산업 기반구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 이 사업에 선정되어 5억3,800만원(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민간현물 2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동해시 헴프 지역특화사업은 다시 한 번 활기를 띠었다.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발 중인 헴프 소재의 다양한 제품들.

2009년 2월에는 헴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한동을 중심으로 헴프 특성화거리 조성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발한동 지역은 과거 동해시의 중심가였지만 지금은 상권이 위축되고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헴프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웰빙헴프 체험시설 및 코스, 공예전, 헴프 축제 등을 마련하여 헴프 명소로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 자원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헴프 먹을거리, 헴프 상품판매점, 체험시설, 빈 점포를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 간판 및 도시 가로수 정비 등을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동해 헴프 지역특화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헴프가 다양한 산업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함에 따라 기존에 헴프를 재배해오던 인근 지자체들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해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원료 공급원으로서 헴프 재배농가를 늘려야 할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지자체로 헴프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특히 예로부터 헴프를 재배해온 정선군, 평창군, 삼척시는 연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

였다. 이들 지역은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할 대체작물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헴프 재배지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또한 헴프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강해서 고용이 일반 제조업보다 상회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동해 지역의 신규 고용 창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공감하면서 연계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근 지역과의 사업 연계는 2009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한중대학교 주관으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실무회의를 2회 개최하면서 헴프사업을 시·군의 특성에 맞춰 특화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즉, 동해시는 헴프의 원료를 이용한 친환경·웰빙 건축자재 등 제조업, 정선군은 종자사업(육종 보존, 개발, 보급)과 종실 껍질을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기능성 축산 및 가공업, 평창군은 섬유산업(전통 삼베와 현대적 디자인 접목), 삼척시는 전통삼베 체험지를 개발해 특화시켜가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의 의견이 모아지면 2009년 내에 시·군 연계 헴프산업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시·군 연계 특화사업추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친환경 웰빙 산업으로 도약

동해시는 지식경제부가 공모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친환경 웰빙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계획'을 응모하여 앞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헴프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표2).

동해시는 헴프 연구소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헴프의 줄기는 섬유생산에 쓰이지만 껍질을 벗긴 헴프 속대는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예전에는 모두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대마 속대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 친환경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마 속대를 갈아서 시멘트와 섞어 친환경 시멘트를 개발하는 계획도 세웠으며, 친환경 건축자재연구소 설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 동해항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헴프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헴프 원자재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묵호항과 동해항을 이용해 북한(평양·함북) 지역과 중국 도문 지역에서 중간재를 수입, 동해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제품으로 가공 생산하여 수출한다는 원대한 계획도 갖고 있다. Region

mini interview

의외로 재배하기 손쉽고 친환경적이라 재배 면적이 늘기만 기대합니다

곽형규 47세 · 동해시 삼화동 신흥마을 통장

"신흥마을은 달방댐 옆에 자리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농약을 치는 작물을 재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마 재배가 줄면서 대체작물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마침 다시 대마 재배를 활성화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대마는 농약을 쓸 일도 없고 씨를 뿌린 뒤 처음 두세 번 김을 매주기만 하면 쑥쑥 잘 자라 고령화된 농촌산업에도 힘이 되는 작물입니다."

헴프 시범재배지역으로 선정되어 3개 농가가 1ha의 땅에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신흥마을의 통장 곽형규 씨는 상수도보호구역의 고민을 해결할 방안으로 대마가 시범재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농가에서 재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7월 말 대마를 수확한 뒤 김장채소 등을 심어 2모작을 하는 한중대학교의 연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모작이 가능해지면 농가소득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삼베를 동해시 특화사업으로 키운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동해 헴프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가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농민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곽 통장은 동해 헴프 지역특화사업이 활성화되고, 대마 재배농가가 많아지면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삼베짜기 체험, 헴프 한지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신흥마을에서 헴프 시범재배를 하는 이대영(동해시 삼화동) 씨도 헴프 재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흥마을에 100여 가구가 사는데, 시범재배에 반 이상 가구가 신청을 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선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대마 잎부터 씨앗, 줄기, 뿌리까지 모두 한중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해 수거해가니 좋지요. 4월 20일경 씨를 뿌리면 석 달 만에 쑥쑥 자라 7월 말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힘이 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헴프 재배지에는 지역주민 및 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되는데 이 역시 지침만 따르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표1 헴프 지역특화사업 추진 과정

2006.11 동해시 미래기획단 미래기획팀 헴프사업 구상 시작
2007.05.11~09.07 헴프 브랜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인제대학교)
2007.07.31 동해시와 산업기술평가원 동해 매직헴프 기획포럼 협약 체결
2007.07 동해 매직헴프 기획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2007.11.15 동해 매직헴프 기획포럼
2008.04.23 동해시·(주)헴프리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2008.05.13/06. 26 전문가 초청 동해 매직헴프 포럼 및 워크숍
2008.08 미국 시애틀 헴프 페스티벌 벤치마킹
2008.09~2009.12 동해시 헴프 신산업기반구축사업(도 공모사업/ 사업비 5억3,800만원 지원)
2008.10.29~11.01 헴프특화사업 추진 관련 북한 방문
2008.11.21 제2회 한·중·일 아시아 대마산업 국제회의 개최
2009.02.06 헴프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2009.09.24 한중대학교 주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실무회의 개최(1차)
2009.10.09 헴프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2009.10.29 한중대학교 주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실무회의 개최(2차)

표2 헴프사업의 향후 계획

사업연도	사업내용(용도)	비고
1차년도 (2010년)	–한중대학교 :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기반구축 추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헴프 성능 규명 및 소재의 기능성과 특성 분석 –디자인클린 : 헴프 공동 브랜드 디자인 – 참여기업 : 헴프 제품 생산기술 기반 확립	한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KIST 강릉분원) 동해농업기술센터 디자인클린, 참여기업(3)
2차년도 (2011년)	–한중대학교 : 신제품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헴프 기능성 소재화·표준화 및 THC 제어기술개발 –동해시 농업기술연구센터 : 헴프 재배지 확보(3ha) 및 청삼 적용 연구 –디자인클릭 : 헴프 기업별 홍보,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 –참여 기업 : 헴프 제품 생산 및 홍보	한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KIST 강릉분원) 동해농업기술센터 디자인클린, 참여기업(3)
3차년도 (2012년)	–한중대학교 : 생산 제품 성능 판별 및 고도 기술 접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헴프 제품 성능 규명 및 제품 성상 분석 –동해시 농업기술연구센터 : 헴프 원료 집산처리센터 확보 –디자인클린 : 헴프 개발 제품 및 지리적표시제, 관광제품 디자인 등 –참여기업 : 헴프 신제품 및 응용제품 개발	한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KIST 강릉분원) 동해농업기술센터 디자인클린, 참여기업(3)

Key ponit 5

헴프 지역특화사업의 성공 요인

철저한 사전 조사 통한 사업성 입증

동해시 미래기획단이 주축이 되어 한중대학교,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헴프의 장점을 찾아 친환경 소재로 부각시키고 FTA에 대응할 농가 대체작물로서 가치를 강조한 것이 주요했다.

산·학·관·연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 발휘

동해 헴프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은 기업체, 대학교, 동해시, 연구기관의 협력에서 성공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연구 및 제품생산기술 개발, 상품화 전략까지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한 동해시의 공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국가사업 공모 활용한 사업비 마련과 실적 구축

국책 사업에 공모하고 선정되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입증하고 실적을 쌓는 동시에 제반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었다.

포럼과 세미나를 통한 홍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

포럼과 세미나를 매년 5차례 이상 개최하며 기업체, 농업단체, 농민단체, 지자체, 문화계 인사 등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헴프의 가능성과 산업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차부터 3차 산업까지 아우르는 특화사업으로 기획

산업용 헴프를 이용한 친환경 상품 개발이 헴프사업의 핵심이다. 대마 재배지역이 확대됨으로써 FTA에 대응할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서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발한동 헴프 특성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 상품화하는 계획도 유효적절했다.

5개 시·군이 똘똘 뭉쳐 세운 자원회수 시설로 3,000억 절감, 전력 수익은 덤!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경기도의 5개 도시가 함께 사용하는 소각장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지역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이천시는 2004년 매립장시설의 사용 종료를 앞두고 1996년부터 소각장설치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던 중 관(官)주도가 아닌 주민행정 참여를 실시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오랜 난관 끝에 비로소 주민들은 소각장 사업에 찬성하게 되었고,
광역소각장을 건립할 경우 더 많은 혜택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이천을 비롯한 5개 시와 군이 사전협의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였고,
드디어 2008년 이천시에 광역소각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연간 20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얻게 된 이곳은 앞으로 환경학습장을 조성하여
친환경 첨단시설로 거듭날 것이다.

resources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김 주사보 만나다!

김홍규 · 이천시청 자원관리과

홍 과장 : 이천시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김 주사보 : 이천시청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에서 폐기물시설 관련 업무를 1996년부터 13년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고요. 이렇게 한 업무만을 오래 하다 보니 남다른 사명감은 물론 전문성도 생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훨씬 적극적이 되더군요.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10년 넘게 일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법이 나름 생기더라고요.

홍 과장 : 사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처음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에 조경도 잘 되어 쓰레기소각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주사보 : 소각장 하면 그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라 냄새도 나고 매캐한 연기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의 현대적인 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과 악취, 대기오염, 수질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설을 짓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죠. 매립시설의 경우 지하수 오염과 악취, 해충 피해 등 여러 단점이 있는 반면 소각시설은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면서 그 옆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천스포츠센터를 함께 건립했는데, 소각열을 이용해 이곳의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등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김 주사보 : 소각시설 건립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약 932억원입니다. 이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과 경기도, 정부에서 부담했는데 국비가 466억원, 도비가 233억원, 시비가 233억원들었습니다. 이 시설 덕분에 환경적인 안전성은 물론이고 각 시·군이 개별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경우 드는 비용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홍 과장 : 1996년 처음 소각시설 사업부지를 결정하고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주사보 :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지 않으려는 님비(NIMBY)주의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 매립장 시설이 2004년에 사용 종료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처음에는 1일 처리용량 60톤 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난관에 부딪혔죠. 그러던 중 관(官) 주도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민참여행정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 탄생된 것이 '범폐추협', 즉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입니다.

홍 과장 : 범폐추협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주사보 : 시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단체,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로 이천시는 행정적·재정적·법적인 지원만 하고 '범폐추협'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도 '범폐추협' 위원들이 직접 현지 답사를 실시한 후 입지 후보지를 확정,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5번지 일원'을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했음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범폐추협'과 함께 노력한 3년여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선입견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에 접어들어 5개 시·군을 묶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홍 과장 :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군요?

김 주사보 :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선입견을 해소시키려 노력했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환경적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했죠. 또한 시설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광역화에 참여하는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른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홍 과장 : 5개 시·군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김 주사보 : 물론입니다. 광역화 참여 시·군에서 각각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소각시설 건설비용 760억원을 투입, 향후 20년간 운영할 경우 시설운영비 1800억원, 전력판매수익 554억원 등 총 3,114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이기주의를 이겨내고 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광역소각장 사업 성공 스토리

▲주민지원기금으로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주민들은 화훼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천시 쓰레기소각장건립계획 주민 반대로 표류하다

1995년 당시 이천시는 1997년부터 사용하던 쓰레기 매립시설 사용 종료기한이 2004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매립에만 의존하던 폐기물처리 방법을 소각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이었는데, 이천시에서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토 황폐화의 원인이 되는 매립시설보다는 소각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처리방식, 예산조달, 주민설득 등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995년 11월, 1일 처리용량 60톤 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 이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조사를 거쳐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이 사업부지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 추진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11월에 이르러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입지후보지 선정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인센티브 30억원을 제시하고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읍·면·동별로 시의원, 이통장단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모든 권한을 주민 손에!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 구성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천시는 소각장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관(官)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 사업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에 따라 2000년 4월 시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이하 '범폐추협')을 구성하였다. 이천시는 행정적·재정적·법적인 지원만 하고 '범폐추협'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주적인 폐기물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000년 9월 '범폐추협' 본회의를 개최하여 입후보지를 13개소로 확정, 의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 입지선정계획안을 공고하였다. 2001년 6월에는 이천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결국 2002년 12월 범폐추협에서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5번지 일원'을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하였다.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일부 주민대표들 사이에서 소각시설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단독소각장에서 광역소각장 건설로 방향 전환

때마침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시설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광역시설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국도비 지원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였다.

이천시에서는 이미 단독 시설의 사업부지가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광역시설을 견학한 이

천시의회 의원들과 광역 시설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03년 4월 인근 지자체인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과 함께 '광역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표 1].

5개 시·군은 입지결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지선정 방법(후보지공모), 광역화 대상 시설(소각시설), 시설 규모(1일 300톤처리), 사업비 분담 방안 등에 대해 사전합의를 거쳐 2003년 7월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처음에는 기피시설을 마을에 유치한다는 것에 반대가 많았지만
광역소각시설의 안전성을 깨닫고 진정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주민들. 그들은 현재 주민지원기금을 이용해
마을 공동으로 새로운 화훼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5개 시·군 입지후보지 공모 결과 이천시로 결정

협약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공모를 세 차례 실시하였다. 이 결과 이천시에서 4개의 후보지역이 나왔고, 이천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는 후보지 신청이 전혀 없었다. 관련법규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월 입지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4개 지역 중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산98번지 일원'을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총사업비 932억2,200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를 들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었다[표 2].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관련한 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협약' 등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두려움 NO!
친환경적인 내부 시설에 멋진 외관까지

하루 최대 300톤까지 처리 가능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친환경적인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이천을 대표하는 도자기와 쌀에서 영감을 얻어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려 설계한 외관뿐 아니라 푸른 잔디밭과 작은 실개천이 어우러진 조경은 여느 공원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시설면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은 허용기준치 이내로 주거지역에서 미치는 소음은 전혀 없으며, 건물 내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전실설치 및 창문 등으로 밀폐하고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로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소각처리 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은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완벽하게 제거하였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물리화학적 방식으로 처리한 후 소각장 내에서 재활용하고 지하 오수관로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했다.

▲소각열을 이용한 이천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현실적인 이익과 환경을 생각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단독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환경적 안전성에서 단독 시설은 소각물량 조절과 예비 기능이 없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매립시설 설치로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우려와 단순소각으로 자원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예비시설 확보 및 100% 정상 가동으로 오염물질발생이 없고,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질과 토양 오염이 없다. 또한 폐열 이용을 극대화하여 자원회수도 가능하게 된다.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도 이천시가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 약 200억원, 운영비용(20년 예상)이 540억원이 든다. 반면에 광역시설인 경우는 설치비용 1,000억원 중 이천시는 토지매입비 47억원만 부담하면 되고, 전력판매수입이 생겨 운영비도 1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민지원 효과에 있어서도 광역시설일 경우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이 약 240억원이 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많아지게 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의점 찾는다

처음에는 기피시설을 마을에 유치한다는 것에 반대가 많았지만, 광역소각시설의 안전성을 깨닫고 진정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 주민들. 그들은 현재 주민지원기금을 이용해 마을 공동으로 새로운 화훼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소각장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집단농성을 벌이고 담당 공무원과 범폐추협에서는 소각장의 안전성을 알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타 지역 소각장 견학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전세 버스를 준비해놓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도 버스를 타지 못하게 저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누가 견학 버스를 탔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추궁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 바람에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주민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천시 공무원과 '범폐추협'이 하나가 되어 서두르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한명 한명 설득해나가 결국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광역소각시설이 결코 위험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시설이라는 인식과 주민지원기금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마을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어려움 끝에 성공을 이루어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마을주민과 5개 시·군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지역사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Region

mini interview

작은 희생으로 지역 마을까지 살린 현명한 선택!

정홍전 49세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장

"처음에는 저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많은 지역 중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담당자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저 끝까지 반대해서 절대 세우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홍전 씨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소각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처음에는 소각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담당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여러 지역의 소각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현장조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였다. 그러다 보니 소각장이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아니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최근 건립되는 소각장은 오염물질도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홍전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만 고려하여 대화를 나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동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 시설의 안전성을 정확하게 점검해보고, 우리 마을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한 이곳 주민들은 현재 소각열에 의해 나온 증기로 가구별 난방을 공급받고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그중 일부분으로 영농조합을 만들고 온실에서 장미를 키우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장미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인데, 이 화훼단지도 소각열을 이용해 운영됩니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정홍전 씨는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사업인 동시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내년 봄, 활짝 핀 장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 정홍전 씨의 바람이자 계획이다.

표1 광역소각장 사업 추진 내역

2003.04.30 광역화 실무협의회 개최, 동부권 광역화 추진 기본방향 협의
2003.07.05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공고
2003.07.29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2003.09.04~25 광역자원회수시설 순회홍보 실시
2003.09/1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두 차례 재공모
2003.12.26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04.01.12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부지 확정 의결
2004.01.16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2004.03.15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공
2004.04.1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제출(환경부)
2004.07.14 광역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
2004.11.22 총사업비 조정심의 결과 통보(토지 매입비 제외 92,832백만원)
2004.12.07 공사입찰 공고
2005.05.04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05.05.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경기도)
2005.09.16 광역자원회수시설 공사계약
2005.1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경기도)
2005.10.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공사착수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착수
2005.11.25 광역자원회수시설 기공식
2006.11.22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2008.04~07 소각시설 시운전
2008.08.05 자원회수시설 정상운영 개시
2008.09.29 시설준공(주민편익시설 포함)
2008.11.20 준공식

표2 광역소각장 설립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93,222	37,617	40,450	13,899	1,256
국비	46,611	13,647	23,067	9,266	631
도비	23,305	6,823	11,534	4,633	315
시·군비	23,306	17,147	5,849	–	310

Key point 4

광역소각장 사업의 성공 요인

5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의 과정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전 5개 시·군의 광역화 추진협의회에서 2003년 4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입지 결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예방하였다.

민간이 주체가 된 사업 추진

관 주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입지선정 등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범폐추협'을 중심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었기에 가능했던 사업이다.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지원 규모의 확대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주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단일시설보다 광역소각시설이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했다.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각종 홍보자료를 이용한 주민설명회, 간담회, 토론회는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을 추진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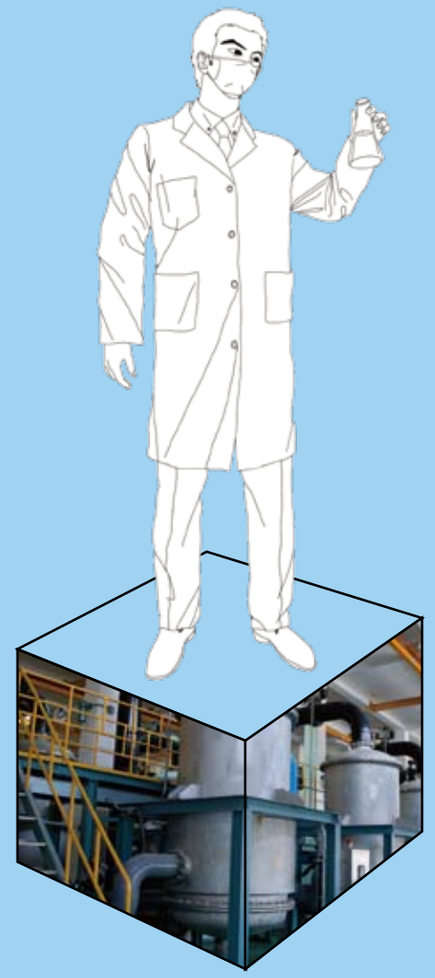
업무담당자의 연속성

1995년부터 시작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동일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주민신뢰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다.

꿈 이 있 고 살 고 싶 은 지 역 창 조

기피 시설 함께 세워 공동으로 사용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 효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지역인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창원시의 소각장을
마산시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마산시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중이다.
이처럼 양쪽의 기피 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각각 건립하였을 때보다
설치와 운영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것은 물론 상호보완 효과가 있어
두 도시가 모두 윈윈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창원시와 마산시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public facilities

홍 과장, 김 주사 만나다!

김현석 · 마산시 하수처리과

홍 과장 : 마산시 하수처리장에서 수행하시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김 주사 : 마산시 하수처리장이 환경시설사업소 내에 있는데 이곳의 하수처리과에서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는 하수처리장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있습니다.

홍 과장 :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김 주사 : 1980년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어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공사기간을 거쳐 1차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하수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2차 증설 공사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차 시설 28만 톤, 2차 시설 22만 톤을 합해 총 5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 하수처리장을 처음 건설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을 텐데요.

김 주사 : 1차 시설을 만들 당시에는 하수처리장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반대가 거의 없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요. 그러다 2차 시설을 증설한다고 하자 하수처리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될 때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많았죠. 특히 이곳 덕동동은 예전부터 분뇨처리시설이 있던 곳이라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시설을 설치하느냐며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과장 :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하군요.

김 주사 : 하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며 주민 홍보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회관 건립, 도로 포장, 어민선착장 설치, 주민건강검진, 상수도공급시설 등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의 업무 원칙 중 하나가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 날씨가 흐린 날은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는데, 만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으면 악취가 가장 심한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2개 조로 나누어 일주일 동안 악취의 원인을 찾아 포집시설의 배관과 미생물 탈취 방식의 흡입관을 재정비하는 등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한편 환경단체에서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는지 항상 감시하는데요. 이런 감시가 조금 불편할 때도 있지만 환경을 위한 일이고, 저희도 그런 감시가 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더욱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과장 : 어떤 과정을 거쳐 하수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김 주사 : 중계펌프장에서 발생 하수를 모아 예비처리장으로 보낸 뒤 비닐 조각, 모래 등 각종 협잡물을 제거합니다. 최초 침전지에서 유입수에 포함된 찌꺼기를 침전시켜 부유 물질을 제거하고 생물반응조로 보내면 여기서는 공기를 불어넣어 유기물과 질소, 인을 제거하죠. 그리고 최종 침전지에서 남아 있는 찌꺼기를 최종 침전시킨 후 자동 여과시설로 보내면 이곳에서 부유 물질을 또다시 없앱니다. 그 후 UV소독시설에서 자외선램프를 통해 수중에 함유된 유해 미생물을 살균합니다.

홍 과장 : 마산과 창원이 시설을 함께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김 주사 : 하수처리장이 마산에 있다 보니 시설예산 투입과 운영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라 오히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산과 창원은 정수장을 비롯해 쓰레기소각장도 함께 사용하고, 시내버스와 택시도 공동 사용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가 많은 도시입니다.

홍 과장 : 마산과 창원 두 도시가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두 도시에 어떤 윈윈 효과가 있는지요?

김 주사 : 하수처리장을 2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이 훨씬 절약 되겠죠. 그 밖에 공동운영에 따른 임금 절감이 연간 약 27억원에 이릅니다.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창원시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 반대 등 민원이 없으니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마산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각장·하수처리장 사업 성공 스토리

▲창원시와 마산시가 공동 사용하는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마산시, 창원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사용을 요청하다

창원시 신촌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공사를 마친 1호기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증설 공사를 마친 2호기가 가동 중이다. 이곳은 창원시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1999년 마창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12개 사회단체가 창원시 소각장을 마산시와 공동 사용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마산시에서도 공동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마산은 1998년부터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창원시는 마산시로부터 소각장 공동 사용에 관한 협의를 받자 쓰레기 감량화로 여유 용량이 생기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1999년 6월 창원·마산 소각장 공동사용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당시 창원의 일부 시민들과 시의회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반대 의견은 굳이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소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창원시는 '현재 마산시와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협조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하고, 창원시에서 소각장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 용량분에 한하여 마산시가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합리적인 협약 체결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 예방

업무 추진은 창원시의 환경미화과와 마산시의 도시미화과에서 담당하였다. 1999년 10월 창원·마산 소각장 공동사용 합의문을 작성하고, 2000년 4월 소각장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용방식은 마산시에서 쓰레기 반입 예상 물량을 통보하면 창원시가 반입된 물량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었다. 2000년 5월 제1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차 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공동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협약 내용에는 마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제외)에 한하여 반입한다는 것과 반입 시간은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까지로 한정지어 이용한다는 것, 소각장 반입차량 이동 시 침출수 유출 및 악취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반드시 압착식 진개차량을 사용한다는 것, 민원이 발생하면 창원시와 마산시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 등 원칙을 미리 정해 두 도시가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1).

창원시와 마산시가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사용함으로써 두 도시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마산시에서는 매립이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고, 창원시에서는 소각장의 여유 용량을 사용함으로써 시설의 이용효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간의 우호적인 협력기조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설치로 마산만의 수질환경 개선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의 거대화 및 과밀화로 각종 공해와 수질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면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978년 구미, 반월, 창원, 울산, 여천 등 5대 공업도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1981년 창원·마산 하수처리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은 창원시와 마산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모아 마산시 가포동에

▲마산시와 창원시가 공동 설치, 사용하는 마산시 하수처리장

있는 예비처리장을 거쳐 덕동동에 자리한 본 처리장에서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한 후 마산만 외해에 방류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전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진 폐수로 오염되었던 마산만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공공수역의 이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1차 시설(1984~1993년 공사)과 2차 증설(1997~2007년 공사)로 이루어졌다. 1차 시설 공사는 건설부 부산국토관리청 주도하에, 2차 증설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마산시 하수도과 주도하에 시행하였다.

1차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사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후 사포지역을 대피처로 이용하는 해군과 악취를 경험한 적 있는 처리장 인접 지역의 주민들이 당초에 규정된 처리방식인 혐기성안정지의 설치를 반대하였다. 게다가 1984년에 방류 수역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985년 하수처리 방법 및 처리용량을 전면 재검토한 뒤 처리 방법을 당초 혐기성안정지에서 1차 처리공법으로 변경하여 1986년 최종 설계를 완료하였다. 1차 시설은 1980년대 마산시와 창원시의 도시공업화 추진 정부정책에 따라 육상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부서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3년 하루에 28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하여 마산시와 창원시에 이관하였다.

2차 시설은 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2010년도가 되면 마산시와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루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여 실시된 시설확장 공사였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1차 시설은 전액 국비로 건설됐으며 마산시 하수도과에서 건설한 2차 시설은 국비 53%, 도비 20%, 시비 25%, 기타 2%이며, 시비는 마산시와 창원시의 하수발생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였다(표 2)(표 3). 현재 시설 운영비는 마산·창원하수종말처리장 관리협약서를 체결하여 유입 유량에 따라 마산시와 창원시가 각각 분담하고 있다.

마산시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마산항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공공수역의 이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수질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
하수처리된 물에서 물고기가 살 정도로 깨끗한 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주민 홍보와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민원 해결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덕동동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심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민원발생의 주원인은 시설확장을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주민들이 무허가 어장을 잃게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민원 해소가 완료되기까지 약 3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해 1997년부터 2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다. 당시 대안으로 제시하여 합의를 본 내용은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주민들과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2007년 2차 시설이 완공되었다.

이후 체육시설을 친환경 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로 변경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체육시설 무상 사용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아쉬워했고, 태양광 모듈 설치로 마을 경관이 훼손될까 우려했으며, 태양광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불안해했다. 이에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장점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재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위원들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설득했다. 10개월의 노력 끝에 결국 2008년 12월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주민들의 확답을 받아낼 수 있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홍보와 견학 등으로 이해를 도우며,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였다.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회관 건립과 도로포장 및 개설, 상수도공급시설, 어민선착장 설치, 주민건강검진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하는 환경시설로

마산시 광역하수처리장은 잠재된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바야흐로 녹색에너지 종합타운으로 도약하고 있다. 하수 슬러지를 감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차량연료화나 연료전지화, 하수 최종 방류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방류수 온도를 이용한 냉난방, 건천 유지수를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처리장 인근에 위치한 시 직영 쓰레기매립장에도 매립 가스 발전시설을 민자로 유치하여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사이에 위치한 마을 40여 가구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태양광 주택으로 개조하였으며, 마을회관의 옥상을 활용한 20㎾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고정적인 전기 판매 수익을 올리는 등 시와 주민이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변화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하수처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시설 견학을 적극 권유하기도 한다. 하수처리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피시설이 아닌 생산적인 친환경 녹색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gion

mini interview

하수처리한 물에서 정말 물고기가 사네요!

김윤순 42세 · 마산시 내서읍 안성리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윤순 주부. 그녀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가족과 함께 마산시 환경시설사업소를 찾는다. 아이들과 산책하며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마산시 환경시설사업소 시설을 견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초등학생인 둘째의 체험학습장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들렀는데 막상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보면 작은 공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무와 꽃도 많고 잔디밭과 더불어 조경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종종 짬날 때 가족들과 간식을 싸가지고 들러 쉬었다 간답니다."

사실 김윤순 씨도 이곳을 찾기 전까지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니 냄새도 심하고 불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원처럼 잘 꾸며진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게다가 더욱 놀란 사실은 하수처리를 한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었다. 아이들도 정말 이 물이 하수처리를 한 물이냐고 거듭 물어보더란다. 이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환경오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환경시설사업소의 견학 프로그램은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고 간단한 생활 속 환경교육을 받은 뒤 하수처리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현장 견학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용한 생활폐수가 어떻게 처리되어 바다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사실 집에서 습관처럼 세제를 사용해왔는데 사용량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을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카락이 하수처리시설의 고장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머리를 감은 뒤 머리카락을 꼭 따로 버리고 있어요.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환경을 위하는 거겠죠."

앞으로 아이들과 주부들이 많이 찾아와 하수처리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갔으면 하는 것이 김윤순 씨의 바람이다.

표1 창원시 소각장 공동사용에 관한 추진 상황

1999.03.11	마창환경운동연합에서 소각장 공동사용을 제안
1999.03.18	마산시에서 소각장 공동사용 협의를 요구
1999.03.27	창원시는 쓰레기 감량화로 여유 용량 발생 시 검토 가능 회신
1999.06.09	창원, 마산 소각장 공동사용협의회 구성
1999.06.30~10.14	5차례에 걸친 소각장 공동사용협의회 개최
1999.10.27	창원, 마산 소각장 공동사용 합의문 작성
2000.04.06	소각장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서 작성 송부
2000.04.27	소각장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 체결

표2 마산시 하수처리장 건립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시설규모	공사기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원이자부담금
계	50만 톤		294,798	188,654	45,434	55,910	4,800
1차 시설	28만 톤	1984.10 ~ 1993.06	78,431	78,431 -내자:66,077 -외자:12,354	-	-	-
2차 시설	22만톤	1997.04 ~ 2007.11	216,357	110,223	45,434	55,910	4,800

표3 마산시 하수처리장 2차 시설 사업추진 상황

1990.03.21	마산시가 건설부에 하수처리장 2차 확장사업 시행 건의
1994.02.28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후 건설부에서 대안입찰 결정
1996.02.17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1997.04.07.	공사 착공
1997.04.16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덕동동지역 주민)
1997.06.02	2차 확장공사 시설계획 변경 요구(덕동동 주민들 수처리구조물 전면 복개 요구)
1997.08.26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2001.08.21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방안 강구
2001.10.05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방류수질기준 강화)
2001.11.26	고도처리시설 공정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 시행 지시
2002.07.23	마산/창원 하수종말처리시설(2차 확장사업) 설치변경 인가
2002.12.31	하수처리장 1계열(25만 톤/일) 준공
2007.11.30	마산·창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체 준공

Key ponit 4

소각장·하수처리장 사업의 성공 요인

소각장 공동사용

두 도시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창원시와 마산시는 기존의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해온 터라 소각장 사용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이 적은 편이었다.
지금까지 두 도시의 긴밀한 공조관계가 도움이 되었다.

창원과 마산 공동협의회 구성하여 합의점 도출

창원시와 마산시 두 지자체 간 공동으로
'창원·마산 소각장 공동사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공동 사용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하수처리장 공동설치 및 이용

마산과 창원의 동일 인식과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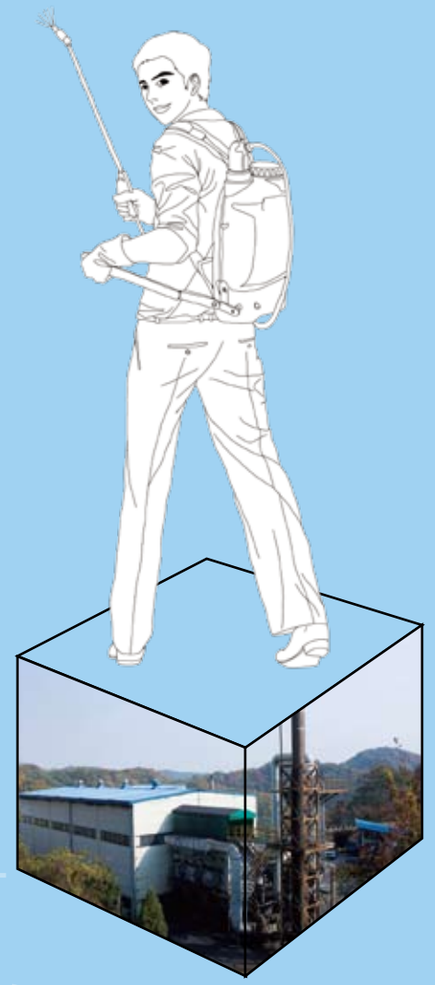
하수처리장은 마산시 덕동동에 있지만 처음부터
마산과 창원이 공동 설치하고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라는
생각으로 시설운영 비용을 함께 부담해왔다.
또한 창원시는 예산투입과 운영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마산에 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두 시의 마찰 없이 공동설치와 이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마산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선입견을 없애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현재도 환경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누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귀기울이고 발빠르게 대응하여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아끼고 보조금 늘고 업무 효율 쑥쑥 올리는 1석3조 자원순환형 시설

충청북도 내의 인접 지역인 진천과 음성은 1996년부터 공동으로 사용해오던
폐기물매립장 사용연한이 다가오자 2차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준비하게 되었다.
두 군은 다시 한 번 공동으로 광역시설을 세우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지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자원순환형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등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신규 사업에 포함시키려는 노력 끝에 결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아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으며,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금과 업무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1석3조의 광역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environment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최 주사보 만나다!

최재만 · 음성군청 환경보호과

홍 과장: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최 주사보: 음성군에서는 기존의 폐기물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2008년 말로 다가오면서 지난 2004년부터 새로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음성군청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이 일을 맡아 주민설명회부터 후보지 선정, 진천군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맺기까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홍 과장: 음성과 진천 2개 군이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기로 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최 주사보: 처음부터 광역 추진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음성군에서는 2004년부터 단독으로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2006년 진천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인접 자치단체와 2km 이내일 경우 그곳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주민 간 협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추진하게 되었지요.

홍 과장: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최 주사보: 음성군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재원의 30%만 국비지원을 받는데, 지자체 두 곳에서 광역으로 추진하면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군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중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요.

홍 과장: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최 주사보: 음성군에서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요. 물론 공모할 때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직접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해 새로 들어설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요. 결국 신청을 통한 후보지 선정을 포기하고 합당한 지역 두 곳을 후보지로 지정한 뒤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마을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지금의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18번지 일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지 후보지 공모를 할 때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습니다.

홍 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절차도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최 주사보: 전체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보호과(진천군은 환경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법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 산림축산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음성군은 2006년 12월 4일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진천군은 2006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홍 과장: 주민을 설득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 주사보: 당시 환경보호과의 김석중 과장님(현 의회사무과장)의 노하우를 공개하자면, 주민간담회나 이장님들 모임에 나가기 며칠 전부터 이장님을 하루에 한 분씩 개별 면담했답니다. 그때마다 각 이장님이 요구하는 도로포장이나 경로당 건립 등 마을의 숙원사업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뒤 주민간담회에 나가면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물론 약속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합의나 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미리 시행해서 약속을 지켰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신뢰를 쌓다 보니 새로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쌓였고요. 예전의 폐기물매립장과 달리 안전한 자원순환형 종합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점을 확신시켰습니다.

홍 과장: 이번에 시공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기존보다 발전된 시설을 갖추겠지요?

최 주사보: 기존의 폐기물처리장은 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취가 나면서 파리·모기도 많아졌고,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 문제가 뒤따랐죠. 이번에 공사 중인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기존 시설과 달리 1일 15톤 규모의 쓰레기분리시설과 1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최신식 침출수 관리시설을 갖춰 악취나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통동리 주민들이 구리시 소각장을 견학하게끔 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켰죠.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 성공 스토리

입후보지 공모 실패로 초기부터 난항

진천군과 음성군은 1996년부터 사용해오던 폐기물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2008년 말(현재는 2010년 3~6월로 연장 사용 중)로 다가오면서 차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무엇보다 진천·음성군은 혁신적인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규모 있는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준비에 들어간 지자체는 음성군이었다. 음성군은 2004년 단독으로 차기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보호과 등 해당 공무원들을 인근 연고 지역으로 견학을 보내 새로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 견학도 동시에 진행해서 공감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2004년 12월 1차 입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4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 지역이 아예 없거나 신청 지역은 있으나 해당 주민이나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신청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차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계획은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한편 진천군은 음성군보다 다소 늦은 2006년에 접어들어 차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6년 6월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진천군은 2006년 9월 16일 입후보지 공모를 내고 각 읍면을 돌며 1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좀처럼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진천군 역시 공모에 실패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산 절감·보조금 인상·업무효율 상승, 1석3조의 광역시설

두 지자체가 후보지 공모로 난항을 거듭하는 와중에 2006년 진천군에서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음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진천군은 주민 공모가 실패함에 따라 관에서 소유한 군유지를 입지로 선정해야 하는데, 관내 매립장을 설치할 군유지가 적당치 않고, 사유지의 경우 토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수용과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진천군 단독 추진은 힘든 상황이므로 광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2006년 9월 마침내 진천·음성군 관계 부서(음성군 환경보호과, 진천군 환경과)의 과장, 계장, 직원들이 모여 실무자회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10월에는 진천·음성군이 정례회의를 하는 등 공동협정을 맺기까지 실무자회의가 세 차례 진행되었다.

광역 추진의 이점은 상당했다. 두 군이 님비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으로 설치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각 지자체가 해당 주민과 협의를 이끌어내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용이했다.

또한 두 군이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랐다. 특히 광역화를 추진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단독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은 30%지만 광역으로 추진하면 50%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이중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지자체는 이 같은 점에 공감하고 마침내 2007년 5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정을 맺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행정업무도 진천군은 '입지결정, 고시 후 행정 절차 이행 및 건설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를 맡고, 음성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 선정 및 결정·고시, 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이행'을 맡기로 합의했다.

사업투자 비용은 기존에 사용하던 매립장의 3년간 쓰레기 반입량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이 64:36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표1).

진천·음성 광역 추진을 위한 입후보지 선정

광역 추진안에 협의한 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음성군은 4차례에 걸친 공모가 실패로 끝나자 공모에 의한 입지 선정을 포기하고 군청에서 먼저 입지를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주민과 협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7년 2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음성군 담당 공무원 2명(환경보호과), 군의원 2명, 주민대표 3명(통동리, 삼용1·2리), 대학교수 4명으로 구성되었고, 맹동면 통동리 일원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5월에 두 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에 이어 사전환경성검토 절차가 주민의 별다른 이견 없이 완료되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음성군과 진천군(초평면)의 주민대표 등을 참석시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2007년 7월, 오랜 기간 표류하던 입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차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로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이를 고시했다.

잦은 눈맞춤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진천군과 음성군 역시 입지를 선정해놓고도 주민과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우선 시설이 들어서는 음성군은 주민의 토지보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음성군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작업은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서브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어 3월을 기점으로 해당 마을 주민과 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에 들어갔고 3차에 이르는 협상 과정에서 재결 신청과 결렬이 반복되었다.

토지평가가 낮다는 불만과 감정가격보다 높은 전답을 요구하거나, 임야를 평당 30만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음성군은 주민과 개별 면담을 통해 토지수용을 마무리지었다.

토지수용과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은 주민 인센티브 사업이었다. 음성군은 2007년 군의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 마을(통동리, 삼생3리, 조촌2리, 삼용1·2리)과 협의에 들어갔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경로당과 문화생활관, 다목적 회관, 농기계창고 등 설립, 농로 포장, 상수도 개선, 소하천 정비 등 대부분 마을 편의시설과 관련된 것이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를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갔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영향을 받는 맹동면 통동리, 원남면 삼용1·2리 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발전기금인 주민지원기금(인센티브) 110억원의 배분 문제였다. 2006년까지는 주민지원기금으로 90억원을 책정했지만, 광역시설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주민의 요구에 맞춰 11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10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한 상태.

▲지역숙원사업으로 음성군 원남면 삼용리에 새로 놓은 합수교.

주민들은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집행계획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해진 것이 그 이유로 70~80세가 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원기금이 10년에 걸쳐 나오면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음성군은 이런 건의사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2009년 3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모두 앞당겨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진천군 역시 주민지원기금 110억원을 책정하여 대상 지역인 초평면에 지원하기로 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이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전체를 위한 숙원사업 시행, 인센티브 사업의 집행 시기 조절 등 주민과의 난제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광역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해나갔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설계로 쌓은 주민 신뢰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난항을 거듭했던 이유는 기존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립장이 있던 맹동면 통동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의 주민은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었다.

때문에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관건은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었다. 진천·음성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은 공사 발주의 입찰 과정에서부터 자연과 환경에 친화적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우선 목표로 했고, 이에 적합하게 설계한 동부건설을 최종 선정했다(표 2 참조). 특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각을 통한 매립에 중점을 두었다.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한 뒤 매립하면 악취나 오염 등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매립지의 사용 연한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구리시 소각장 등 선진지를 견학하게 해 안전성을 확인시키는 과정을 우선으로 했다.

또한 문제가 됐던 기존 시설의 침출수로 인한 하천 오염의 경우 자연유하로 관로가 퇴적물로 막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유하 및 압송 방식을 택해 이런 현상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이 가진 문제도 적극 해결해나갔다. 기존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진천군 초평면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에는 진천군이 나섰다. 폐기물매립장 부지 내에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완전 정화한 후 진천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하여 이송 배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 또 현재 사용중인 침출수 관로도 전면 교체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폐수방류구 및 소각시설의 굴뚝에 자동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항상 확인,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이처럼 현재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에 빠짐없이 포함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주민감시원 배치로 환경문제 차단

진천군과 음성군의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10년. 시설의 사후관리는 협의에 따라 진천군이 맡기로 했다. 진천군은 안전하고 환경오염 없는 시설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1안으로는 환경 전문업체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방안, 2안으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소각시설은 공개경쟁입찰로 위탁업체를 선정해 관리하고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시설은 진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3안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모두 진천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안보다는 1, 2안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진천·음성의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최신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도 환경오염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맡은 진천군은 주민감시원을 상시 배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mini interview

선진지를 보고 나니 안심되고 믿음도 생겼어요

정용수 58세 ·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이장

"통동리에 또 하나의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우선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기존의 시설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회도 열고 반대서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쪽이 적합하다는 결정이 났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잘해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통동리 정용수 이장은 기존에 있던 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반발이 더욱 컸다고 전했다.

"마을 주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회관(경로당)에 모여 회의를 했을 정도였어요. 계속해서 쓰레기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그 부분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또 마을 주민이 구리시 소각장을 견학했는데, 그곳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도 냄새가 없고 깨끗하더라고요. 새로 짓는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구리시 소각장을 방문하면서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특히 새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장에서는 반입 쓰레기의 80%를 소각하고, 부족할 경우 소각장을 하나 더 짓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정 이장은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동의한 뒤에는 보상비 문제를 해결하는 점이 힘들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골인데다 노인이 많다 보니 특별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마을 분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비를 원하지만 정부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얼마씩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되는 듯해요. 장학금을 만들려고 해도 마을에 아이들이 거의 없다 보니 역시 쉽지 않고요. 또 돈이 나와도 그 돈에 딱 맞는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정 이장은 그래서 요즘도 주민들과 모여 대화하고 군청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표1 진천·음성의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3,031	5,851	18,588	18,592
국비(36.9%)	16,230	1,436	7,396	7,398
도비(7.4%)	3,238	822	1,208	1,208
군비(55.7%)	24,523	3,593	9,984	9,986
*진천(36%)	8,830	15,693	1,294	2,299
*음성(64%)	3,595	6,389	3,595	6,391

표2 기존 시설과 신설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비교

*소각시설

구분	기존 소각장	신설 소각장	비 고
용량	10톤/일(1,250kg/hr)	50톤/일(2.08Ton/hr)	
방식	스토카(회분식)	스토카(연속 연소식)	
운전시간	8시간	24시간	
다이옥신 배출량	0.5ng-TEQ/Sm³	0.1ng-TEQ/Sm³	법적기준치

*침출수 이송관로

구분	기존 관로	신설 관로	비 고
방식	자연유하 → 퇴적물에 의한 관로 막힘 현상	자연유하+압송 → 퇴적물에 의한 관로 막힘 현상 저하	
노선	하천변 → 누수 시 민원발생	도로+하천변 → 누수 시 민원 발생 저감	
기타	1열식 오수식별테이프	2열식 오수식별테이프로 누수 발생 가능성 저감	

Key ponit 5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의 성공 요인

공동사업으로 경비 절감 및 예산 추가 획득

두 군이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비지원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는 점도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부분이었다.

진천·음성군 주민과의 신뢰 쌓기

진천군의 경우 기존 광역폐기물매립장의 관리 부실로 지역적인 피해가 크다 보니 주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에 새로 짓는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피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워 신뢰를 얻었다.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으로 믿음 주기

진천군과 음성군 모두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갖고 주민간담회를 열어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홍보했다. 또한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은 처리기술이 발전하여 오염 피해가 적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주민 숙원사업 시행과 인센티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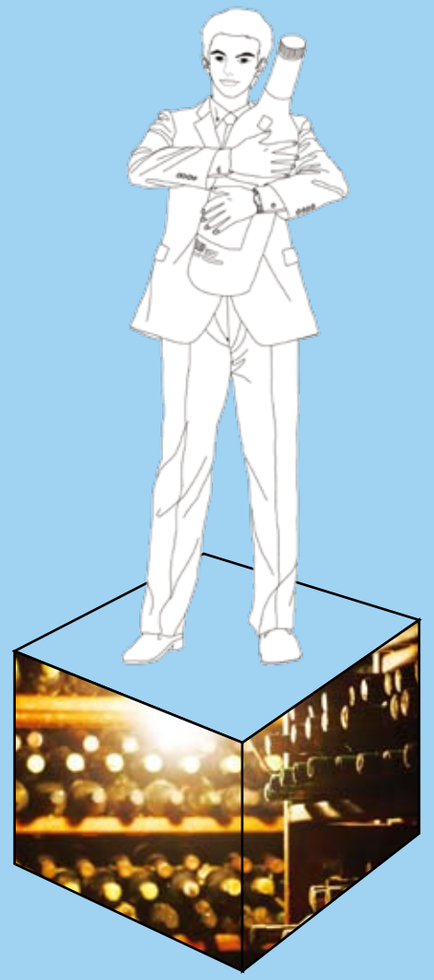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시행과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지원금은 진천·음성 각각 11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인 농로 포장, 경로당 건설, 농기계창고 설치, 상수도 개선, 하천 정비 등을 사업 진행과는 별도로 진행하여 신뢰를 쌓았다.

안전형·자원순환형 시설로 주민 설득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소각시설 규모를 1일 50톤으로 늘려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한편 침출수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진천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 이송 배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와인의 낭만, 인삼의 건강~ 꿈과 희망을 실은 기차가 달린다

2005년부터 영동포도 농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진행하여 최우수사업단으로 평가받은 영동군은
약 15억8000만원의 국비를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영동군은 클러스터산업육성의 특성인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문화로 연계되는 사업을 찾던 중
군민주주 회사인 와인코리아와 한국철도공사가 제안한 와인트레인 사업에 합류,
2007년 와인트레인 객차를 증량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한다.
와인트레인은 영동군에게 실질적인 수익사업은 아니었으나 영동포도로 생산되는 와인을 알리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데 최고의 홍보수단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익증대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
한편 금산군은 2008년부터 금산인삼열차 운영사업에 대해 조사하던 중 와인트레인과 연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2009년 3월부터 한국철도공사, 와인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와인트레인에 합류한다.



culture train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김 주사보 만나다!

김효기 · 영동군청 농정과

홍 과장 : 와인&인삼트레인 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김 주사보 : 와인&인삼트레인의 전신인 와인트레인의 사업이 시작될 당시 농정과에서 영동포도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와인트레인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홍 과장 : 와인트레인을 운행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김 주사보 : 영동군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농업이 생산산업에 머물러 있으면 수익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포도주산지인 영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특유의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겁니다.

홍 과장 : 와인트레인의 상시 운행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김 주사보 : 2006년에 열린 영동포도축제는 클러스터사업단이 기획한 '영동군 테마별 체험관광'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사업단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7~8량의 객차를 전세 내어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해 영동역까지 운행하는 와인트레인을 임시로 운행했습니다. 이 덕분에 축제기간에 매일 300~500명이 철도를 이용해 방문했고, 대내외에서 와인트레인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왔죠. 때마침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단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생겨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영동군청–한국철도공사–와인코리아가 와인트레인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한 거죠.

홍 과장 : 금산군과 연계하여 트레인을 운행하게 된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듯한데요.

김 주사보 : 문화콘텐츠의 다양화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와인을 특화시킨 기차를 타고 인삼까지 체험한다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즐길거리를 누리는 셈이니까요. 물론 금산과 영동이 인접한 지역이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홍 과장 : 와인&인삼트레인 개조비용 등은 어떻게 분담했나요?

김 주사보 : 처음 출발한 와인트레인의 식당객차 2량의 개조비는 와인코리아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추가된 일반객차 2량의 개조비용은 영동군이 보조산업으로 지원했고, 금산군은 와인코리아에서 시작한 객차 2량을 다시 인삼열차로 개조했죠. 그 밖에 열차 운영비와 관광객의 이동경비 등은 관광열차 운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레일과 와인코리아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홍 과장 : 투자비용 대비 영동군의 수익은 어떤가요?

김 주사보 : 현재 운영하는 와인&인삼트레인은 당장의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동군과 금산군을 알리고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인 셈이죠. 관광객이 영동을 자주 방문하여 영동포도로 만든 와인을 많이 찾는다면 포도생산 농가에 큰 힘이 되니까요. 와인은 영동포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상품입니다.

홍 과장 : 와인트레인의 운행으로 영동이 많이 알려졌겠네요.

김 주사보 : 와인트레인은 영동을 알리는 시발탄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선 입소문 효과를 낳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끌어내게끔 했지요.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만 운행한다면 한 번 들른 고객은 다시 찾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영동군청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영동군의 명물 중 하나인 국악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어요. 영동은 조선시대의 음악가 박연의 고향으로 국악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악기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기 체험 전수관을 연계하여 국악을 보고 듣고 국악기를 만들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했지요.

그러던 차에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2009년 금산군에서 인삼트레인과 연계하자는 제안을 해온 것이죠. 관광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와인트레인은 와인&인삼트레인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금산과 영동이 서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홍 과장 : 와인&인삼트레인의 성공에는 참여 단체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도 한 몫 했겠네요.

김 주사보 : 영동군은 와인트레인을 통해 영동군을 홍보하고, 철도공사는 유휴 열차를 관광열차로 활용하고, 와인코리아는 생산 제품을 관광객을 통해 홍보한다는 서로의 목적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와인&인삼트레인 성공 스토리

영동포도농산업클러스터, 포도산업의 중심에 서다

포도의 고장 충청북도 영동군은 4,600여 농가가 2,400ha에서 연간 4만여 톤의 포도를 생산한다. 이는 우리나라 포도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수치로 제1의 포도주산지인 것. 외국의 유명한 포도 생산지에 와이너리가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포도만 공급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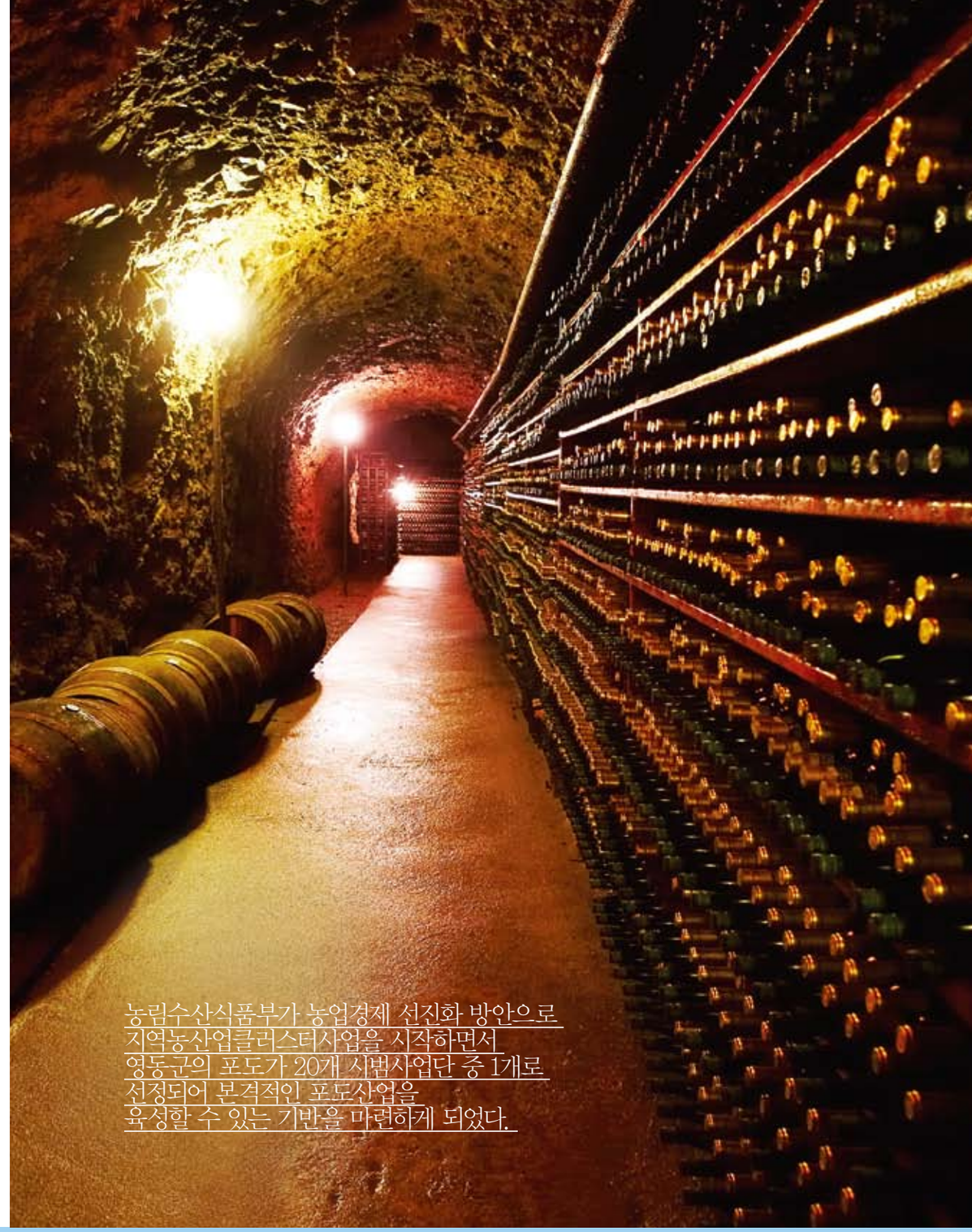
그렇다 보니 공급 과잉 시기에는 제값을 못 받거나 저장을 잘못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애써 재배한 농가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수익을 얻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한·칠레 FTA 체결로 들여온 값싼 칠레산 포도가 또 다른 위협 요소이기도 했다.

이에 영동군의 포도 재배농가는 이러한 위기감을 스스로 극복하기로 한다. 1998년 군내 600여 포도농가가 1차 생산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개선하고 영동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와인코리아(주)를 설립했다. 와인코리아는 2004년 영동군이 선정한 포도산업 육성기업으로 22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경제 선진화 방안으로 지역농산업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하면서 영동군의 포도가 20개 시범사업단 중 1개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포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생산·가공·유통·체험 등을 패키지화함으로써 지역의 활성을 도모하고 농업을 6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영동포도농산업클러스터는 영동군청, 영동대학교, 와인코리아(주), 영동대 벤처식품(주) 등이 주축으로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다.

영동포도, 관광문화 아이콘으로 변신

영동군은 포도 생산과 포도주 가공 등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그 다음 할 일은 전국으로 영동포도와 영동와인을 알리는 일이었다. 영동포도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상품에 자신이 있으니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영동포도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 판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경제 선진화 방안으로
지역농산업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하면서
영동군의 포도가 20개 시범사업단 중 1개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포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클러스터사업단이 구상한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영동포도를 보고 느끼고 맛보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파밸리의 와인투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클러스터사업의 연구과제로 '영동군 테마별 체험관광을 통한 고객 발굴 전략'을 세워 수익성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보였다. 이에 사업단은 매년 개최하는 포도축제 기간에 기차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임시 와인트레인을 운행하였다. 영동 포도축제 현장, 와인코리아 방문, 그리고 난계예술제까지 즐기는 코스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하루 300~500여 명의 관광객이 열차를 이용해 다녀갔고, 지역특산물인 포도와 가공품인 와인을 관광·문화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와인트레인으로 인한 관광객 연간 10만 명 증가

영동군청에서는 임시 열차였던 와인트레인의 성공에 힘입어 2006년 9월 와인열차개발팀(T/F)을 구성하여 와인트레인 상시 운행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비슷한 시점에 한국철도공사와 와인코리아도 와인을 주제로 한 열차관광상품 개발을 고려하던 중 영동군에 와인과 국악을 중심으로 한 와인트레인의 상시 운행을 제안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운행할 유휴차량인 새마을식당차 2량은 와인코리아가 개조비용을 전담하기로 협의하고, 마침내 11월 30일 와인트레인의 시험 운행이 이뤄졌다. 그리고 그해 12월 6일부터 와인트레인의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었다.

기차여행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낭만이 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맛보는 삶은 달걀, 학창시절에 떠난 MT, 열차가 정차하면 부리나케 뛰어가서 먹던 우동 등 누구나 한 가지 추억은 있게 마련이다. 와인트레인은 이러한 추억과 낭만이 맞아떨어진 사업 아이템이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떠난 와인 여행은 막히는 도로를 걱정할 필요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아주 편안한 여정인 것이다.

와인트레인이 인기를 끌면서 객차의 증량이 필요해졌다. 마침 영동포도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시범사업단 중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추가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투자할 자금이 생긴 셈이다.

와인트레인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면서 단순한 와인트레인이 아닌 영동군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7년 3월 '영동철도 연계 관광사업 추진 협의회'도 출범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와인트레인 운행 현황 및 확대 운행' 계획을, 영동군은 '영동역 특화역 조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 계획을, 와인코리아는 '와인테마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영동군과 와인트레인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와인트레인을 운행한 이후 영동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07년 14만 명에서 2008년에는 25만 명으로 급증하는 성과를 냈다. 영동군은 포도관광을 시작으로 국악체험, 과일꽃 팸투어 등 연계 프로그램도 좋은 평가를 거두며 영동군 홍보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와인역과 와인테마공원을 또 다른 특산물로

영동군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4량으로 운행하는 와인&인삼트레인을 6량 이상으로 늘려 영동역으로만 운행하는 전용 열차를 마련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 전용 열차와 함께 와인코리아 앞에 있는 미

▲금산인삼시장의 명물, 금산수삼센터.

특역이라는 폐쇄된 간이역을 전국 최초의 와인역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있다. 미특역은 와인코리아와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와인을 부각시킨 특화된 역으로 개발하여 역 자체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와인코리아 사옥 일대를 와인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테마공원에서 와인 만들기, 포도 따기, 와인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금보다 풍부한 볼거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영동군은 사과, 감, 배와 같은 과일이 풍부한 고장이라 봄여름이면 과실수마다 꽃이 지천으로 만발한다. 이를 활용하여 과일꽃 팸투어도 마련하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는 곶감축제를 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와이너리 100개 농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착굴한 100여 개의 토굴을 와인 저장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인삼, 와인트레인에 합류하다

우리나라 최대의 인삼·약초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인 금산군은 2008년부터 금산인삼열차 운영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 금산인삼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나 금산을 직접 경유하는 철도노선이나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 대부분의 관광객이 인삼시장 방문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순한 인삼시장 방문에서 벗어나

쇼핑, 관광,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인삼을 테마로 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금산군의 목표였다.
금산군의 사업 추진은 타 관광열차 운영사례와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 금산인삼트레인의 운영을 제의했다. 이때 금산인삼트레인을 단독 운행할 경우 처음 관광객 모객이 쉽지 않고, 금산군에 철로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전이나 영동역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그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런 와중에 와인코리아와 한국철도공사가 와인트레인과 공동 운행을 제안한 것이다.
인삼열차에 대한 열의만큼 사업예산 확보는 순조로웠다. 때마침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의 인삼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충남인삼 홍보열차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산군은 인삼 최대 생산지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사업자로 선정되어 충청남도청으로부터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2008년 8월 금산군은 와인트레인과 함께하는 와인&인삼트레인을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2일 금산군과 영동군, 와인코리아는 기존의 와인트레인과 인삼트레인을 공동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명칭을 와인&인삼트레인으로 정하였다.
금산군은 기존에 와인코리아에서 운영하던 2량의 와인열차를 인삼열차로 개조하는 데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3월 9일 열차 개조를 완료했다. 그 외에 체험행사 운영비 1억원, 팸투어 진행 및 홍보물 제작 등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2009년 3월 18일 서울역에서 개통식을 치른 와인&인삼트레인은 2009년 10월 말 현재까지 84회를 운행하며 7,226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특히 금산인삼시장 주민들은 매주 3차례씩 고정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점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처음 인삼트레인이 추가되었을 때 일부 관광객들은 금산에 왜 가는지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금산군은 와인&인삼트레인의 운행 초기부터 인삼을 체험하고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관광객이 금산인삼관을 먼저 찾도록 코스로 지정하여 인삼병 만들기, 향첩 접기 등 체험관 자체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금산군 문화해설사를 초청하여 인삼 고르는 법, 인삼 먹는 법 등을 강의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삼트레인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영동에서 와인투어를 마친 뒤 금산 관광을 택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금산군은 금산인삼관과 인삼시장 외에 인삼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삼 관련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 2012~2013년에 현재 금산인삼관 옆에 인삼체험관을 준공할 예정으로 인삼족욕장, 홍삼팩, 인삼 캐기, 팜스테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Region

mini interview

와인 왕국 나파밸리의 꿈을 영동에서 이루었죠

윤병태 50세 · 와인코리아(주) 대표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파벨리는 영동군만 한 지역인데 온통 포도밭으로 덮여 있습니다. 나파밸리에서는 와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와인트레인과 헬기투어가 있어요. 그곳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그 같은 와인팜 투어를 진행해 도시 사람들에게 포도와 와인을 즐기게 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와인&인삼트레인의 숨은 주역인 와인코리아(주)의 윤병태 대표는 나파밸리를 여행하며 그렸던 꿈을 영동에서 이루었다고 한다. 윤 대표는 KTX가 운행되면서 새마을호 식당객차의 가치가 떨어져 방치되는 것을 보고 2006년 이를 활용해 와인열차로 활용하겠다는 기획서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상태였다. 영동포도축제에서 와인열차를 이용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와인코리아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와 손을 잡으면서 지금의 와인&인삼트레인에 이르게 되었다. 영동군과 한국철도공사, 와인코리아의 협약 조건은 상생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기차 여행의 낭만과 분위기 있는 와인바에서 즐기는 와인, 그런 여행은 꿈이지요. 처음에는 식당객차 2량을 와인바처럼 꾸몄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영동군의 지원으로 객차를 4량으로 늘렸습니다."
윤 대표는 와인&인삼트레인은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둔 히트 아이템이라고 소개한다. 우선 영동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관광객이 늘면서 영동포도가 유명해져 지역농산물 판매에도 큰 효과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또한 방문객이 많아진 만큼 와인코리아의 이미지도 상승하고 더불어 매출이 증가했으니 더없이 좋을 뿐이다.
"와인 매출이 2006년 12억~13억원 정도였는데, 2008년에는 72억원, 올해는 100억원의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성장한 셈이지요. 다른 지역은 FTA 때문에 과일나무를 뽑아낸다는데, 영동지역의 농가 비율이 줄지 않는 것도 이 같은 홍보 덕분이겠지요." 윤 대표는 앞으로 와인코리아 일대를 와인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해 겨울에는 앙상한 포도밭을 은하수 전구로 장식하고, 여름에는 포도나무를 높게 키워 와인산림욕장으로 조성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1 와인트레인 운행 실적

연도	월	이용객 수(명)	매출액(백만원)	비고(운영 횟수)
계	–	18,480	1,532	198회
2006	12월	480	32	8회
2007	1월~12월	8,750	660	96회
2008	1월~12월	9,250	840	94회

표2 와인&인삼트레인 투어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08:40	– 서울역 집결 및 와인열차 탑승	서울역 2층 여행센터
09:02~11:30	– 열차 내 행사 • 와인 무료 테이스팅 •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 와인 강의	09:02 서울역 출발
11:30 ~ 11:50	– 영동역 도착 와인코리아 이동	버스 이동
11:50 ~ 13:00	– 중식	와인코리아 가든
13:00 ~ 15:00	– 와인 족욕 체험 –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 와인코리아 공장 견학	A/B조 로테이션
15:00 ~ 15:30	– 금산 이동	
15:30 ~ 17:00	– 인삼전시관 및 약초재래시장 방문	
17:00 ~ 17:30	– 영동역 이동 및 와인열차 탑승	17:48 영동역 출발
17:48 ~ 20:17	– 서울 이동	음악감상 및 휴식
20:17	– 귀가	
정차역 안내	**하행**: 서울 새마을호 4219열차 출발(영등포 09:13, 수원 09:34, 천안 10:06, 대전 10:58) **상행**: 영동 새마을호 4220열차 출발(대전18:22, 천안 19:05, 수원19:39, 영등포 20:04)	

Key ponit 4

와인&인삼트레인 사업의 성공 요인

영동포도농산업클러스터, 1차–2차–3차 산업으로 발전

와인트레인은 영동군의 포도 홍보 및 포도클러스터사업과 취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핵심이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2차 가공산업을 육성한 뒤 마지막으로 3차인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에서 제안한 와인트레인을 지원한 것이다. 이로써 와인과 포도, 영동의 대표적인 문화인 국악을 알리는 효과를 낳았다.

와인산업을 키우는 장기적 전략이 농가수익 증대

와인트레인은 영동포도, 2차 산업인 영동 와인의 매출 증대가 장기적으로 포도 재배농가의 안정적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투자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윈윈 전략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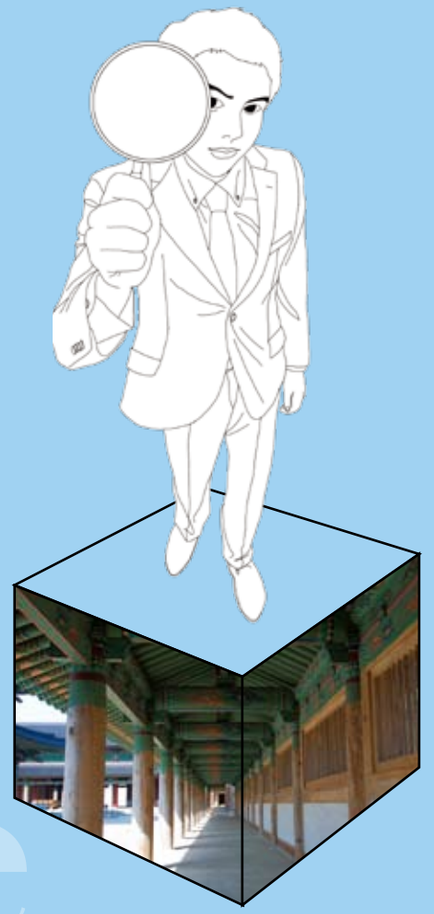
와인트레인의 성공에는 상호 상생하자는 윈윈 전략이 있었다. 와인코리아는 와인의 홍보와 매출 증대가 목적이었고, 한국철도공사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인한 이익 창출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영동군은 포도가공업의 육성과 그로 인한 포도매수량 증가가 목적으로, 와인트레인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아이템인 셈이다.

금산, 기존 프로그램 활용해 예산 절약

금산군은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했다. 문화공보관광과로부터 관광안내 가이드 지원을 받고, 금산군 문화해설사를 초청하여 인삼 강의를 마련하고, 금산인삼관에서 시행하는 향첩 접기와 인삼병 만들기 프로그램을 관광 일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택한 것 등이 그 예다.

동방문화의 찬란한 빛 백제문화, 1300년의 세월을 넘어 세계로 나아간다

백제문화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향토축제로 옛 백제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55년 부여에서 향토축제로 시작하여 1966년부터는 공주에서도 개최되었고, 1979년부터 공주와 부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윤번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범세계적인 문화제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해 2007년 제53회 백제문화제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그해 성공적인 공동개최로 126만 명의 관광객이 백제문화제를 찾았고 경제수익도 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통합 2년째인 2008년에는 153만 명의 관광객과 68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이제 또다시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700년 역사를 지닌 대백제의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있다.



culture&welfare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

홍 과장, 안 계장 만나다!

안병수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총괄 담당

홍 과장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안 계장 : 먼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패망의 역사'로 1300여 년 동안 잊힌 백제 문화의 부활을 위해 2006년부터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를 논의하면서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합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이를 통해 2007년부터 공주와 부여가 백제문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죠. 위원회는 백제문화제의 모든 업무를 맡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사무처 총괄과의 총괄담당으로 조직과 예산회계, 기금관리, 종합상황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 과장 : 백제문화제는 언제부터 열린 축제인가요?

안 계장 : 1955년 부여에서 지역 유지들이 백제대제를 거행한 것이 기원입니다. 처음에는 부여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다가 1966년부터 부여와 공주에서 각각 개최했어요. 그 후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공주와 부여가 번갈아가면서 윤번제로 개최했고요. 그러다 2007년부터 백제문화제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주와 부여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겁니다.

홍 과장 : 삼국시대의 역사에서 백제가 조금 과소평가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계장 : 백제 하면 많은 분들이 삼천궁녀와 낙화암 등 백제의 패망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백제는 '동방문화의 찬란한 빛'이 되었던 위대한 문화를 지닌 고대국가입니다. 중국 등 외래 문물을 적극 수용한 교류왕국인 동시에 해상왕국이었고, 일본의 아스카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백제문화권이 신라문화권에 비해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중앙의 지원도 미비했고 우리 스스로도 백제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드디어 백제문화의 부활을 기대하며 공동 개최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홍 과장 : 공주와 부여가 공동으로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안 계장 : 힘든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공주시와 부여군의 의견 조율을 맡았습니다. 더 잘하겠다는 생각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차지하려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충청남도와 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공주나 부여 지방의 특색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비교해 서로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부여는 제례와 전통을 중시하는 클래식한 면이 있는 반면, 공주는 조금 화려하고 모던한 성격을 지녀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안배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홍 과장 : 얼마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축제상인 '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에서 백제문화제가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안 계장 : 네. 피너클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가 축제문화 발전을 위해 1987년 제정한 상입니다. 'Best TV Promotion'과 'Best Web site' 부문에서 백제문화제의 방송 스폿과 홈페이지로 금상을 받고, 'Best Promotional Poster' 부문에서 웅장한 기마군단 행렬을 연출한 포스터로 동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2010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개최 예정이었던 '제55회 백제문화제'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수상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신종플루로 인해 올해 '제55회 백제문화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백제문화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 내년에 '2010 세계대백제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계시죠?

안 계장 : 199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개관과 함께 '2010 세계대백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백제의 영광을 재현하고 백제문화의 현대적인 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될 겁니다. 총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적인 행사가 될 텐데요. 축제는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700년 대백제의 꿈'을 주제로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볼거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백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주와 부여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지역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 성공 스토리

1,300년 만에 부활한 백제의 혼

백제문화제는 1955년 부여 지역 유지들에 의해 '백제대제'를 거행한 것이 기원이다. 그로부터 1965년까지 도입 단계에는 부여가 단독으로 개최했는데, 순수한 민간 주도의 행사로 삼충제, 궁녀제, 별신굿 등을 선보이고 민속놀이 등을 펼치는 종합문화예술제의 성격을 띤 소박한 지역행사였다.

그 후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공주와 부여가 동시에 각각 개최하는 정착 단계에는 점차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행사로 변모했다. 공주와 부여가 동시에 개최함에 따라 명칭도 '백제대제'에서 '백제문화제'로 바뀌었다. 이때는 부수적인 문화행사가 늘어났고, 1973년 백제문화제 활성화대책이 수립되면서 1975년부터 4년간 대전까지 확대 개최되기도 했다.

1979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발전 단계에는 공주와 부여가 윤번제로 실시하였다. 홀수 해에는 공주에서, 짝수 해에는 부여에서 대제(大祭)와 소제(小祭)의 개념으로 번갈아 개최한 것. 격년제 시행은 좀더 많은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행사의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다.

백제문화제는 50여 년이 넘는 역사 속에 경주의 '신라문화제' 및 진주의 '개천예술제'와 더불어 전국 3대 문화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 축제의 목적은 옛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통과 위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면서도 두 지역의 행사 내용이 대동소이해 차별화된 특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 참여와 문화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발전 방안의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개최 50여 년이 지나면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문화제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은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개최해온 백제문화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두 지역에서 매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과 문화단체 등을 포괄하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자생력을 확보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백제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 역사성을 되살려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더 넓은 발전 방향도 정하였다.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서북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서남부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제문화제가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완공 예정인 백제역사재현단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문화축제

2006년 7월 백제문화제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백제문화제를 동시 개최하고 민간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방안이 모색되었다. 2006년 12월 충남 문화관광국장과 공주부시장, 부여부군수가 함께 모여 백제문화제 동시 개최를 위한 합의 문안을 협의하고, 2007년 1월 제53회 백제문화제를 동시 개최하기로 충청남도지사와 공주시장, 부여군수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주시와 부여군이 주도하고 도가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조직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충남도는 조직위가 정상으로 운영될 때까지 연차별 예산을 출연하고, 공주시와 부여군은 조직위가 자력으로 운영될 때까지 연도별 일정 금액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2010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2011년부터는 민간재단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백제문화제를 위

▲2008년 제54회 백제문화제 행사 장면

해 도는 매년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분담하고, 공주시와 부여군도 매년 자체 사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각각 일정 금액을 분담하게 된다.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이다. 2007년 3월 충청남도의 백제권개발팀과 공주시의 관광축제팀, 부여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여 재단법인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조직으로 700년 역사의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특히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적 운영계획을 통해 백제문화제를 대한민국의 명품 축제로 육성하며, 특히 '2010 대백제전'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백제문화를 알리는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무처 산하 총괄과와 기획운영과, 예술감독, 홍보사업과, 대백제전기획처 산하 대백제전과, 프로그램개발과, 영상사업과 등 2처 7과가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7년부터 공주와 부여가 함께 개최하는 백제문화제의 기본 구상은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것. 세계적인 카니발형 축제로 백제의 화려하고 우수한 역사·문화의 독창성을 재현하고, 한·중·일과 동남아 등 고대국가 문화권과의 상호교류를 시도하며, 즐거움이 함께하는 에듀페스티벌로 만들

백제등불제, 신명의 거리 운영 등 다양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살려 관광객들이 하룻밤 이상 머물도록 한 것도 관광객 유치와 숙박업소 등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어 청소년에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가족형 관광 패턴에 따라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는 통합 상생과 자율참여형 축제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점차 전 도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해외 민간축제와 교류협력 증진으로 선진기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 번째로는 지역개발 및 수익형 문화축제로 육성하여 한국의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장래 민간단체 주도에 대비한 수익형 문화제로 점차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을 통한 도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협과 시·군이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확대를 계획했다. 또한 재래시장 지역을 활용한 유명 음식 및 전통 거리를 조성하고 백제향, 황포돛배, 부교 등 시설물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 점차 수익형 문화제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친 결과 2008년 54회 백제문화제에서는 약 11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700년 대백제의 꿈은 이루어진다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53회 백제문화제가 개최되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두 지역의 첫 통합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사업비 40억원(도비 20억원, 공주·부여 각각 10억원)을 들인 첫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는 역사 속에 묻힌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각시키고 화합과 상생 축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문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하며 개선해나갔다. 프로그램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 특히 퍼레이드와 황산벌전투, 백제향 등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백제등불제, 신명의 거리 운영 등 다양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살려 관광객들이 하룻밤 이상 머물도록 한 것도 관광객 유치와 숙박업소 등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년과 달리 다양한 해외공연단 초청공연을 기획한 것은 백제문화제가 세계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국제 자매결연단체 공연단 및 브라질의 삼바, 중국 하남성의 기예단 등 해외 8개국 13팀의 이색적인 공연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주시와 부여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한몫을 담당했다. 백제인의 기상과 저력을 널리 알리는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를 위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백제문화제를 널리 알리는 홍보, 국

내외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백제문화제 홍보관을 운영하여 백제문화제를 알리고 신문, 방송, 잡지,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이들이 백제문화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관람객 126만 명, 외국인 방문객 10만여 명, 경제수익 353억원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2008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2007년 40억이던 예산은 2008년에는 80억(도비 40억원, 공주·부여 각각 20억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 통합개최의 토대 위에 황산벌전투 재현이나 웅진성 퍼레이드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강, 백마강 부교건너기 등 참신한 아디이어를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화제의 원년으로 삼아 일부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여 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008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관람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전년 대비 22% 급증한 153만 명이 백제문화제를 찾았고, 지역경제 효과도 680억원(간접 및 행사예산 100억원, 외부인 소비액 58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2010 세계대백제전'은 2010년 9월 17일부터 한 달간 공주의 고마나루와 공산성,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와 낙화암 일원에서 '700년 대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릴 계획이다.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를 금강이라는 소통과 번영의 물길로 연결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상의 축제'를 선보일 예정. 또한 소실된 백제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백제유물유적 복원전'과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국들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 체험하는 '세계역사도시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문화재급 백제유물 150여 점을 전시하는 '백제유물 특별기획전' 등을 함께 선보인다. 이 밖에도 충남의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제례, 불전, 민속, 퍼레이드 등 전통 민속공연과 서울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와 전남 영암군의 왕인축제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백제문화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세계역사도시연맹 20개 회원도시와 백제교류국 등이 참여하는 해외공연 등도 마련된다.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 지역의 백제역사재현단지 활성화, 역사유적지 정비, 세계문화유산등록 등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되찾으면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축제로,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Region

mini interview

백제문화의 저력 느낄 수 있는 문화축제

인세미 43세 · 문화관광해설사

"2007년부터 부여군과 공주시가 백제문화제를 함께 열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축제의 규모도 커지고 볼거리도 늘어났습니다. 그전까지는 규모가 작아 마을사람들의 잔치같이 소박하다고 생각했는데 2007년 백제문화제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백마강 둔치에서 열리는 행사를 아이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백제문화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부이자 충청남도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인세미 씨. 5년째 백제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세미 씨는 공주시와 부여군의 공동개최 후 백제문화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문화제의 규모가 커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졌다고. 기마행렬 같은 행사는 화려하고 웅장한 스케일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 또한 백제의상 입어보기와 탁본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도 마음에 든단다.

"처음에 백제문화제를 공동개최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이 공주로만 몰리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공주와 부여를 연계해서 둘러보도록 코스를 마련하여 두 곳을 모두 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인세미 씨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였다. 주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거리 행렬이 있을 때는 먹을거리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와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이 남자들의 출입을 금한 채 전통 방식으로 궁녀제를 지내는 장엄한 모습을 보고 백제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축제장 어느 곳에나 등장하는 팔도유람식 장터 풍경. 제례를 비롯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에서 떠들썩한 음악소리가 들리면 축제에 몰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공주와 부여 주민들이 힘을 합쳐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처럼만 문화제에 애정을 쏟는다면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다.

표1 백제문화제 공동개최 추진 경과

2006.07.4	충청남도지사, 백제문화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전 국민의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지시
2006.09.21	백제문화제를 전국 규모의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제화 추진계획 수립
2006.10.16	'대백제전(가칭)'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01~2010년)에 반영
2006.11.01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 '적정' 의견 결정
	백제문화제 국제화팀 설치(충청남도 문화예술과)
2004.11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배치 외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2006.12.28	백제문화제 관계관·실무회의를 통해 행사주체 등 실무 합의
2007.01.10	백제문화제 동시개최 합의(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합의)
2007.01.25~26	1차 백제문화제 주민설명회 개최(공주·부여)
2007.02.2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공포
2007.02.21	백제문화제 재단법인 발기인대회 개최
2007.02.27	백제문화제 제1차 이사회 개회
2007.03.23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허가
2007.04.11	재단법인 현판식
2007.05.08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
2007.05.23	기본계획 신규 프로그램 공모
2007.07.23~30	제2차 백제문화제 주민설명회 개최(공주·부여)
2007.07.31	백제문화제 자문위원 위촉
2007.09.10	백제문화제 초청장 발송
2007.10.05	백제문화제 자원봉사자 다짐대회 개최
2007.10.09	집행위원 및 자문위원 현장설명회 실시(공주·부여의 전 행사장)
2007.10.11~15	제53회 백제문화제 공동개최

표2 백제문화제 예산 변화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예산			
	총합	도비	공주시비	부여군비
2007	40	20	10	10
2008	80	40	20	20
2009	100	50	25	25
2010	240	120	60	60

key point 3

백제문화제 공동개최 성공 요인

공동개최의 필요성 공감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이 함께 기존의 백제문화제가 백제인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알리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동개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이 재단법인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좀더 짜임새 있는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관 주도였던 문화제에서 민간 주도로 이행이 가능하게 되어 좀더 수준 높은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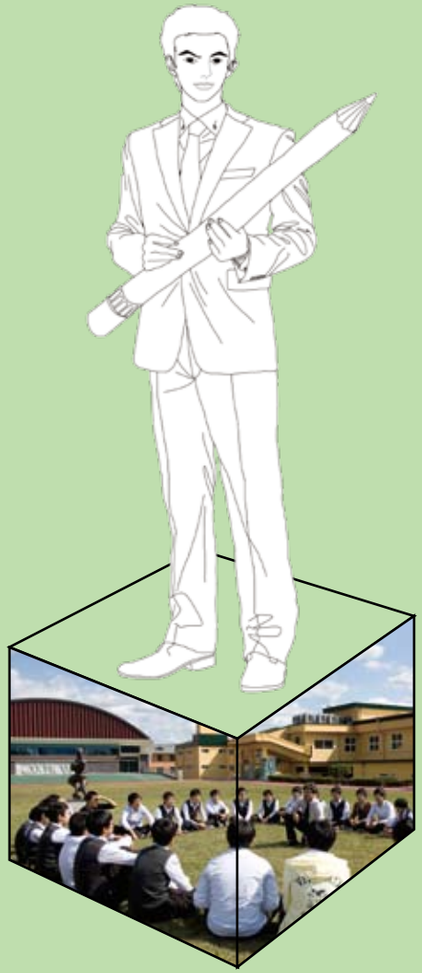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공주시와 부여군의 주민들과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백제문화제 공동개최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지역주민과 기관 등에서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통통제 등에 적극 협조를 해주었다. 연일 평균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교통체증과 거리질서 혼잡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안내봉사 등으로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축제가 진행될 수 있었다.

꿈 이 있 고 살 고 싶 은 지 역 창 조

촌동네 거창, 서울에서 유학 오고픈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다!

매년 졸업생의 75% 이상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
그중 서울대와 연·고대 수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40%.
거창의 명문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2개 학교의 대학 진학률이니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서 매년 700여 명의 학생이 거창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오고 있다.
거창군은 지역경제발전과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적 강점을 특화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준보조율을 지방세의 3%에서 15%로 대폭 인상하는 결단도 내렸다.
'교육 명품화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려는 의지의 시작이었다.



education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최 계장 만나다!

최인식 · 군청 교육지원담당

홍 과장: 거창군이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 계장: 교육도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인 고(故) 전영창 목사의 건학이념과 거창대성고등학교 고(故) 양재원 이사장의 육영사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헌신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전영창 목사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전인교육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1953년 거창읍에 직접 교사를 지어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인재육성을 교육의 기본 목표로 하고 학생들에게 지식교육에 앞서 신앙교육과 정서교육을 앞세우며, 이를 사전에 통보해 거부하는 학생은 아예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을 만큼 의지가 강하셨지요. 그런 노력과 의지, 군 행정의 뒷받침이 지금의 거창을 교육도시로 만든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과장: 그렇다면 군 행정의 뒷받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 계장: 가장 큰 부분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교육부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어요. 기준 보조율을 지방세의 3%에서 15%로 대폭 인상한 것이 그 내용이죠. 이는 전국에서 최초이자 학생수 대비 경남지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홍 과장: 거창군이 교육도시로 육성된 계기가 있습니까?

최 계장: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증가에 목표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매년 1,000명 내외로 인구가 감소하여 왔으니까요.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막아야겠기에,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시책이 마련되었고 교육사업이 그 일환으로 연구되었던 겁니다. 젊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여건이 좀더 나은 곳으로 떠나고 있는데, 거창군이 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타 도시로 이탈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군으로 유입될 것이라 판단했던 거죠.

홍 과장: 교육도시로서 육성한 계기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더 큰 실효성을 위해 교육부문보다 좀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 계장: 물론입니다. 매년 700여 명의 학생들이 거창 군내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창으로 오고 있어요. 부모까지 모두 오게 하려면 이들이 먹고살 수 있는 삶의 터전도 마련해줘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군은 기업유치에도 적극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사업이 있는데 바로 승강기사업 밸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2010년 3월엔 승강기대학이 문을 열고, 승강기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강기는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기대가 큽니다.

홍 과장: 승강기산업에 대해 좀더 알고 싶습니다.

최 계장: 전문 기술인력 육성과 창업·취업 지원을 담당할 승강기대학은 기존 한국폴리텍Ⅶ대학의 거창 캠퍼스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2010년 승강기보수과 등 4개 학과 220명의 학생으로 개교할 예정이에요. 대학 설립을 위해 노동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경상남도·거창군 간 MOU를 체결했고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도 MOU를 체결해 학교법인 설립허가 절차를 매듭지었죠.
5개년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승강기부품산업단지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대학, R&D센터의 협력 네크워크를 갖춘 명실상부한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겁니다. 거창군은 현재 전담 부서인 '승강기산업담당'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거창 교육의 강점이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지요.

최 계장: 그럼요. 거창 고등학교의 강점이 알려지면서 타 지역에서 매년 700여 명의 학생이 거창으로 유학을 오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말 약 63,300명인 인구수가 전년 대비 2009년 10월 현재까지 41명밖에 감소하지 않았고요. 이렇듯 최근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낮아진 이유를 우리 군이 교육부문에 강점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홍 과장: 외지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겠군요.

최 계장: 물론이죠. 거주지를 아예 거창으로 옮기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학생들만 유학을 온 경우도 그렇죠.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쓰는 돈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니까요. 또 아이들을 보러 가족들이 한 번씩은 올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와서 쓰는 돈 역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거창에는 고등학교 주변의 치킨집과 피자집이 장사가 엄청 잘 된답니다.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 밤에 공부하다가 출출할 때 그렇게 많이 시켜먹는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육특구 사업 성공 스토리

매년 700여 명의 학생이 거창 군내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창으로 이주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까지 모두 오게끔 하려면 이들에게 삶의 터전도 마련해줘야 하므로 거창군에서는 기업 유치에도 적극 힘을 쏟고 있다.

줄어드는 이탈 인구 막기 위해 '교육 강점' 활성화

거창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강점인 교육환경을 특화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의 10개 군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초중고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64,000여 명 가운데 약 17%가 학생으로 중학생 대비 고등학생이 20% 많은 '고등학교 교육의 강점'을 지닌 고장이다. 명문으로 알려진 거창고와 대성고의 경우 매년 졸업생의 40% 이상이 서울대와 연·고대 수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전체 졸업생의 75% 이상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거창군 지역을 교육도시로 육성하게 된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인구 유입에 있다. 거창군의 총인구는 1965년 140,844명을 최대 정점으로 해마다 수천여 명씩 감소했는데, 2000년 70,00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 이후 매년 1,000명 내외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때문에 군에서는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고 그 일환으로 교육특구로서 육성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좀더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떠나는 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어 타 도시로 이탈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창군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2008년에는 710여 명 감소한 약 63,300명의 인구중에서 2009년에는 10월 현재까지 41명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최근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거창군이 교육부문에 강점을 지닌 덕에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이다.

거창군이 교육특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 지식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 지역을 공모하면서다. 이때 거창군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비교우위 요소이자 강점인 교육환경을 활용해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순을 밟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1항, 2항의 규정에 근거), 2005년 12월 마침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거창군이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되었다.

▲원어민 교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창대성고등학교 학생들

이를 근거로 거창군은 수준 높은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행정안전부에 '교육'을 '농촌 신(新)활력 대상사업'으로 공모 신청해 선정되었으며, 2005년부터 6개년 연차계획으로 국비 62억4,000만원, 군비38억원의 재원을 마련, 교육 명품화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물꼬를 텄다.

교육특구에 대한 거창군의 강한 의지는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거창군은 교육부문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기준보조율을 지방세의 3%에서 15%로 대폭 인상한 것이 그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거창군의 교육 관련 예산은 연간 80억원 이상으로 학생수 대비 경남지역에서는 최대 액수다. 한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도 개정했는데, 이는 초·중·고교의 요금을 50% 감면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통적인 교육도시 강점 살린 집중 투자

거창은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 형태로 선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매년 2억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받는다. 거창군의 평생학습도시사업은 그 후로도 꾸준히 이어져 현재 12개 사업에 1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거창군 교육특구의 또 다른 비교우위 요소는 자율학교 지정과 우수한 대학 진학률이다. 자율학교 지정은 2004년 당시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거창에서는 학교의 자율 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서로 잘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거창군 내 7개 고등학교 중 3개 고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는데, 세 학교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경상남도 교육청에 자율학교 지정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 거창고와 대성고는 2004년에, 거창여고는 2006년에 지정되었다. 현재 거창고의 80%, 대성고의 50%가 타 지역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거창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것도 비교우위 요소 중 하나다.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 지역 공모에 선정된 외국어교육특구사업은 전 초·중·고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 지원(24명, 10억원)하고, 청소년(고교생) 국제화 교류사업을 지원(7개교, 1억2,000만원)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동·하계 2회, 6,000만원), 영어경시대회 개최 및 해외어학연수 지원(1억6,000만원), 방과 후 영어종합페스티벌 운영(10개교, 1억2,000만원), 군민 및 공무원 등 생활영어 강좌 운영(국제어학원 1억원),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영어스피킹 시범학교 운영(3억원), 국제화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발(4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에는 대구의 미국인 학교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거창군 초·중학생과 상호교류를 하고 있다.

거창에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군청의 주도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설된 장학재단은 당초 10년 만인 2015년 12월까지 장학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삼았는데 군민과 출향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9월 11월 100억원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 덜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까지

거창은 2007년 1월 서울대학 사범대와 교육협력(MOU)을 체결하고 중학생 150명과 서울대생 15명을 연결하여 사이버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멘토링은 서울대학 사범대생이 사이버센터를 통해 거창군 중학생들의 학습지도와 학교생활 및 진학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생과 정보교류를 통해 사전 정보 수집 및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직접 대면하여 학습지도를 받게끔 하고 있다.

또한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 5학년~중등 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매일 1:1 원어민 전화 통화를 실시하는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야간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수 농축수산물을 이용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및 수급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시범센터를 설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오는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그해 12월까지 완공 예정인 거창군 거창읍 일원에 문을 열 학교급식지원 시범센터는 저온저장고, 작업장, 전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10억원, 도교육청 2억원, 군비 5억원으로 총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유입 위해 미래형 산업 유치에 주력

거창군 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켜 더욱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서울에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도 추진하였다. 이는 2012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연건평 2,70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관리실, 독서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시설을 갖춘 원룸식 기숙사를 짓는 사업이다. 부지매입비 70억원, 건립비 3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거창은 교육부문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여전히 감소 추세다. 그 자구책으로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승강기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승강기산업은 세계시장 규모 30조원, 아시아 시장 18조원, 국내 시장 규모는 2조원으로 수출 성장률이 5년 평균 19.5%에 달할 만큼 기대 분야다. 따라서 거창에 승강기 밸리를 조성하여 승강기 연구·지식기반을 갖추기 위한 승강기대학과 승강기 R&D센터 및 종합시험동 등을 건립하고, 이와 함께 남상면 월평리 일대에 1,155,000㎡ 규모의 승강기산업부품 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Region

mini interview

공부 잘하는 아들이 직접 선택한 거창대성고등학교

김효진 50세 · 거창대성고등학교 학부형

"큰아이를 대학에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는데다 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만큼은 스스로 학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서울 도봉동에 사는 김효진 씨는 큰아들의 교육 뒷바라지로 한번 홍역을 겪은 터라 둘째 아들만큼은 적어도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 진학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 그래서 학구열이 높으면서 좀더 좋은 여건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알아보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인터넷은 물론 주변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보고, 몇몇 곳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보기도 했지요. 단순히 좋은 대학 진학이 목표였다면 오히려 학교 선택이 쉬웠을 수도 있지만, 아이를 위한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 더욱 신중해지더라고요."

마침 거창대성고등학교에 아들을 보낸 친구가 있어서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학 진학률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거창군 자체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교육 전반에 대한 마인드와 이해도가 높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많다는 사실은 그제야 알게 된 내용이다. 또한 모든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없다는 점도 좋았다. 도시와 지방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도시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했다. 그런데 문제는 집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데 있었다.

"아이가 선뜻 거창대성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창이라는 지역 환경이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또 지방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 지역 특유의 문화와 성품을 배워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어차피 집 떠나 공부할 거라면 가까우나 머나 집에 오는 횟수는 똑같다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온 가족이 지원이를 만나러 거창에 내려간 김에 2박3일 동안 거창과 거제도, 통영 일대를 돌며 가족 여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표1 거창군 교육도시 지원사업 연도별 내역

2003. 09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2005. 10 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07 거창군 평생학습 조례 제정
2004. 10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07(7억3,000만원) : 면 단위 초·중·고 무상급식(19개 교)
- 2008(7억8,300만원) : 전 초등학교 및 면 단위 고교 무상급식(24개 교)
- 2009(17억1,100만원) : 전 초·중학교 및 면 단위 고교 무상급식(28개 교)
- 2010(30억원) : 전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현(34개 교)

2005. 12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2005. 12 거창군 장학재단 설립
2007. 01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MOU 체결
2007. 05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초·중·고 요금 50% 감면)
2007. 08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보조기준액 지방세 3→15% 대폭 인상)
2008. 04 대구 미국인학교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2009. 09 교육도시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시행
2010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계획)

표2 2009년 거창군 주요 교육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계	8,246
초·중·고 육성지원	500
농어촌 우수고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00
초·중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 우수식품비 지원	1,711
원어민 강사 지원	1,000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사업(9개 단위 사업)	1,360
면 단위 학생 방과후 야간 통학버스 지원	80
초·중학생 사이버 스쿨 운영	60
초·중·고 우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
거창군 장학회 지원	2,200
지역대학 육성지원(4개 단위 사업)	1,010
공공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	110

key point 3

교육특구 사업의 성공 요인

교육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

거창군의 교육특구 지정 및 교육 특화사업의 성공에는
인재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지녔던 사학설립자의 건학이념과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노고, 군민들의 높은 학구열과 교육도시라는
자부심이 어우러져 정서적인 공감대를 이룬 덕분이다.
이런 까닭에 교육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타 시·군보다 강했던 것이다.

교육사업의 주무 관청인 거창교육청과 원활한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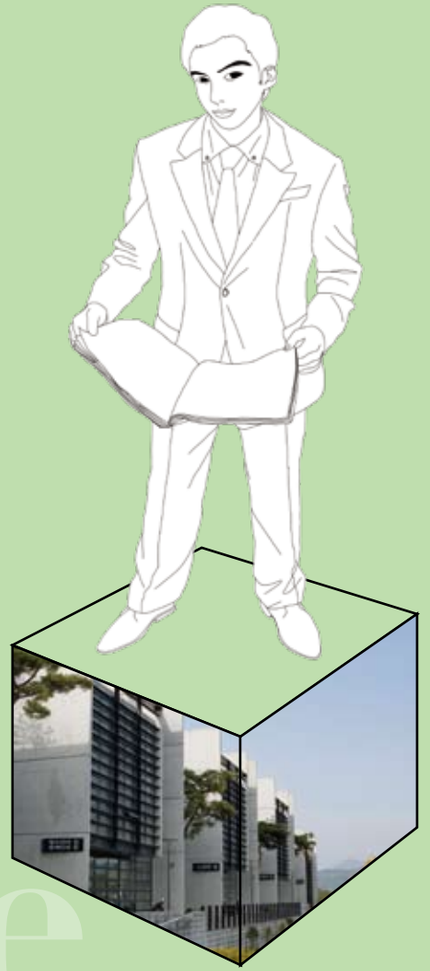
교육에 대한 거창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다 보니
산업체와 학교가 연합해서 상호 지원, 연구하는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는 상황이었다. 신규 시책 등을 정할 때는 군청과 교육청,
각급 학교의 간담회를 열어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덕분에 특별한 반대가 없었던 터라 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창군청과 거창교육청은
긍정적인 협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교육 전담부서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꾀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농촌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
초·중·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무상급식 확대 지원,
급식센터 신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온 군민이 함께하는 사랑방 '다락원'에서 가족애도 새록새록~ 금산과 사랑에 빠지다

지금껏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은 담당 부처의 편의에 의해 분산되어 건립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 충청남도 금산군의 '다락원'은 문화, 예술, 복지, 교육, 체육 등이 한자리에 통합된 '다목적 군민회관'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즐기며 배우는 21세기형 멀티플 문화센터 공간이다. 다락원은 7개 중앙부처의 12개 단위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대규모 시설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격조 있는 대단위 주민문화단지를 형성하였다. 덕분에 금산 주민들은 가족, 이웃들과 함께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삶의 만족도와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culture & welfare

홍 과장, 전 주사 만나다!

전혜철 · 금산 다락원 총무담당

홍 과장: 금산 다락원이 어떤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전 주사: 다락원(多樂苑)은 글자 그대로 함께 배우고, 즐기고, 기쁨을 공유하는 풍유 공간을 뜻합니다. 복합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로 생명의집(문예회관), 건강의집(보건소), 만남의집(관리동), 문화의집(문화원), 스포츠센터, 장애인청소년의집, 노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청산회관, 청산아트홀, 충효예광장 등 각 분야별 시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현재 다락원은 총무담당, 공연기획담당, 복지담당, 도서관팀 등 4개의 부서로 나누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홍 과장: 여러 시설을 한곳에 모아 건립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요?

전 주사: 우리 군은 산촌이라 타 자치단체에 비해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여 각종 공연이나 행사 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금산군의 취지하에 7개 중앙부처의 12개 단위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대규모 시설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어요. 7개 중앙부처의 예산이 각 실과로 보조되었으나 과감하게 1개 과인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발주하여 일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설계와 시공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운영과 관리에도 많은 효율성이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훨씬 편리하고요.

홍 과장: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대규모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일이라 어려움도 많았을 듯한데요.

전 주사: 워낙 대규모 사업이라 먼저 실질적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했습니다. 이 팀원들이 적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사업을 실시하기 전 면밀한 조사와 검토, 다각도 의견수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갔습니다. 물론 편입토지 소유주의 보상 문제나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등 어려움이 많았죠.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출장을 수십 번 가서 설득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토지 소유주도 수시로 만나 우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한꺼번에 개관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개관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홍 과장: 지역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전 주사: 문화복지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우리 다락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휴관을 하는 공휴일에도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문화공연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관람하러 올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이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홍 과장: 다양한 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으니 이용하는 데 편리할 것 같네요.

전 주사: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는 편이 이용에 훨씬 편리합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각자 취향에 맞게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또 노인의집과 장애인청소년의집, 보건소가 함께 있어 노약자들도 이용하기 편리하죠. 장애우나 소외 계층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례로 스포츠센터의 경우 요일을 정해 장애우들이 재활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라면 워낙 대규모 시설이라 다양한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홍 과장: 현재 공사중인 시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전 주사: 기존에 있던 청산회관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원래 2층 건물로 회의장, 공연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박물관과 열람실, 세미나실, 소공연장, 전문 전시공간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말 준공예정인데 이로써 다락원이 온전한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홍 과장: 시설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예산이 만만치 않았을 듯합니다.

전 주사: 1년 예산이 37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락원 사업 성공 스토리

문화의 불모지 금산에 탄생한 랜드마크

21세기는 문화예술, 복지를 중시하는 풍요로운 삶의 시기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금산의 다락원 사업이다. 지난 1998년 당시 문화, 체육, 보건, 복지 등의 불모지였던 금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존의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하여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세우자는 데 뜻을 모아 복합다기능 시설의 타운화·랜드마크화를 계획하게 되었다.

예산은 1998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체육진흥공단과 마사회 보조금까지 지원받아 국비 110억원, 도비 19억원, 군비 181억원 등 총 3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표1).

이 사업은 2000년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통합 발주하여 추진해나갔다. 원래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부처의 예산이 각 실과로 보조되었지만 과감하게 1개 과(문화공보관광과)에서 발주하여 사업을 진척시켰다. 효율성을 위해 7개 부처의 12개 단위 사업을 하나로 통일하여 진행한 것이다.

관련 부서의 핵심 인물만 모은 테스크포스팀

2000년 1월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기간을 정하고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목적군민회관 건립 관련 부서의 과장과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 등 총 9명을 뽑아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한 것. 다양한 부서의 업무 처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부군수를 팀장으로 총괄, 예산, 건축, 재무회계, 복지, 농지 및 산림, 농업기술, 건설도시의 영역으로 인력을 배치했다. 테스크포스팀에서는 다목적 군민회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토목, 건축 등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기타 기술적·법률적·행정적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테스크포스팀 운영은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추진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자신의 본 업무 외에 테스크포스팀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실제 담당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금산을 대표할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순조롭게 업무를 추진해나갔다.

▲ 금산 다락원 내에 위치한 공연장 '생명의 집'

50여 차례 방문한 끝에 부지매입 마무리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이었다. 2000년 2월부터 협의 매입을 원칙으로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총 43필지 39,333㎡ 매입이라는 경계를 확정짓고 지형도와 필지별 도면을 작성 비치하였다. 또한 필지별 대장의 작성과 현장실사(형태, 지장물 등), 매입대상지 공고 및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감정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개의 공인 감정기관에 복수로 의뢰하였다. 토지 소유주를 개별 면담하여 기공승락서를 받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금의 정산과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부지매입 전담반을 3개 반 20명으로 편성 운영한 것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됐다.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주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면담을 시도해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토지 소유주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 본 사업이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대신 설명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아닌 지인의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을 바꾼 경우도 있다.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기까지 평균 50여 차례 방문하다 보니 나중에는 친분이 생겼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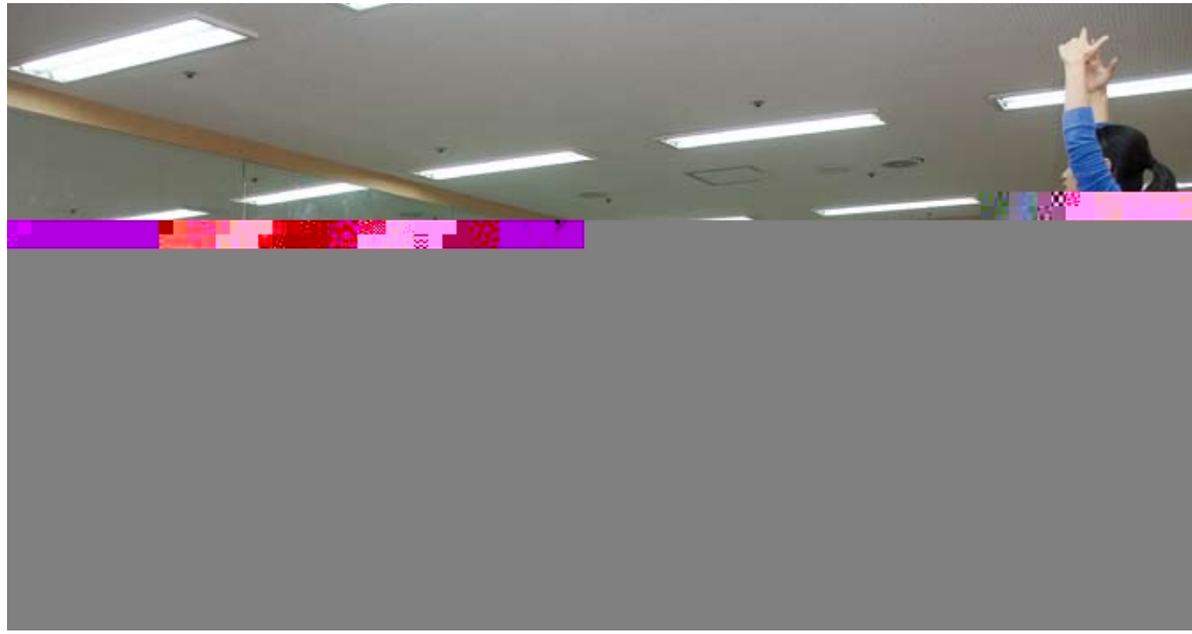
다락원은 앞으로 문화·예술·체육·복지 공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형 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다.
폭넓은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시설물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다락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편리성은 최대로, 운영비는 최소로

2000년 2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종합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용역추진을 위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각각의 건물을 이동통로로 연결하여 하나의 단지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무엇보다 사후 운영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였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설계경기공모 결과에 의해 최종 사업계획과 기본설계를 확정하였다.
환경친화적인 국제 수준의 건축예술작품을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우선 건축의 조기 착공을 위한 인허가를 서둘러 완료하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과 조경에 중점을 두었다. 토지매입과 아울러 건축 준공 시 조속한 등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권리보전과 군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등기전담공무원 2명, 문화공보관광과 1명, 종합민원실 1명을 임명하기도 했다.
멀티플 문화공간 다락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대한노인회, 금산농악보존회, 인삼골합창단 등 15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위치에 공간을 배치하였다. 금산 다락원은 2000년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2001년 생명의집(문예회관) 착공, 2002년 보건소와 장애인청소년의집, 노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착공. 2004년 임시 준공, 2005년 스포츠센터 착공에 이어 2006년에 다락원 전체 준공을 하게 되었다 [표 2].

중복 시설을 피해 얻은 예산절감 효과

기본 구상 후 설계공모 시 전국 공모를 통해 금산 지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비 절감과 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원 인력 절감 효과를 거둔 것도 큰 성과였다. 통합발주를 통해 각각의 설계에 따른 시간 낭비를 막고 2억6,000만원의 설계비를 절감했으며, 건물 신축에 따른 지도·감독 공무원 배치를 줄여 2억8,8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사업의 통합 추진에 따라 제각기 소규모 강당을 설치하는 대신 공연장과 강당 역할을 겸하는 대규모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예술 공연의 기폭제 역할을 주도할 문예회관을 신축한 것도 돋보인다. 스포츠센터의 경우 부대시설을 줄여 13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절감하였고 더불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관리비(연간 2억 7,000만원 정도의 운영관리비 중)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전기, 통신, 냉난방을 담당하는 기계실도 각각 설치하지 않고 중앙집중식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해 사후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전기료 8,500만원, 중앙난방을 통한 일괄 관리로 유류대 5,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에서는 시설물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토록 해 3억9,0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기도 했다.



▲ 금산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유아발레교실

금산 군민 1명당 3개 프로그램 이용
'평생 배움터' 덕분에 삶에 변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건립한 금산 다락원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공연 관람에 93,640명, 문화예술 39개 프로그램에 23,712명, 예술대학 7개 프로그램에 3,584명, 65개 복지 프로그램에 57,593명, 기적의 도서관 13개 프로그램에 4,417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금산 군민이 1인당 3개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과 같은 수치다. 2007년부터는 스포츠센터와 인삼고을도서관을 개관하여 좀더 질 높은 체육·교육 관련 프로

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다락원이 주민들에게 가져다준 삶의 변화는 실로 크다. 함께 배우고 즐기고 기쁨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평생학습의 장이 되었으며, 2004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성장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과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장애인을 위해서는 재활치료,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해서는 여가선용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력을 재창출하고, 여성의 능력 계발과 직업훈련 등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해 21세기 첨단기술과 지식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화·여가 생활 누리며
가족애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랑방

다락원은 앞으로 문화·예술·체육·복지 공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형 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다. 폭넓은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시설물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다락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특히 '복지동(장애인·및 청소년의집, 노인의집)'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노인들이 부양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동반자이며 장애우 역시 우리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문화적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는 문화의 불모지가 아닌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주민들의 자부심 속에 날로 커져만 가는 금산 다락원의 위용이 단단히 버티고 있다. Region

mini interview

다락원 덕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김동원 78세 · 충남 금산읍 중도리

올해 나이 일흔여덟의 김동원 씨는 오늘도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산 다락원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컴퓨터와 경기민요도 배우고 스포츠센터에서 운동도 할 뿐 아니라 도서관에서 서고 정리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로 불리며 하루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온종일 다락원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년 전부터 컴퓨터를 배워 지금은 문서작성과 엑셀을 이용한 표만들기, 인터넷으로 자료찾기와 메일보내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민요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 신명나게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가 즐거워하는 일은 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옛날이야기도 들려주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니 활력이 생기고, 함께 온 젊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없이 즐겁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건네니 그쪽에서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란다.

다락원이 문을 연 뒤 김동원 씨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칠십 넘은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락원을 통해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독해지고 외로움을 타게 마련이죠. 이럴 때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금산 다락원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자신이 찾기 나름이다. 김동철 씨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락원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표1 사업별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합 계	국 비	재원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30,992	11,019.5	1,993	17,229.5
여성의집	1,120	560		560
보건소	2,352	1,060	292	1,000
문화의집	1,000	160	160	680
농민의집	800	500	150	150
청소년의집	2,300	1,570		730
노인의집	803	401.5		401.5
장애인의집	560	168	91	301
스포츠센터	7,123	4,100	800	1,873
문예회관	7,588	2,000		5,588
만남의집	4,846	500		4,346
기적의도서관	1,000			250
인삼고을도서관	1,500	500		1,000

표2 금산 다락원 연도별 공사추진 상황과 경과

2000.12.05 공사발주
2000.12.19 공사계약 및 착공신고
2001.09.13 문예회관 착공
2002.03.21 보건소 착공
2002.03.28 복지동 착공
2004.10.29 임시준공(8동)
2005.12.05 스포츠센터 착공
2006.04.09 다락원 전체준공

Key ponit 5

금산 다락원 사업의 성공 노하우

예산 절감과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예산지원기관의 이해로 문화·복지·체육·교육과 관련한 7개 중앙부처의 12개 단위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는 획기적 계획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중복 기능 배제

기능별 중복 방지를 통해 시설물 활용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였다. 개별 사업으로 추진 시 각 사업별로 보조 조건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시설물을 확충하고 관리토록 함으로써 뚜렷한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주민 이용의 실용성과 편이성

다락원은 하나의 장소에서 군민 누구나 문화·복지·교육·체육 등 평생학습의 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획기적인 공간이다.

건물의 친환경성과 예술성

설계공모 시 전국 공모를 통해 금산 지역에 가장 적합한 환경친화적 작품을 선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자치 시대 상생 발전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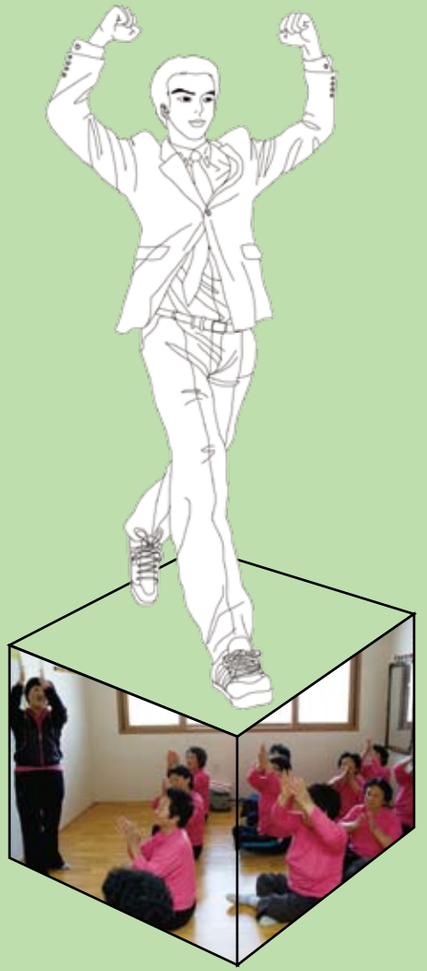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합작품으로 자치 시대에 걸맞은 상생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팔팔하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전남 곡성은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의 구조다.
도시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의 기회가 적고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도 낮다 보니
이곳의 노인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것이 곧 '건강팔팔마을' 사업을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노인건강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던 것. 11개 마을에서 시작한 '함께 걷기 운동'은 소소한 시작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곡성군 전체 225개 마을 중 22개 마을에서 2,500명의 중·노년층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좌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그 덕에 지난 1년 동안 무려 20억이라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health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김 선생 만나다!

김 선생 · 곡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홍 과장 : '건강팔팔마을'이라는 명칭이 참 재미있습니다.

김 선생 : 곡성군 전체 인구가 32,451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8.4%인 9,225명이나 돼요. 그래서 '곡성에서 건강장수를! 건강하고, 팔팔한 어르신들을 만들자는 뜻으로 '건강팔팔마을'이라는 명칭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홍 과장 : 건강팔팔마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김 선생 : 제가 있는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계 부서입니다. 이곳에서 건강사업과 관련된 마을통합 운영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관리, 마을 직·간접 서비스 제공 및 사업평가,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마을별 건강 동아리도 관리하고, 운동지도자나 건강관리사 등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 김 선생님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요?

김 선생 : 저는 지방간호주사보(지방간호7급)로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홍 과장 : 이 사업을 통해 얻은 효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선생 :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과 사업 실행 후인 2008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1년간 의료비가 20억원 가량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병의원의 이용 횟수가 낮아졌고 그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가 무척 높아졌지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다지는 데도 일조했답니다.

홍 과장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김 선생 :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죠. 프로그램은 이제 호응도가 너무 좋아져서 점점 더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할 상황인데 정작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요. 또한 예산 확보 못지않게 어려운 점은 예산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장기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어 매년 사업계획 수립을 새롭게 해야 했어요. 따라서 일회성 사업이 되기 쉬워 프로그램 실시 후 추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신뢰성을 얻는데 말이죠.

홍 과장 : 그 밖의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김 선생 : 아무래도 마을 중심 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 행정력 소모가 컸어요. 농번기에는 낮에 모두 일하느라 바쁘니까 주로 늦은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주민들 입장에선 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프로그램의 장점과 효과를 실제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지요.

홍 과장 :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했나요?

김 선생 : 무엇보다 신뢰와 믿음이죠. 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형식적인 건강관리가 아니라 자주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마을대표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 '곡성군 건강팔팔마을사람들(http://Cafe.daum.net/gokseong9988)'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대표자 및 건강관리자 동아리를 조직화해서 동아리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동아리 대표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홍 과장 : 사업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는데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김 선생 :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 KBS 〈파워정보시대〉, MBC 〈생방송 전국시대〉 등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가기도 했지요.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적극 홍보했고, 무엇보다 지역 언론에서 집중 보도해서 중앙으로까지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런 홍보 활동 덕분에 내외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랍니다.

건강팔팔마을 사업 성공 스토리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을 지역사업의 화두로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촌 노인들은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시 지역의 노인들보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곡성군 전체 인구 32,45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28.4%인 9,225명. 특히 200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곡성군 노인들의 병의원 외래 이용률은 78.5%로 전국의 53.5%보다 무려 25.0%나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곡성군은 지역의 현안인 '초고령 사회'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건강'에서 찾기 시작했다.

'건강팔팔마을' 사업의 시초는 2007년 6월 부군수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이에 보건의료원은 사업 수행을 위한 설명회 준비 계획을 세우고, 각 읍·면 사무소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로 시범 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신속한 결정과 사업 시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강'이 그만큼 곡성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후 '건강팔팔마을' 사업을 2008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의 및 설문 내용을 선정했는데, 이를 위해 해당 마을의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실천 프로그램은 건강팔팔마을을 희망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때 프로그램의 실효성 입증을 위해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 마을도 함께 선정했다. 이들 비교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기본 건강 상태뿐 아니라 기초체력, 병원이용도,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했는데,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한 건강팔팔마을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마을을 비교해보니 건강팔팔마을의 기초체력은 물론 병원 이용도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곡성 보건의료원 직원과 건강 프로그램 강사들은 주민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하는 운동에 동참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찾아가는 서비스'의 중심축 역할을 해냈다.

▲함께 운동하면서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주민들은 건강도 챙기고 정도 깊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기초체력 늘려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건강팔팔마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각 마을의 마을회관에 모여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일주일에 2~3회 요가, 장수춤, 함께 걷기를 하는 것이다. 각 마을마다 마을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노래 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사 없이 마을 주민끼리 함께 걷기를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강사는 각 마을마다 최소 1명에서 4명까지 활동하고 있다.

걷기 운동을 위한 산책로 조성이나 마을 운동기구 보급, 늦은 밤 안전을 위한 안전지휘봉 지원 같은 기본 인프라는 보건의료원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읍·면 행정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마련했다[표1 참조]. 건강팔팔마을사업은 보건소 단독 수행보다는 군내 여러 자원과의 연계로 프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처음 11개 마을로 시작한 건강팔팔마을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고 사업의 실효성도 크게 거두어 현재는 곡성군 전체 225개 마을 중 22개 마을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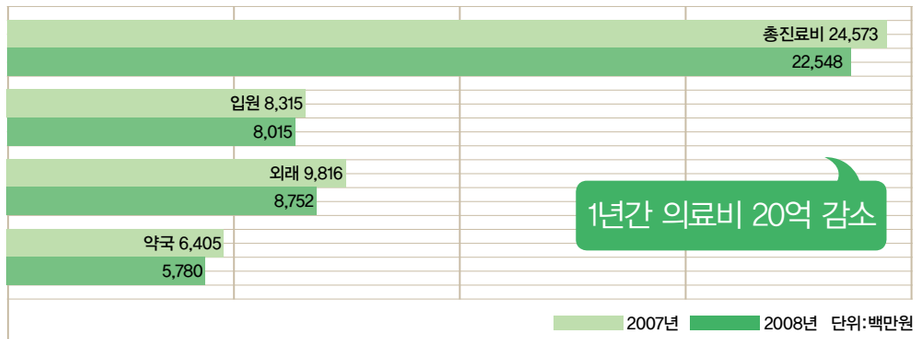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도 효율성을 배가시킨 요인이다.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마을은 융화가 잘 돼서 사업 확대가 쉽고, 마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건강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평가하기가 좋았다.

출장제로 '찾아가는 서비스'

농촌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있었다. 한창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는 주민들이 농사일로 바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던 것. 이에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야간에 운영해주기를 원했고, 군청에서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물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들이다 보니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현장에서 자주 접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졌고, 기본적으로 애향심이 높은 직원들이라 '시간 외 근무'라는 의무감보다는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린다'는 책임감으로 기꺼이 야간 운영에 동참했다. 직원들은 주민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함께 하는 운동에 동참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찾아가는 서비스'의 중심축 역할을 해냈다.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예산확보 문제. 이를 위해 군은 보건복지가족부 회의 때마다 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강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건강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적어도 5개년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안타깝게도 반영되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007년 8000만원, 2008년 1억4000만원, 2009년 5000만원인데, 국비와 군비의 지원 비율은 각각 50%다. 2008년 예산이 200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곡성군 건강팔팔마을 사업 계획서가 전국우수사업계획서로 뽑힌데다가 2007년도 사업성과를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었다. 건강팔팔마을의 예산은 전문 지도강사 인건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홍보비, 운동 도구 구입 등에 쓰이고 있다.

2008년 건강팔팔사업 수행에 따른 의료비 감소 효과



2007년 7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이전에 비해
2008년 의료비 총액이 약 20억 이상 감소하였음.
산출한 의료비는 곡성군에 주민등록된 사람의 의료비이며,
타 지역에서 이용한 의료비를 모두 포함한 액수임.

건강팔팔마을 홍보로 시너지 효과 UP!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이 22개 마을에 분산되다 보니 서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소모되는 행정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을 마을대표자로 하고 이들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건강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직원, 보건지소 직원, 진료소 담당자가 저녁 시간에 마을로 직접 출장을 나가는 '마을책임 출장제'를 운영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절주교육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건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데, 이럴 때는 마을대표를 주축으로 마을 동아리를 조직화해서 회원끼리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강팔팔마을의 건강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들은 군에서 양성한 전문 지도자들이다. 모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애향심과 사업에 대한 애정도가 높다는 것도 사업 수행에 큰 이점이 됐다.

건강팔팔마을의 발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곡성군은 마을대표자와 건강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마을별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영양교육을 위한 과정이나 도구 등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매뉴얼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며 농촌형 건강행태개선사업의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 공공보건기관에 보급하겠다는 당찬 포부도 갖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9월 12월에는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공공 보건기관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마을대표자 사례발표 및 주제발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건강팔팔마을 동아리 대표와 전국 건강마을 조성 보건소 담당자의 연찬회를 갖고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보충 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팔팔마을 홍보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장수(長壽)군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 4월에는 섬진강 전국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gion

mini interview

웃고 즐기는 사이 건강도 팔팔, 활력도 팔팔

임판임 58세 · 곡성군 오지리 오구 부녀회장

"항상 건강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일하기 바쁘다 보니 못 챙기고 살았어요. 특히 농촌 사람들은 농사짓기도 바쁜데 돈도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라니 귀찮기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그렇고 이웃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더 아프다고 난리세요."

곡성군 오지리 오구 부녀회장 임판임 씨는 곡성군 건강팔팔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본 사람 중 한 명이다. 곡성군의 지역 축제인 심청축제 현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임씨는 지난해 체지방,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 이하'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접했다. 그런데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최근에 받은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지난해 검사 결과랑 비교해보더니 '무슨 운동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엄청 좋아졌지요. 나이 들수록 몸 건강이 최고인데 몸이 점점 건강해지니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마을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다는 게 그녀의 이야기. 특히 올해 9회째를 맞은 심청축제에서는 곡성군 11개 마을이 체조경연대회를 펼쳤는데 대회 준비를 하는 3개월 동안 20~30여 명이 매일 저녁식사 후 모여서 체조 연습을 하며 사이가 더욱 각별해졌다고 한다.

"우리 마을 걷기 코스를 다 돌면 35~40분쯤 되니 딱 좋아요. 게다가 농한기엔 건강관리센터에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월·금요일은 노래교실, 화·목요일은 요가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강사님이 어찌나 재미난지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도시에 비해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한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임을 강조하는 임씨는 더욱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1 건강팔팔마을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 연계 내용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은 보건소 단독 수행보다는 읍·면 행정과는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등산로조성은 산림교통과, 마을 운동기구 보급은 농촌지도소, 건강팔팔마을 안전지휘봉 지원은 곡성경찰서와 연계가 필요한 내용이다.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연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 행정자원과의 연계

조직		연계 내용
곡성군청	산림교통과 (산림지원)	*등산로 조성
		*산책로 조성
	읍면사무소 (주민생활 지원)	*건강마을 관리 및 홍보
		*노인 일자리 & 희망 근로자
		*건강마을 환경정화 활동
	행정지원과 (교육체육 지원)	*운동분야 투입 강사 양성
		*건강마을 강사 투입
		*건강마을 홍보교육
	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	*마을 운동기구 보급
	기획예산 (기획정책, 홍보협력)	*건강팔팔 사업 전략 및 홍보 – 창의실용과제 제출 – 주요 업무보고 제출 : 도지사 방문 – 우수사례 제출 : 2건
		*사업 추진 사항 등 홍보
보건의료	방문보건	*건강마을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합동 캠페인
		*독거노인 방문
	한방허브	*건강마을 한방기공체조교실 운영
		*건강마을 경로당 한방진료
	주간보호센터	*거동불편 노인 입소 관리

지역 기관단체와의 연계

조직	연계 내용
곡성경찰서	*환경조성 – 각종 행사 안전지도 지원 – 건강팔팔마을 안전지휘봉 지원 – 걷기도로 반사경 설치
전남과학대학	*마을주민 보건교육 – 건강마을 통합교육 실시 – 간호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 보건교육 전후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마을 보건교육
	*건강마을 장수춤 및 요가 지도

지역 사회단체와의 연계

조직	연계 내용
새마을운동곡성지부	*산책로 주변 환경 조성 – 국도변 자연정화 활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사회정화 활동 –주변 알대와 계곡의 쓰레기 줍기 활동
지역개발협의회	*불우이웃 돕기 – 경로당 커피포트 제공
생활체육협의회	*운동실천 협력 –건강마을 운동 실천봄 조성 –건강마을 마을별 걷기 지도 –업무 연찬 & 협의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
	*각 마을별 경로당 청소
	*마을회관 환경 정화

Key ponit 5

건강팔팔마을 사업의 성공 요인

지역의 현안과 특성 잘 살린 아이템

65세 노인 인구 비율과 이들의 병의원 이용률이 타 시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건강' 문제를 선결 과제로 정한 점은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평가다.

마을 단위로 특성 살려 사업 효율성 배가

마을은 친화력이 강해 사업 확대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생활터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이미 형성된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만 옮겨가면 되어 사업 추진이 쉬운 이점이 있었다.

주민의 요구에 맞춘 '찾아가는 서비스'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한기 혹은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는 언제든지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였다.

체계화된 조직망 활용으로 사업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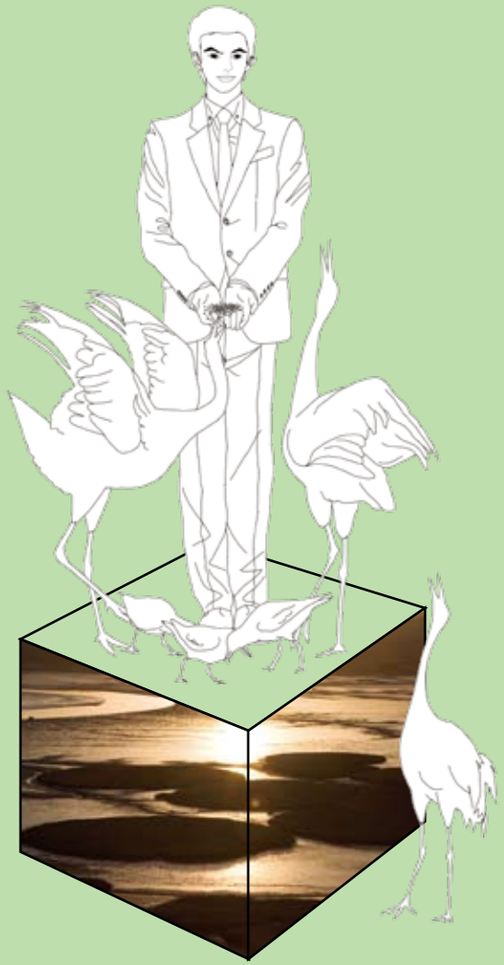
마을대표자를 활용해 마을 주민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시스템과 보건지소, 진료소 담당자가 매일 저녁 마을로 출장을 나가는 '마을책임 출장제'를 운영. 또한 계절에 따라 참여 관리가 어려울 때는 마을 동아리를 조직하여 해결했다.

읍·면 행정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사업의 주체인 보건소 단독 수행보다는 읍·면 행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했다. 각 프로그램별 전문가 집단의 협력으로 추진하니 사업 효과 및 효율성이 배가되며 시너지 효과가 컸다.

갈대밭, 철새의 공간 개발 아닌 보존으로 경제 효과 1,000억원, 세계적인 연안습지 순천만 이야기

순천만은 해안 하구의 자연생태계가 원형에 가깝게 보전되어 있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의 하나로 넓은 갯벌과 거대한 갈대군락,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연안생태계의 보고(寶庫)이자 흑두루미를 비롯한 검은머리갈매기, 민물도요 등 국제 희귀조류의 월동지이기도 하다. 2008년에는 전 세계 165개국이 참가한 창원 세계 람사르총회의 공식 방문지역으로 선정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순천시는 이곳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브랜드화하고, 생태계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였다.



eco-park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

홍 과장, 박 과장 만나다!

박상순 · 순천시 관광진흥과 과장

홍 과장: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박 과장: 관광진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부서는 순천의 품격 높은 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2007년 1월 신설된 부서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우리 시의 전략목표인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실현하기 위해 생태관광과 관련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생태를 기반으로 한 관광 비전을 실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생태관광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곳이죠.

홍 과장: 순천만을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박 과장: 순천만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 공간으로, 순천만을 구성하는 천혜 자원의 다양성만큼이나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회구성원도 다양해요. 자연히 민원도 많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담당 행정부서에서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직과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수산직, 환경직, 조류 전문직 등 필요한 직능 계열을 배치하여 원스톱(One-Stop) 체계 구축으로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전담하게 한 겁니다.

홍 과장: 자연생태공원사업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 과장: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도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순천만을 선택했고, 이곳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선진 모델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2007년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연구토록 용역을 맡기고, 순천만 자연생태자원의 보전을 위해 국내외 환경단체와 MOU를 체결했고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순천만과 발원지를 연결하는 동천수계를 '중심 생태축'으로 설정하고, 핵심 보전지역과 전이지역, 완충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 방안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홍 과장: 순천만생태공원사업을 제안한 주체는 어디인가요?

박 과장: 사실 순천만 환경 보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었는데, 순천시가 자연생태공원을 순천만에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본격화되었어요. 주민설명회 및 관련 보고회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보고회(2001년), 실시설계용역보고회(2001년), 순천만 생태공원조성의 방향과 생태자원 보호방안 학술 심포지엄(2001년), 자연생태공원 운영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2004년) 등이 있었습니다.

홍 과장: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박 과장: 순천만이 자연생태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등 외부 기관들에 의해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등 논의가 분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을 우려한 나머지 갈대밭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주민 여론이 악화되었죠.

홍 과장: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박 과장: 솔직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생태관광객이 순천만을 방문하면서 교통체증 등 순천만 인근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생태계 보존정책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만나서 설득하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최근 순천만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이곳의 명성이 실제 시민들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순천만 습지 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 순천만 사업의 규모가 커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을 듯합니다.

박 과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순천만의 가치와 이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역설한 결과 사업비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2007년 당시 부서를 신설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순천만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홍 과장: 순천만 사업의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와는 좀더 차별화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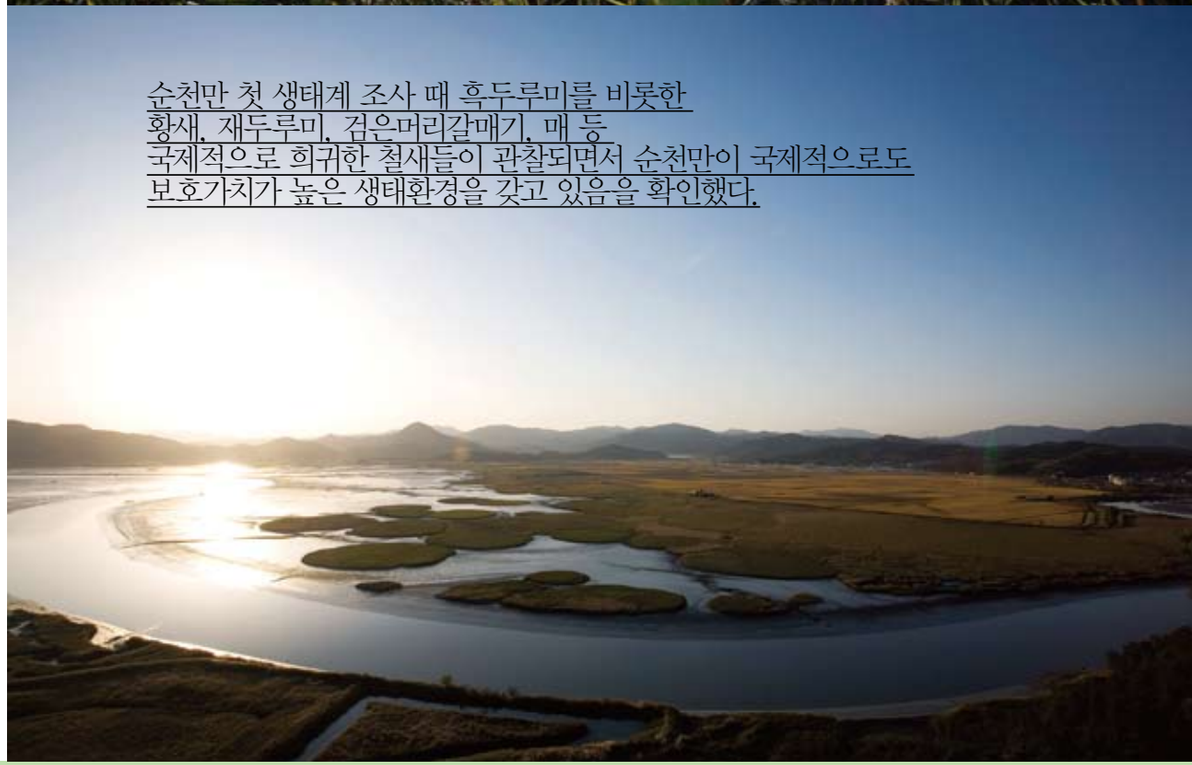
박 과장: 순천만과 관련된 사업은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늘 변화되고 바뀌는 자연에 대처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전문성과 성실성, 현장성이 요구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소화하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만 공무원들은 전문가와 국내외 단체, 위원회,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을 검증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특구사업 성공 스토리

재산권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갈등 심화

순천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안습지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곳의 갈대밭과 갯벌은 철새, 갯벌 생물들의 공간일 뿐이었다. 순천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민간업체가 준비해오던 동천하류 하도정비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하구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없는 점, 하천 직강화의 문제점, 갈대밭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에 호소하며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전문가들에 의한 순천만 첫 생태계 조사 때 흑두루미를 비롯한 황새, 재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매 등 국제적으로 희귀한 철새들이 관찰되면서 순천만이 국제적으로도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환경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어 지속적인 토론회, 시민홍보활동, 언론취재, 행정감사 청구, 생태체험 및 교육 실시, 생태문화축제 추진 등 순천만을 지키고 가치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골재채취사업은 취소되었지만 부분적인 하도정비는 이루어졌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등 외부기간에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과 같은 제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재산권의 제약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이 갈대밭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순천시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 해안선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순천만 주변 개발행위 제한 지침'이 수립되면서 이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40건이 넘는 사업허가를 반려하여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순천만의 핵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갯벌 가까이에 있는 식당과 주거시설을 이전하고, 탐방객 차량의 출입제한을 위한 농경로 폐쇄, 낚시어선 보상, 오리사육장 보상철거 등 순천만 인근의 환경 저해시설을 정비하는 데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는 강 하구의 옛 물길과 매립지·농경지·둔치 지역의 습지 복원,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민들을 찾아가 멱살을 잡히고 욕을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해나갔다.



순천만 첫 생태계 조사 때 흑두루미를 비롯한 황새, 재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매 등 국제적으로 희귀한 철새들이 관찰되면서 순천만이 국제적으로도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환경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순천만의 인근 인프라 구축에 따른 토지 보상은 전부 완료된 상태다. 그 밖에 순천만 환경 저해시설물인 음식점 이전 보상과 전신주 철거는 모두 협의되었으며, 유선은 1척만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4척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상에는 합의하여 2010년 초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습지보전정책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창출과 농특산품 판매, 순천만 인프라 구축과 생태관광객 입장료 수입을 활용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순천만 지킴이, 갈대 제거, 경관농업, 갈대축제 등에 지역주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

순천만을 찾는 생태탐방객 수는 2008년에만 262만 명을 넘어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리고 있다(표 1).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2012년에는 800만 명이 순천만을 방문, 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 증가로 2008년 신규 고용창출 규모는 연인원 6,400여 명으로 이들의 총연봉 규모는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광활한 갈대밭, 흑두루미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학습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보전해야 할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도부터 순천만 브랜드화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주민,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함께 고민해온 것도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간 관광객 262만여 명, 경제적 파급효과 1,000억 이상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부터 추진되었는데, 이 사업은 2004년 문화관광부가 6대 광역권 관광개발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광역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남, 경남, 부산 등 23개 시·군에서 총 6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남의 남해하모니리조트, 고성 백악기공룡테마파크, 김해 도예촌, 전남 신안 증도갯벌생태공원, 순천만 생태공원, 부산 을숙도생태공원 등이 대표적인 개발 사례다. 순천시는 2004년 11월 사업비 159억원(국비 67억원, 도비 5억6,400만원, 시비 86억3,600만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순천만자연생태관을 건립했다.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11개 부서의 업무를 관광진흥과로 통합하고 행정직과 농업직, 수산직, 환경직, 기능직 등 필요한 직능 계열을 배치,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전담하게 했다.

2007년 4월부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 자문기구인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천만 자연생태계 관련 각종 정책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해왔다. 하지만 현재 순천만의 커진 외형만큼이나 이에 걸맞은 조직체계의 개편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순천만 국제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을 개최해 습지 및 철새 관리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계획을 위한 환경운동연합, WLI(국제습지연대회의)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정책자문과 국제협력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습지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일 습지방문자센터 네트워크 참여, WLI 가입 등 활동을 했다. 일반인들의 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순천 출신의 가수 추가열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시의 상징물을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교체하고 순천교육청과 순천만 현장체험교육을 위한 MOU를 추진했으며, 순천만 습지생태 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추진 및 자원봉사를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갈대와 철새를 주제로 한 생태문화축제로 '순천만 갈대축제'를 개최했으며 지난 2008년 11월에는 천문대를 개관해 생태와 과학학습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순천만이 생태학습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곳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순천만의 세계화를 위해 2008년 람사르총회 기념 세계NGO대회 유치와 공식방문지 활용, 국제습지연대(Wetland Link International) 아시아지역회의 개최, 연안국제심포지엄, 한일갯벌공동심포지엄, 세계자연유산 지정 활동 등 각종 국제행사를 추진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순천만의 생태관광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인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11개국의 습지관리자와 공무원들이 순천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방문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 지역 람사르센터와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9 아시아 개발도상국 습지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생태관광지를 견학하며 순천만을 생태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탐구하고 배우는 그룹 활동을 진행했다.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한 순천만 훼손 우려

현재 너무 많은 생태관광객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들어가 순천만 훼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생태관 기능을 약 5㎞ 후방인 시내권으로 옮겨 습지에 대한 교육과 전시 등을 담당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중이다. 또한 천혜의 생태보고로 평가받는 순천만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는 인터넷 예약제를 통해 하루 1,000명으로 핵심 보전지역의 관람객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10월에 열린 경남 창원 람사르총회에서 수천만이 공식 습지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 개정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에 의거, 2010년부터는 순천만 습지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들도 순천만 정책을 기존 '관광객 유치'에서 '습지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순천만 주변에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개발'보다는 온전한 생태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보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순천만 주변 농지와 식당, 준설토 야적장을 꾸준히 매입해 내륙습지 등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2009년까지 총 97억원을 들여 501,330㎡ 땅을 사들일 예정이며 이미 80%나 매입한 상태다. 대대동 순천만 자연생태관 뒤편 주차장 16,529㎡ 부지도 내륙습지로 조성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순천만 농경지에서 순천시장과 시민 400여 명이 모여 전신주 제거작업에 동참했다. 이곳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를 보호하고 미적 경관을 위해서였다. 2007년에 흑두루미가 전깃줄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지고, 2008년에는 전깃줄에 부딪힌 어린 흑두루미가 죽는 불상사를 계기로 그동안 전기모터를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받던 농민들이 시와 함께 영농지원단을 구성하여 유류 양수기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순천시는 세계적으로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순천만을 이곳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가꿔 다양한 문화재와 경관, 관광 요소와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구경하고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의 주조 색을 초록으로 바꾸고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형성하여 천변을 공원지역으로 지정, 생태저류지 조성 등 하천도심 주변에 비오토프(Biotope)를 다양하게 조성하고 있다. 또 도심과 순천만의 중간 지역에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물과 숲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순천만의 세계적 브랜드화, 도시와의 연계 필요!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순천만은 현재 도입 단계를 지나 발전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박창석 연구위원. 안정적인 성숙 단계로 한 단계 성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도시와의 연계방안 모색과 함께 지역 주체의 자발적 역량 제고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순천만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 순천시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생태전시관과 천문대, 갈대밭 탐방 코스, 용산전망대, 순천만 탐사선 운행 등 생태체험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춘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죠. 또한 매년 가을 개최되는 갈대축제 역시 철새, 갯벌, 갈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2008년 기준 66만 명이 참가한 대표적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순천시는 최근 습지교육을 위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정원박람회와 여수세계박람회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저류지 및 비오토프 조성 등을 통해 도심과 연결되는 생태축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만이 자연자원 보전 및 활용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주된 성공 요인은 조직의 추진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을 순천시의 브랜드로 만들고자 한 시장의 의지를 시작으로 행정·농업·수산·환경 등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TF팀을 결성해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비전하에 순천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순천만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순천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돋보이죠. 경쟁력을 갖춘 순천만 브랜드화를 추구하는 한편 갈대 베기, 갈대울타리 조성, 축제 관리 및 먹을거리 마당 운영, 영농지원단의 전신주 제거작업 등 다양한 주민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소득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 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표1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특구사업의 성과

구분	2002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관광객	10만 명	70만 명	180만 명	262만 명
경제효과	40억	240억	710억	1,000억

표2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계 (국비)	2007년 (국비)	2008년 (국비)	2009년 (국비)	2010년 이후 (국비)
계	**68,213 (34,517)**	**1,872 (936)**	**13,269 (7,045)**	**13,072 (6,536)**	**40,000 (20,000)**
순천만국제습지센터	44,365 (22,593)	–	1,365 (1,093)	5,000 (2,500)	38,000 (19,000)
자연생태공원 기반 조성	8,000 (4,000)	–	4,000 (2,000)	2,000 (1,000)	2,000 (1,000)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	2,800 (1,400)	–	1,000 (500)	1,800 (900)	–
공예공방 및 판매장 설치	848 (424)	–	848 (424)	–	–
동천하류 생태습지 복원	1,400 (700)	1,400 (700)	–	–	–
순천만 생태탐방로 조성	4,300 (2,150)	4,300 (2,150)	1,920 (960)	1,908 (954)	–
절강 등 내륙습지 복원	4,000 (2,000)	472 (236)	2,876 (1,438)	1,124 (562)	–
용산 일몰 테마공원 조성	2,500 (1,250)	–	1,260 (630)	1,240 (620)	–

Key ponit 5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특구사업의 성공 요인

담당 행정부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구성

순천만의 효율적 관리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위해 행정직과 농업직, 수산직, 환경직, 기능직 등 필요한 직능 인력을 배치하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담케 했다. 11개 부서의 업무를 관광진흥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태관광 일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설치

지역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 자문기구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천만의 자연생태계와 관련한 각종 정책자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사업 활발

국제 심포지엄과 워크숍 개최, 환경운동연합과 국제습지연대회의 등과 MOU 체결, 습지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일 습지방문자센터 네트워크에 참여했다.

언론의 주목 끌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순천 출신 가수 추가열 씨를 순천만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시의 상징물을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교체하는 한편, 순천교육청과 순천만 현장체험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 밖에 갈대와 철새를 주제로 한 생태문화축제로 '순천만 갈대축제'를 개최했다.

국제적 행사 유치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순천만의 세계화를 위해 2008년 람사르총회 기념 세계NGO대회 유치와 공식방문지 활용, 국제습지연대(Wetland Link International) 아시아 지역회의 개최, 연안국제심포지엄, 한일갯벌공동심포지엄, 세계자연유산 지정 활동 등 각종 국제행사를 추진했다.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궁금증

Q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성격과 위상은 무엇인가?

A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정 자율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균특법은 제4조에 법정 의무계획으로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또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구성은 전적으로 기초생활권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보조를 받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계획이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Q 정부가 구상하는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무엇이며, 발전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A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을 지향한다면 기초생활권의 비전은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을 창조'하여 '국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획일적·무차별적인 물량 위주의 지원보다는 지역의 발전단계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로, 상하수도, 교량, 공공시설 신축 등 H/W적인 물량 투입은 가급적 지양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개발, 소득창출기반 확대, 연계·협력사업 촉진, 의료·복지 전달체계 개선, 교육경쟁력 강화 등 S/W적인 발전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사업들을 체계화한 계획이다.

Q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들인가?

A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의 취지 중 하나가 광특회계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 제고에 있으므로 당해 시·군이 구상하는 광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①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 각종 부존자원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사업, ②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③복합 공공시설물 신축·확충사업, ④향토산업 및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중요하다. 광특회계 이외 타 회계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①리더 양성 및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 역량강화사

업, ②교육경쟁력 강화사업, ③의료·복지사업, ④상하수도, 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다.

Q 타 회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매우 방대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까지 포함하나?

A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포함시키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 당해 기초생활권이 추진하려는 모든 광특회계사업, 광특회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앞에서 언급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 타 회계사업 중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삶의 질 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타 회계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까지를 포함한다.

Q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포괄보조금 운용체계, 계획수립의 의의 및 중요성 등에 대한 내부 교육을 추진하여 주관 부서와 사업부서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끔 한다. T/F를 운용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며 중기재정계획, 장기발전계획, 2010년 광특회계 사업계획서 등과 연계하되,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 및 전략, 중점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T/F가 중심이 되어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가 반드시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의 실무적 작성 주체는?

A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단순히 비전 제시와 사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에 계획수립 T/F를 구성하여 실무적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자체 수립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외부 용역으로 계획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T/F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계획의 적합성과 실천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지역의 특화발전사업을 포함시켜 획일적이고 무의미한 계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요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서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대표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협의·조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Q 이번에 도입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

A 광특회계는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 등 3개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역발전계정은 시·도 간 연계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소관 부처가 국가적 관점에서 시·도의 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지역개발계정은 시·군·구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한다.

Q 포괄보조금이란 무엇인가?

A 포괄보조금은 일반 정액보조금과 특정율보조금의 장점(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 신장)을 결합한 보조금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 즉, 포괄보조금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결코 아니며, 국고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 제한에 따른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사업 선택권을 확대한 보조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포괄보조금은 종전 200여 개 지역개발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 보조금이다

Q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

A 개정 균특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인센티브는 시·군 간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Q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이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나?

A 균특법 제3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결과, 시·군·구 발전 정도, 예산집행의 실적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자체의 회계운영 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도,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조 제2항에서는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이외에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세출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과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역 경쟁력과 투자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Q 배분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선택의 자율성은 있나?

A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인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의 지역개발사업에는 일종의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세부사업 기획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기초생활권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해당 사업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6개 부문의 경우는 전적으로 기초생활권의 자율과 재량에 따른다.

Q 2010년 이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Q '성장촉진지역'은 어디이고, 추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A 기초생활권은 지역특성별로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 농산어촌 등 3개 지역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각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다. 성장촉진지역은 3개 지역 구분과 별도로 인구, 재정, 소득, 접근성 등 지표를 토대로 저발전지역을 선정하여 기초 인프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이다. 성장촉진지역은 행안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며,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권기반 확충사업은 100% 국고보조를 하며, 여타 포괄보조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도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이 가능하다.

Q 그렇다면 포괄보조금의 운용구조는 어떻게 되나?

A 지역개발계정사업은 그간 200여 개에 달하였는데, 이를 19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5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재편하여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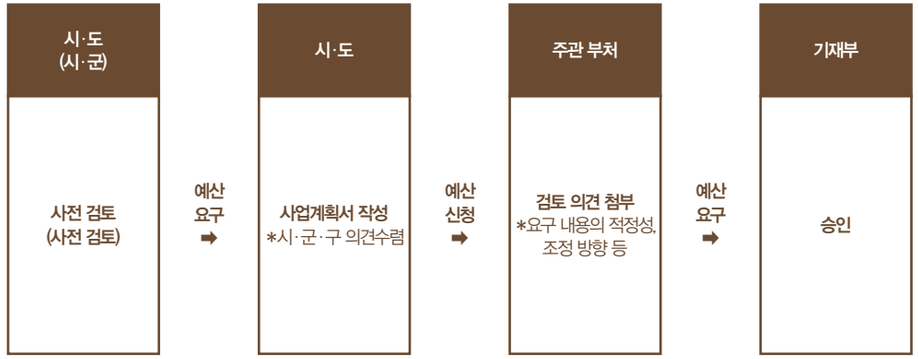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사업재편 이전 세부 사업
시·도 자율편성사업	문화부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박물관, 문예회관 등(18개)
		② 관광자원 개발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8개)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④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문화콘텐츠센터 등(8개)
	문화재청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지역문화유산 개발 등(5개)
	농림부	⑥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⑦ 농어업 기반정비	밭기반 정비 등(13개)
	농진청	⑧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⑨ 산림경영자원 육성	임산물 수출 촉진 등(3개)
		⑩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휴양림, 수목원 등(4개)
	지경부 중기청	⑪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섬유패션산업 등(10개)
		⑫ 전통시장/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복지부	⑬ 청소년시설 확충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⑭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생활용수 공급 등(4개)
		⑮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 보전 등(2개)
	국토부	⑯ 해양 및 수자원 관관리	연안정비 등(3개)
		⑰ 대중교통 지원	물류단지 지원 등(5개)
		⑱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가덕대교 건설 등(6개)
		⑲ 지역거점 조성지원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국토부	⑳ 성장촉진지역 개발	개촉지구 지원 등(3개)
	행안부	㉑ 특수상황지역 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㉒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림부	㉓ 일반 농산어촌 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환경부	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개)

Q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에 대한 예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지역개발계정이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신청 역시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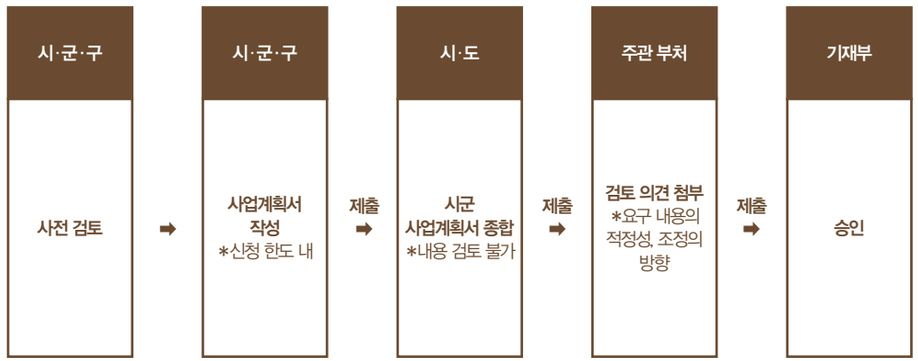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도 자율편성사업(19개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가 배분된 재원 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5개 포괄보조사업)은 시·군·구가 신청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각 사업별로 재정부처에서 인정한 국비지원 총규모를 초과한 예산 신청은 불가하다. 이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한다.



우리 지역 강점 자원 어떻게 찾아내 키울까?

앞에서 12개 지역의 성공적인 지역발전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 지역에 적용해볼 차례다.
지역발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LESSON

다음은 사업계획 수립의 일반적인 절차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관련 자료와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준비한다.

준비	1	준비 단계	계획 수립과 집행, 성과 관리 등을 함께 할 지역 내외 주체 확립 –교육 및 학습
계획 수립	2	계획 수립 개요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계획 수립 주체, 계획의 범위와 절차
	3	지역 현황과 특성 분석	지역 조사, 분야별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개발수요 및 만족도 조사, SWOP분석
	4	기본 구상	비전과 방향 설정
	5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부문별 기본구상,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획 수립 –기초생활기반 확충 – 문화·관광·체육 –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 보건·복지 – 환경 –수자원·교통
	6	계획 실행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수립
평가	7	자체 평가	성과관리, 점검, 계획 수정, 환류

1

○ 사업계획서 구성안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한다.

사업계획서

1.계획수립 개요
1)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2)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절차

2. 현황조사 및 분석
1)일반 현황
2)주민수요 분석
3)관련 계획 검토
4)잠재력 분석

3. 목표와 주요전략
1)발전 비전 및 목표
2)추진 전략
3)공간 구상

4. 세부 단위 사업계획
1) 사업형태(단위사업 or 협력사업)
2) 사업명
3) 사업 필요성
4) 사업 목표
5) 주요 내용
6) 연차별 사업예산
7) 사업 기간
8) 사업의 공간적 범위
9) 시행 주체
10) 기대 효과

5. 운영 및 재정계획
1)사업추진체계
2)재원 조달

2

○ 계획수립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분야를 선정하는 일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24개 부분의 사업군을 고려하여 그 틀 안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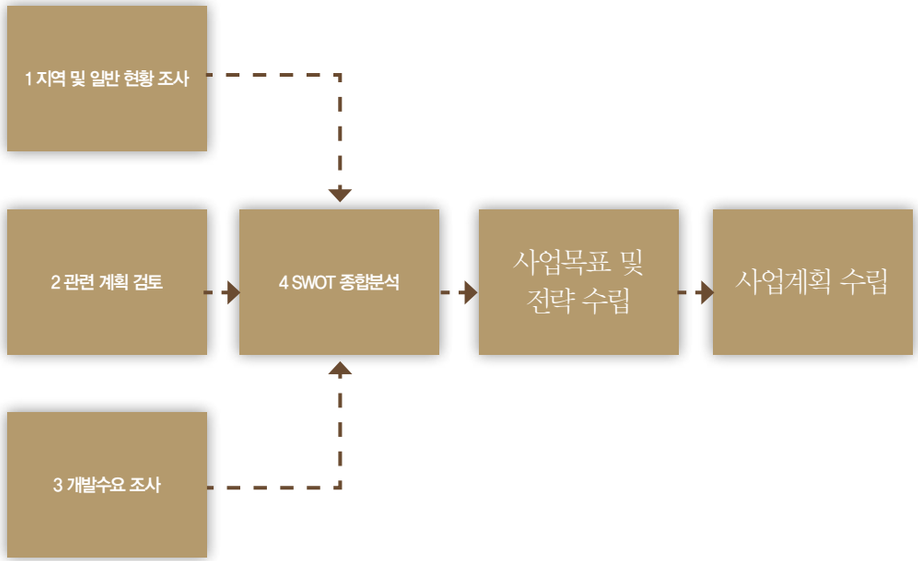
7개 정책 부문 및 24개 사업군 개요

재원별 \ 연차별	포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관련 정부부처
기초 생활기반 확충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국토해양부
	– 특수상황지역 개발	70%	행정안전부
	– 일반 농산어촌 개발	70%	농림수산식품부
	–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국토해양부
	–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70%	환경부
문화·관광·체육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문화관광체육부
	– 관광자원 개발	50%	
	–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문화재청
농림·수산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 기반 정비	80%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진청
	–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산림청
	–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산업	–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50%	지식경제부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60%	중소기업청
복지	– 청소년 시설 확충	30~88%	보건복지가족부
환경	–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70%	환경부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수자원·교통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국토해양부
	– 대중교통 지원	90%	
	–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100%	
	– 지역거점 조성지원	100%	

3

○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
사업부문과 구체적인 아이템이 발굴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 자료와 특성을 면밀히 조사, 수집,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현황 조사, 관련 계획 검토, 개발수요 조사, 분석,
지역 잠재력과 지역 문제를 종합하는 SWOT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현황 조사 및 분석



1. 지역 및 일반 현황 조사

--> '이 지역은 어떤 곳이다'를 특징적으로 표현

● 자연지리적 특징 ● 인구사회적 특징 ● 역사문화적 특징
● 경제산업적 특징 ● 생활권 특징

--> 현황과 특징 분석을 위한 도구

● 기존 통계자료, 향토지 등을 수집 정리 ● 전국 평균, 유사 기초생활권과 비교
● 시기별 변화 추세 파악

2. 관련 계획 검토

--> 이 지역 위상, 발전 방향 등을 다른 계획들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참고

● 시·군 단위 주요 계획 수집 (시·군 장기발전계획, 농업·농촌 발전 계획, 관광문화발전 계획, 지역복지 계획, 지역환경보전 계획, 삶의 질 향상 계획 등)
● 시·군 주요 업무 계획 ● 광역시·도 장기발전 계획 ● 국가 수준의 부문별 발전 계획

--> 토지이용 관련 규제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사업계획

● 신도시, 도로, IC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참고해야 할 정보

3. 개발 수요 조사

● 지역 주민들 혹은 방문자들이 해당 기초생활권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자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수요를 갖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핵심 개발 수요 확인

--> 개발 수요 조사를 위한 도구

● 전화 또는 면접 설문조사
● 각종 지역 자문위원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 주요 조직을 통해 핵심 인사 대상 인터뷰
● 아이덴티피케이션 매핑, 자원 찾기 프로그램 진행 등

4. SWOT 종합 분석

● 위 자료를 기초로 지역의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요인), Threat(위협요인)을 정리
● SWOT를 정리하는 효용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는 것. 전략 선정을 위해 SO-ST-WO-WT 등 매트릭스를 만들어 최상의 것을 선택

–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후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행을 도모한다.

예시 1 : 기초 생활기반 확충 부문 단위사업계획

1. 사업형태: 단독사업

2. 사업명: 농촌주택 개선 사업

3. 필요성

● 노후 주택과 빈집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물론 농촌 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농촌주택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사업목표

● 실적목표 – 농촌주택 개선 100개소 ● 성과목표 – 지원 대상 농촌주택 거주 인구: 200명

5. 사업내용

●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 노후 주택 및 빈집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지원조건

– 주택 개량: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신·개축일 경우 세대당 4,000만원, 부분 개량·증축은 2,000만원을 연리 3.45%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 빈집 정비: 세대당 100만원 내외 지원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경관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보조 또는 융자한다.

– 신축 시 동당 1,000만원, 리모델링 시 동당 250만원을 융자

6. 연차별 투융자 계획

부문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국비	–	–	–	–	–	–
지방비	800(100%)	800(100%)	800(100%)	800(100%)	800(100%)	4,000(100%)
민자	–	–	–	–	–	–
합계	800	800	800	800	800	4,000

7. 사업기간: 2010~2014

8. 사업의 공간적 범위: ○○군

9. 시행주체: 지자체

참여자	역할
군청	노후 주택 및 빈집 현황 조사, 예산 지원

10. 기대효과

●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어메니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음.

●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전입을 촉진할 수 있음.

예시 2 : 농림수산 부문 협력형 사업계획

1. 사업형태: 협력사업

2. 사업명: 지리산권역 3개 군(거창, 산청, 함양) 연합 학교급식센터 운영

3. 필요성

● 거창군은 관내 초·중·고교에 친환경 급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3년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만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만으로는 관내 34개교에 충분한 범위의 식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한편 산청군과 함양군은 꾸준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대규모 소비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농업 확대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3개 군이 연합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공동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학생들의 영양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사업목표

● 실적목표

– 학교급식센터 1개소 건립(20억원, 2010년 사업)

– 3개 군의 60개 초·중·고교 1만 명 학생에 급식 지원

(일부 식자재 무상공급, 연 35억원, 2011~2014년 사업)

● 성과목표

– 3개 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400여 명에게 지속적 판로 확보

(농가 1호당 연평균 조수입 400만원)

5. 사업내용

● 물류상 조건이 양호한 장소에 '공동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한다.

● 학교급식센터의 성격과 역할

– 3개 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구매하여 지역 내 60개 학교에 공동분배한다.

– 학교에 분배하기 전에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 학교급식센터는 3개 군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직과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식자재의 학교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형태로 운영한다.

●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

– 학교급식센터 출범을 위한 자본금 출자

– 식자재 저장고, 냉장차, 사무실 등 시설 지원

– 잔류농약검사 등 기술지원(군 농업기술센터)

– 공급하는 식자재 중 무상지원 물량에 대한 구입비 지원

● 3개 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식자재 공급체계 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꿈이있고
살고싶은
지역창조

創造

부록
3

지역발전 연계협력 추진사례

지역발전 연계협력 추진사례

교육분야

① 강원 양양군
양양 산촌생태학교
- 산촌유학 생태학교 운영으로 학생 20명과 학부모 40여 명이 전입해 인구유입 효과를 거둠 (양양군 서면 상평초교 공수분교 폐교 위기 구제)
- 단기체험 위주의 생태교육과 체험학습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산촌유학 생태학교 운영

②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청
농산어촌 초등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 충남도교육청–충남도청 간의 교육 분야 연계협력사업
- 충남도교육청·충남도 간 상호 교육협력 협약서(2007.1.9) 체결
- 충남도교육청 지원 20%, 지방자치단체 지원 80% 재원으로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교사의 교수·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청
국제시민 소양교육을 통한 영어 공교육 내실화
- 인천시–인천시교육청 간의 교육 분야 연계협력사업
- 국제적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리더 양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인천시와 연계한 명품 인천 영어교육 추진

④ 경남도교육청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 경상남도 20개 시·군–경상도교육청 간의 학교급식 협력사업
- 도청–기초지자체–교육청이 연계한 급식지원사업

⑤ 강원 화천군
화천학습관 조성 및 운영
- 군 단위 자체 사업으로 학습관 건립 운영(중고생 64명 선발)
-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찾아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충북 단양군
한드미마을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 군 단위 자체 사업으로 외부 유학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해 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단위 유학 프로그램 운영

⑦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의 보육·교육 분야 연계협력(2009년 7월 전국 확대)
-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의 보육비·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24시간 보육 시스템 구축

⑧ 파주시, 영월군
군 인적자원 활용한 소프트 지역개발
- 시·군 자체 사업으로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한 원어민 영어교육
- 군 장병 및 미군 활용 : 방과후 교사·주말학교 교사·학습도우미 협약 체결, 영어캠프, 원어민 교사 초빙

⑨ 경남 함양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 하향식 교육→ 자기주도 학습 조직으로 변화

⑩ 전남 장성군
평생교육 활성화
- 1995년부터 '장성아카데미'(매주 금 17~19시)를 운영하여 개인능력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 (비경제분야)

⑪ 경기 시흥시
폐교 위기의 학교 활성화
- 환경체험학습 등 학교의 특성을 살려 외부 학생 유치 성공

지역발전 연계협력 추진사례

문화·복지분야

① 충북 옥천군 안남면
안남배바우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 면 단위 도서관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방과후 놀이방, 주방, 회의장 등)
- 안남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스스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

② 경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경기도 주도로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제도)을 확대, 운영(전국 처음으로 2008년 11월부터 무한돌봄사업 시작)
- 수혜기간이 정해진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만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사업 시행

③ 전남 강진군
다문화가정 사회(문화) 적응지원 프로그램
- 군 단위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정 '희망 쌓기·프로그램,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국제결혼 이주여성(35명, 가족 포함 100여 명) 고향방문사업,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사업 등(2008년 12월부터 추진)

④ 경북 구미시
다문화가정 사회(문화) 적응지원 프로그램
- 한국어·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결혼이민자 출신국(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도서 8,000여 권 보유 및 대여, 결혼이민자 출신 강사가 초·중교에서 자국의 언어문화 소개, 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모국의 부모에게 송부

⑤ 전남
전국 최초 수직 복합건물 건립
- 문예회관과 실내 체육관을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공사비와 부지매입비 등 98억여 원 절감 효과 (사업비 33,000백만원 : 국비 11,800, 교부세 2,000, 도비 3,000, 군비 16,200)

⑥ 충남 연기군
은빛 청소년 건강지킴이
- 군 단위 자체 사업으로 전직 교육자, 공무원 등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담조로 구성하여 청소년 건강 행태 지도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불건전한 행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품행을 지니도록 상담 지도

⑦ 경기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 시 단위 자체 사업으로 대표협의체, 민민협의회, 민민협력단을 조직하여 세밀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 민관 협치를 이끌어낼 동등성, 지속성, 자발성의 원칙을 지켜감으로써 올바른 민-민 연계와 민-관 협력 실현

⑧ 대구
근대 문화공간 디자인 개선
- 3.1만세운동길, 제일교회 담장 허물기, 이상화 고택 주변 담장, 도로공사 및 수목 식재 등 (사업비 1,280백만원 : 국비 680, 시비 300, 구비 300)
- 주변의 문화유산과 근대 골목을 연계한 워킹투어로드 조성, 지역관광특화 기여

⑨ 광주
빛고을 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 광주시민회관과 구동체육관 등 기존의 노후 시설을 통합 재건축하여 문화중심사업과 연계한 사업(사업비 47,300백만원 : 국비 16,000, 시비 31,300)

⑩ 대전
자양동 복합청사 건립
- 동주민센터 건립 시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 조성하여 효율적 공간 활용과 더불어 주민생활의 질 향상(사업비 : 4,557백만원, 도서관 120백만원)

⑪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면 단위에서 여성 농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홍동면 소재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지역 여성들을 위한 교육·문화·여가·복지(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상담

⑫ 대전 동구
공공도서관 건립 복합화 추진
- 복합청사 구축(동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도서관 시설 부족 지역에 건립하여 이용률 향상
  -자양도서관 건립(2008~2009, 공공도서관+주민자치센터+경로당)

13 충북 청주
'크리안트' 창작 및 파일럿 개발
- 에듀테인먼트 산업도시 청주 브랜드화를 위한 글로벌 에듀테인먼트 캐릭터
- 개발된 '젬마'와 '코스모나인' 캐릭터의 상용화
- '청주에듀피아' 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홍보

–2006~2008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 에듀테인먼트 캐릭터 '크리안트' 창작 및 파일럿 제작

14 경기
원시 운동장 리모델링
- 원시 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축구장 및 다목적 운동장으로 배치하여 운동장 공간 활용을 극대화, 인근 시흥시와 협력적 시설 이용(사업비 2,607백만원 : 국비 782, 도비 391, 시비 1,434)

15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부문화의집 운영
-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
- 금산군 외곽에 위치한 면 단위 농촌 중심지(면소재지)에 인근 주민에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의집 운영

지역발전 연계협력 추진사례

보건의료분야

1 경기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 시 단위 자체 사업으로 자원봉사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의료지원, 복지상담, 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 취약 계층에게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연계한 이동 방문진료, 병원진료 예약과 및 병원 동행, 가사 정리, 학습 지도, 목욕·세탁 서비스 등

2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
구곡순담 장수벨트사업
- 4개 군의 장수 지역 연계협력사업
- 세계장수지역 상호우호교류 협약식, 장수부부 합동 회혼례, 100살 잔치 행사 등

지역발전 연계협력 추진사례

환경·관광분야

1 양주시, 동두천시
소각장 공동 설치 운영
-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비용을 분담하여 양주시에 광역소각장 설치 운영

2 구리시, 남양주시
소각장·매립지 공동 이용
- 소각장은 구리시, 매립지는 남양주시가 건설하여 공동 이용 합의

3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소각장·매립지 공동 이용
- 소각장은 전주시, 매립지는 완주군에 설치하여 3개 시·군이 공동 이용

4 화성시, 오산시
소각장·하수처리장 공동 이용
- 소각장은 화성시, 하수처리장은 오산시에 설치하여 공동 이용

5 청주시, 청원군
소각장 공동 이용
- 청주시 비용 부담으로 설치한 소각장을 청원군이 공동 이용

6 무안군, 함평군
소각장 공동 이용
- 무안군이 함평군 경계지역에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자 함평군 주민이 반대, 함평군 쓰레기도 함께 처리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설치 동의받음

⑦ 경산시, 청도군
소각장 공동 이용

- 경산시가 청도군 경계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자 청도군 주민이 반대, 청도군의 적극적 중재·협력으로 양 시·군의 주민 합의, 청도군 금산면 쓰레기도 함께 처리키로 협의

⑧ 음성군,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 운영(음성군 맹동면), 운영비용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공평 부담

⑨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시화호 개발협력

-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 평의 개발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 발생
- 이해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⑩ 사천군, 남해군
연륙교 명칭 협력

- 경남 사천시 삼천포와 남해군 창선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사천시는 '한려대교', 남해군은 '창선연륙교'를 주장,
- 사천시와 남해군 사회단체 대표들이 만나 '창선삼천포대교'로 합의

⑪ 광명시, 서울시
소각장·하수처리장 공동 이용

-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동(광명시 경계지역)에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자 광명시 주민들 격렬 반대,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던 광명시 의회에서 광명시 소각장와 서울시 하수처리장 공동이용 방안 제의
- 광명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이 협의를 거쳐 공동이용협약 체결

⑫ 부산시, 양산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력

- 부산시가 기장군 정관면에 제2 추모공원(납골당) 조성방침 결정,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공동관리 주체인 양산시의 협력 필요
- 부산시와 양산시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의 진행(13개월간)
  –양산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동의 및 인센티브 사업 확정

⑬ 보은시, 옥천군, 영동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와 12개 시·군 관광개발협력

- 충청북도 12개 시·군별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는 것보다 권역별 시·군이 협력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권역별 협의회 구성 운영
- 문화·관광 탐방, 축제행사 교류지원, 관광설명회 및 주말농장 투어, 국내외 관광전시회 참가

⑭ 전북 진안군
진안군 마을축제

- 군내 마을 단위 주민이 주인공인 축제를 민관 협력의 축제로 발전
  –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생태관광 분야가 결합된 상향적 발전 모형
-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수박축제, 전통술 만들기, 마실길 걷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주민의 주도로 진행(1읍9면의 19개 마을별)

⑮ 경남 하동군
하동 슬로시티

- 군 단위 자체 사업으로 슬로시티 지정(2009.2), 브랜드 강화와 관광객 유치
- 체험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치,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와 연계
  ※전남 4개 지역(담양군,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은 기 지정

⑯ 대전광역생활권
대전광역권(G9) 관광벨트화

- 광역권역 단위 사업으로 공동협력사업 추진
- 공동 홍보물 제작·배포, 지역별 문화행사와 우수 농축산물 축제 한마당 개최 등 권역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⑰ 충남 서산시
천수만 철새기행

- 시 단위 자체 사업으로 지역 자원(천수만)을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에 성공
- 철새기행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수만생태관 운영, 철새탐조기행, 장터체험마당 등 프로그램 운영
  ※연간 20만 명 이상의 철새 탐조객 방문

⑱ 경남 창녕군
우포늪

- 군 단위 자체 사업으로 지역 자원(천연 늪)을 활용하여 생태 전시관 조성
  –국내 최대의 원시적 저층 천연 늪(람사르 습지)으로서 생태계특별보호구역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와 우포늪생태관 개관 등

⑲ 전남 광양시
생태지도 및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 시 단위 자체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한 생태지도(Biotop Map) 및 지리정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 주민·기업 등과 합동으로 '광양국가산단 환경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

⑳ 울산
폐열 재활용

- 소각장의 폐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한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업 간 협력사업
- 지자체의 경영 수익과 기업체의 생산원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

21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관광홍보 공동 마케팅 협력

- 4개 시·군 관광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연계협력사업
- 권역별 공동 마케팅 등

22 **춘천시, 홍천군**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

- 2개 시·군의 관광단지 조성 연계협력사업
- 콘도 558실, 호텔 180실, 골프장, 승마장, 공원 등

23 **강원 인제군**

모험레포츠산업 육성

- 인제군의 내린천 레포츠 축제, 모험레포츠연구회 조직, 종합휴양레저도시 개발계획 등

24 **강원 평창군**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 평창연합그린투어사업단의 신활력사업

25 **전남 함평군**

나비축제

- 곤충연구직제 신설, 나비축제 기획 추진, '나르다' 브랜드 개발, 함평 나비영농조합 설립,

26 **경기 이천시**

부래미 농촌관광마을

- 마을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체험관광, 농산물 직판, 전자상거래 운영 등으로 수입 배분

27 **강원 원주시**

용소막 농촌관광마을

- 1차 산업부터 상업 활동, 민박, 체험 서비스, 농산물 유통·가공·생산·판매 등 광범위한 경제활동

28 **강원 평창군**

차항리 농촌관광마을

- 고랭지 채소, 무공해 씨감자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상품 개발로 이용객 증가

29 **충남 태안군**

해안사구 복원

- 지역주민과 기관들의 노력과 협조로 5년여 만에 해안사구 복원에 성공했으나 사유지가 70%에 이르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해결

30 **강원 춘천시**

시민과 함께한 쓰레기 20% 줄이기

-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 홍보, 폐기물 배출과 수거체계 변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확대 시행
- 음식물 거점수거용기 전량 회수로 깨끗한 거리 미관 조성, 악취 발생 해소, 처리비용 절감(연간 4억원)

31 **충남 금산군**

건강한 에코뮤지엄 금산

- 산림문화타운과 생태학습장 조성, 친환경 뉴어비니즘(신도시주의) 조성
- 금산군 지역주민 소득 향상 : 연 1,000억원(2007년 인삼축제 매출액 760억원)

32 **광주 남구**

생태도시 광주 남구

- 도심철도 폐선 부지에 푸른 길 조성, 주민의 참여로 웰빙 생태·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계기 –대남로 구간 및 백운광장~동성중 구간에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33 **서울 서초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도시 조성 프로젝트

-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NT)운동('시민의 힘으로 우면산을 지킨다') 추진
- 우면산의 생태환경 보존으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의 모델 제시

34 **전남 장성군**

웰빙숲 조성으로 기후 변화 대응

- 축령산 웰빙숲 조성, 월성지구 편백조림지(우드랜드) 조성사업 추진
- 탄소 저감을 위한 대규모 숲 조성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친자연 휴양밸리 조성으로 생태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주변 산촌지역의 소득 증대

35 **경남 진주시**

강의 도시 진주, 명품 남강 가꾸기

- 맑고 깨끗한 남강 조성, 자전거 도로 조성,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 등 추진
- 남강의 수질 개선, 진주 남강의 관광 브랜드화, 자전거 타는 명품 도시의 이미지 확립

36 **서울 송파구**

자연 도시 송파 만들기

- 동서남북 4면에 물길(Water–Way) 조성(주민의 손길로 하천 생명을 살림)
- 행정 당국과 주민의 협력을 통해 '물의 도시, 자연 도시' 송파의 이미지 제고

37 **부산**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문화운동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 10% 감량 시범 공동주택 지정 인센티브 제공, 감량경진대회, 사례발표회, 배출량 알림판 제작 배부

38 부산 동래구
공동주택 단계별 요금제 실시
-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단계별 요금제 적용

39 경남 남해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물건' 만들기
- 보물섬 남해의 참 좋은 '물건' 마을 만들기(공동체·숲좋은숨터 만들기 등)
- 공간 재구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마을 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도모

40 전남 광양시
광양국가산단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 국가산단 주변 지역 먼지개선사업, 기업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발적 개선,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 사업 실시, 꽃과 숲의 도시 조성사업 및 범시민 헌수운동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1 강원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거체계 개선 및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
- 일반 주택 : 칩 사용 용기종량제, 공동주택 : 봉투종량제, 수거구역 : 4권역분할 공개입찰제 도입

42 서울 종로구
소형 음식점 음식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 기초 사례 조사,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 수렴, 시범사업 실시 및 설문조사 후 전면 실시

43 전북 전주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분 및 유분의 분리 제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거름, 부상 분리, 공정 등을 보강개선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에 따른 비용 절감(연간 3억7,000만원)

44 강원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퇴비 농가보급사업
-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완숙 퇴비를 생산, 지역농가에 안정적인 공급 및 수요 확대

45 부산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 월정액→1회용 종량제/ 납부필증 부착 방법 : 종이 스티커→플라스틱 칩/ 수거 용기 다양화 : 가정용 3ℓ, 업소용 60ℓ 추가

46 대구 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포상 조항 신설)하고 인센티브 대상 아파트 선정 및 포상 실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저감 노력(APT연합회) 활성화

47 인천 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사업 추진
-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3% 이상 감량 실천, 용기종량제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 감량 의무사업장 체계적 관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집중 계도 홍보

48 인천 남구
2009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운동 추진
- '수요일! 음식물 다 먹는 날'(약칭 수다날)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7대 생활수칙 홍보, 학교 및 보육시설 홍보 강화, 공동주택 전년도 대비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49 울산 동구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캠페인 실시로 전년보다 716톤 감량

50 강원 동해시
쓰레기 Zero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ABC take out' 운동 전개, 2010년까지 2007년 대비 20% 감축 목표 설정, 음식협회·아파트단지 등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보급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약 3% 감량 추세

51 전북 전주시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시행
- 기존의 월정액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자율 감량 유도

52 경기 부천시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EM 활용으로 침출수 수질 개선 및 악취 감소
  –처리 방식 : 투입 호퍼→분쇄·별기→탈수기→배출(탈수 케익)

53 경기 화성시
국화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운영
- 국화도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국화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

54 경남 김해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 해양 배출에 의존하던 것을 퇴비화 공정 도입
  – 처리 공정 : 투입→1차 파쇄→2차 파쇄·선별→탈수→건조(톱밥)→발효→후숙→퇴비화

55 광주
우산근린공원 조성
- 도심 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을 정비하고 도시숲(수목 식재, 산책로,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사업비 41,300백만원 : 국비 6,500, 시비 34,800)

56 대전
선창마을 녹색체험마을
- 농촌체험 프로그램(문화·공예체험, 요리·음식체험, 농촌체험 등) 운영으로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침체된 도시 지역 내 농촌의 활력 도모(사업비 200백만원 : 균특 100, 시비 50, 구비 50)

57 울산
고래해체장 복원사업
- 고래박물관과 고래연구소가 연계하여 고래해체장 복원, 고래수족관 및 자연생태관으로 이어지는 고래문화체험 특성화 마을 조성

58 강원
춘천시 부귀리 물안마을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 정자, 휴게시설, 마을안길 조경, 야생화 식재, 공동작업장,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 산촌 소득사업 및 체험시설 확충으로 방문객 증가, 주민소득 증대
(사업비 1,400백만원 : 국비 980, 도비 210, 시비 210)

59 충북
명암 산촌생태마을
- 진천군에서 가장 오지였던 산촌마을을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는 활력 있는 산촌생태마을로 조성
(사업비 700백만원 : 균특 490, 지방비 210)

60 제주
명도암 참살이마을
-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을 발굴, 자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웰빙생활체험'을 주요 테마로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
(사업비 200백만원 : 균특 100, 지방비 100)

61 강원 동해시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수집한 뒤 바이오디젤(Bio-diesel)로 생산하여 청소차량 연료로 사용, 수질오염 예방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62 인천
소래 습지생태공원 조성
- 폐염전 부지를 주변의 습지, 갈대숲, 갯벌 등의 환경과 복합 조성하여 생태공원으로 재생, 부지 매입 단계(사업비 8,897백만원 : 국비 4,386, 시비 4,511)

63 경기
수생야생화생태단지조성사업
- 생태학습교육장, 수생식물원, 전시 모형, 수변 관찰 데크, 잔디 운동장, 야외 휴식광장 등 조성, 소도읍 육성사업(사업비 20,000백만원 : 국비 10,000, 도비 5,000, 군비 5,000)

지역발전 연계협력 추진사례

경제산업분야 등

1 전북 정읍시 산외면
산외 한우마을 조성 및 운영
- 면 단위 주민의 자발적인 모임(산외한우마을 번영회)을 운영하여 한우마을 조성
- 산외면 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비중 자체는 높지 않으나, 지역의 한우 브랜드를 개발·홍보하고, 상인들의 자발적 조직을 운영하여 지역의 대표적 산업으로 성장

② 경북 문경시
오미자산업 인큐베이팅
- 시 단위 자체 사업으로 오미자의 부가가치를 높임
- 문경의 오미자라는 1차 산업을 R&D 및 인큐베이팅 센터 설치를 통해 2차 산업화하는 데 성공

③ 전북 고창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 군 단위 자체 사업으로 1차 산업인 복분자를 2차·3차 융합상품화
- 향토 자원의 1·2·3차 융합상품화
- 다부처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 투자

④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원예작물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
- 4개 시·군의 원예작물 공동 브랜드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 4개 시·군의 기존 작물과 신규 작물 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동 브랜드 육성

⑤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랜드 접근도로망 개설
- 3개 군의 접근도로 개설 연계협력사업
- 길이 15km, 폭 8m

⑥ 태백시, 정선군
황지–사북 간 송수관로 및 가압장 개설사업
- 2개 군의 송수관 및 가압장 개설 연계협력사업
- 송수관로 7.5km, 가압장 2개소

⑦ 춘천시, 홍천군
춘천·홍천 연접상수도 사업
- 2개 시·군의 연접상수도사업 연계협력사업
- 관로 80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⑧ 춘천시, 홍천군
공영차고지조성사업
- 2개 시·군의 공영 차고지 조성 연계협력사업
- 152㎡(차고지, 부대시설 등)

⑨ 충남 보령시
머드 브랜드화
- 머드 화장품 출시, 머드축제 기획 및 사업 확장

⑩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BYC 녹색성장 포럼
- 경북 북부지역인 봉화, 영양, 청송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정책 개발 추진
- BYC축제 공동 개최, 공동 협력사업 발굴, 고추·사과·송이 등 농특산품의 공동 처리 및 공동 브랜드 판매 등 경북 최고 낙후 지역의 동반 성장 모색

⑪ 전북 익산시
닥(한지 원료)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 지역의 연구기관·대학 및 관련 기업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 개발
- 2006년부터 전북의 특화 자원에 익산 지역의 섬유 제조기술을 융합
- 원천 기술을 개발 제품화하여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실현

⑫ 경남 하동군
하동 녹차연구소 육성
- 녹차의 과학적 연구개발, 혁신산업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식경제부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수행(2005.5~2010.6), (재)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

⑬ 경기 수원시
천연물 항암제 개발 및 기업체 기술이전
- 2003년 7월~2006년 6월까지 항암제 기술개발 후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제품화 진행 중
- 기존 화학요법 항암제의 부작용 및 내성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천연물 항암제를 개발하여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 선도

⑭ 경기 연천군
특화농산물 연구개발
- '쌀밥 같은 현미' 개발 : 연천군농업기술센터가 연구 개발하고 농업인이 생산하여 직거래
- 콩의 품질 향상 및 공동 브랜드화 논의

⑮ 충남 청양군
고추농업 혁신
- 청정 이미지를 살린 고품질 고추의 직거래 마케팅

⑯ 서울
서울 패션산업 육성지원
- 서울시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내 패션 시장의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사업비 10,900백만원 : 국비 3,960, 지방비 6,940)
- 한류시장 개척단 파견, 서울패션위크·동대문패션축제·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

17 충북 진천군
'생거진천 쌀' 기획
- 쌀의 품질 향상 및 브랜드화 기획 추진

18 전남 보성군
녹차산업 활성화
- 지리적표시제 등록, 협력적 품질관리 활동, 공동 브랜드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19 전북 장수군
지역농업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유통방식 변경→거점산지유통(APC)

20 전북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
- 으뜸마을 가꾸기(11개 지구) 사업 기획 추진

21 강원 횡성군
공근리 친환경 농업
- 타 마을보다 많은 여러 기관들과 1사1촌 자매결연

22 충북 충주시
소태면 친환경 농업
- '21 친환경작목반 연합회'를 조직하여 사업계획 수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유치 노력

23 전북 진안군
양잠산물 특화
- 양잠산물 가공품 연구·개발, 마이산오디주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오디 와인 출시

24 부산
문화예절학교 건립사업
- 문화예절학교 진입도로 개설 시 주민과 원활한 협의 진행, 좌천 재래시장 정비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안읍 대상 소도읍사업 추진(사업비 141백만원)

25 대구
EXCO 전시장 확장
- 2001년 개장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 가동률은 2003년 이래 70% 수준,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탄력(2012년 세계곤충학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유치)

26 강원
속초 중고자동차 수출상담회 지원
- 지역 소재 중소 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외환관리 컨설팅 지원 등)

27 충북
봉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 기존의 영세한 농업기반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웰빙약초타운 조성, 시가지 정비, 축구 캠프장 조성 등 새로운 경제기반을 통한 소득 증대 도모
(사업비 43,100백만원 : 국비 10,000, 도비 3,000, 시비 7,000, 기타 23,100)

28 충북
파워7갑 특화
- 청양 특산품(고추, 구기자, 멜론 등) 7가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 가공,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 도모(사업비 3,170백만원 : 국비 2,400, 지방비 185, 자부담 585)

29 전북
복분자 생산·수매·공급 시스템 안정화 사업
- 복분자 생산 5,000농가, 농협 7개소, 가공업체 33개소를 위해 주체인 복분자 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및 자립기반 지원(사업비 600백만원)
–복분자 생산이력제, 수매, 가공업체 공급·수급 조절, 품질관리기준 등

30 전북
장수 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
- 한우 품종의 체계적 관리, 우량 품종 공급, 사료 공급, 사육기술 및 시설 지원, 경영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2009~2010년 사업비 1,298백만원 : 균특 837, 지방비 461)

31 전남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 전국 최대의 월동배추생산단지(해남군 화원농협)에서 월동배추를 가공·판매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0,336백만원 : 국비 3,100, 도비 414, 군비 1,654, 자부담 5,168)

32 순천시, 광양시
순천–광양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2개 시·군이 연계 협력하여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역 간 이동편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역 BIS 구축

33 경북
상주 음식문화 컨설팅 사업
- 상주시의 요식업체(1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 조리기술 컨설팅(주 메뉴 이외 요리 일체), 상주곶감떡갈비 메뉴 개발 및 기술 보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사업비 20백만원 : 지역협력단운영비)

34 경북
지역경쟁력 향상으로 희망 농촌 건설
- 지역 접근성이 어려워 외부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자문 컨설팅이 어려운 봉화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회, 인재은행, 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리더 역할 수행 등 자립기반 구축(사업비 2,900백만원)

35 경남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
- 기존의 개통된 대전–통영 간,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U-Type으로 연결하는 접속도 건설사업을 거가대교의 사업완료 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물류경쟁력 강화(부산–경남 소요 2시간 40분→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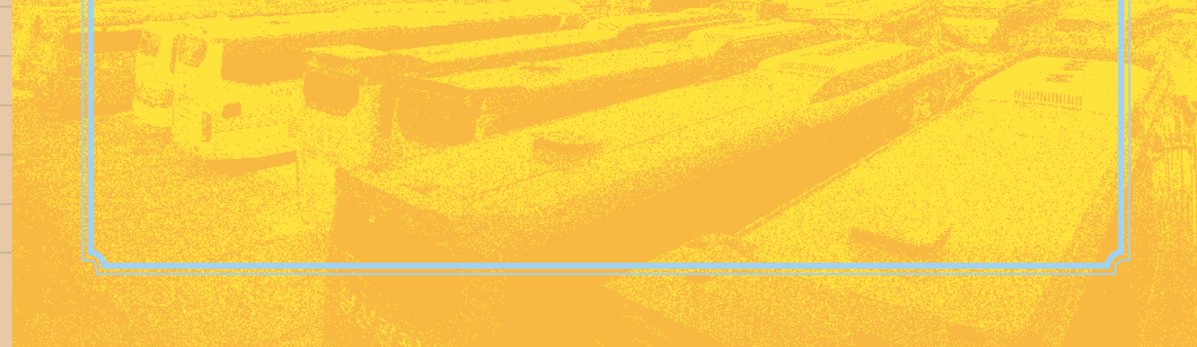
36 경남
하동 녹차 전략적 홍보·마케팅 활성화 지원
- 인근 차 생산 지자체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통망을 확충,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하동 녹차 홍보·마케팅 지원
- 이미지, 장소, 브랜드, 온라인·직거래 등 수제 차의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활동 및 마케팅 전개

37 제주
화북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 방파제·물양장 등 어항시설 확충으로 지역 어민의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 도모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으로 197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

38 부산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천성–눌차) 건설
- 부산·경남권 국가기관(광역) 도로망 확충으로 부산신항, 신호·녹산공단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 경남과의 협력 통해 완공시기를 앞당김, 민자유치의 시공사 공사비 증액 부담

부록 4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기도

1 수원시 영통1동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에코에듀 빌리지'

가. 사업내용

- 생태하천(150m, 영통사공원), 야외 공연장, 생태학습 야외 교육장(140㎡), 야외 전시공간, 생태길, 영통대로변 보도(100m) 조성
- 사업기간 : 2007.3~2009.12
- 사업비 : 681.1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391.6, 민자 5, 자부담 184.5)

나. 사업성과

- 신 주거공간과 하천을 잇는 생태 라인 구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지역단체와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을 간 유대감 형성

남양주시
능내리 연꽃체험마을

가. 사업내용

- 연꽃단지 조성(82,645㎡), 연꽃 식재, 관찰 데크 및 원두막 설치, 생태산책로 조성(능내리 산71-9 일원 1Km), 머루터널, 생태산책로 정비, 목책 설치 등
- 주민 참여 및 전문가 연계 등 Working Group 구성을 통해 사업 추진
  - -마을주민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 -전문가 :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등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실시
  - -대학(원)생 서포터즈 : 사업계획 공동 작성, 아이템 발굴
  - -남양주시 :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지원
- 사업기간 : 2009.3~10(8개월)
- 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100, 자부담 50)

나. 사업성과

-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꽃 활용한 친환경사업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체험마을, 농산물 가공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주시 공적면
도락산 돌탑 테마공원

가. 사업내용

- 도락산 돌탑 테마공원 조성, 돌탑 스토리라벨 및 도락산 입구 안내표지판, 도락산 방향유도판 설치, 야생화단지 조성(300㎡, 야생화 100여 종), 도락산 입구 및 야생화군락지 일대 철쭉 식재
- 사업기간 : 2009.4~12
- 사업비 : 25백만원(시비 84%, 자부담 16%)

나. 사업성과

- 산책로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의 웰빙지수 향상,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기여, 도락산야생화단지를 문화 여가의 장소로 활용,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용성 극대화

4 양평군 양근리
떠드렁공원 및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가. 사업내용

- 인공폭포, 전망대, 산책로, 광장, 휴게쉼터, 자전거도로 조성(면적 48,670㎡)
- 사업기간 : 2007.11.30~2009.1.8
- 사업비 : 6,50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나. 사업성과

- 지중화사업 시행(한전과 협약 체결)으로 예산 절감, 타 사업과 접목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5 양평군 다대리
청운전통생태산촌마을

가. 사업내용

- 총부지 149,267㎡
  - -녹지 및 산책로(25,090㎡), 주차장, 휴양문화시설(11,278㎡), 전통주거체험시설(4,230㎡), 상가시설(1,440㎡) 조성
- 사업기간 : 20007.1.11~2009.5.8
- 사업비 : 13,050백만원(도비 10,000, 군비 3,050)

나. 사업성과

- 너와집, 굴피집, 숯가마터 등 휴식처 제공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 제공, 농촌마을의 공동체 형성 기대, 관광객 유입으로 낙후지역의 특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양평군 석산리
전통테마마을

가. 사업내용

- 숙박시설 2동(최대인원 250명), 잣나무숲 여행 및 자연 체험, 나무 공예, 천연 염색, 감자·고구마·산나물 채취 등 체험
- 사업기간 : 2007~2008
- 사업비 : 200백만원

나. 사업성과

- 농촌의 전통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도·농 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 농촌 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화합하고 협동하는 지역사회 조성

양평군 하자포리
산수유꽃마을

가. 사업내용

- 산수유나무 300주 식재, 자산홍·영산홍 1,860주 식재

4 양구군 공수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공수지구

가. 사업내용

- 46,310㎡에 11세대 조성, 자우랑(자연과 우리랑) 동호회 구성해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8~2010

나. 사업성과

-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강원인구 늘리기 및 지역활성화 도모 등 강원 토털세일즈 추진

5 고성군 홀1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진부령마을

가. 사업내용

- 피망 비가림하우스 설치(101동) 등
- 선정연도 : 2001년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0, 군비 200)

나. 사업성과

- 전국 최대의 피망·샐러리 생산지로 탈바꿈,
  고랭지 품질인증 농산물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추진 전후 3,000→9,000만원)

6 삼척시 신리
새농어촌건설운동 너와마을

가. 사업내용

- 민박 신축(너와집 5동), 공동 임야(송이산) 매입 등
- 선정연도 : 2002년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0, 군비 200)

나. 사업성과

- 전통 가옥인 '너와집'을 관광체험 상품화, 마을 공동으로
  향토 음식점과 너와 펜션 운영으로 소득 증대(추진 전후 1,500→5,000만원)

7 강릉시 사천진리
새농어촌건설운동 해돋이마을

가. 사업내용

- 활어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수산물 간이집하장 리모델링 등
- 선정연도 : 2005년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0, 군비 200)

나. 사업성과

- 전국 제일의 어촌관광 선도지로 발전, 해양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
  양미리축제 개발 등으로 소득 증대(추진 전후 2,000→4,000만원)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상남도

1 함양군 송전리
산촌생태마을 송전마을

가. 사업내용

- 휴양관·곶감덕장·다목적 창고·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설치, 정자·산책로·임산물소득단지 조성,
  디딜방아·모내기·짚 공예·레프팅 체험시설 등
- 사업기간 : 2004~2006(준공 2007.4.27)
- 사업비 : 1,400백만원(국비 1,047, 지방비 353)

나. 사업성과

- 관광객, 체험방문객 등 증가로 소득 증대(2008년 9,400만원→2009년(8월 말) 6,000만원)
- 2008년 산촌생태마을 중앙평가 전국 최우수 수상

2 신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내용

- 지역활성화센터 건립, 병영 체험막사 등 체험시설 운영, 참다래단지 등 첨단 영농시설 확대,
  해당권역 지역개발 컨설팅 및 주민역량 강화 실시
- 사업기간 : 2006~2010
- 사업비 : 6,979백만원(1단계 4,461, 2단계 2,518)

나. 사업성과

-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의 의식개혁과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능력을 신장시켜 농촌지역 개발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3 밀양시 평리마을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 아름다운 테마조성

가. 사업내용

- 뗏목 제작·물놀이 체험장 조성, 축제 개최(제4회 이팝꽃 축제),
  기존 농촌체험 프로그램(생태 및 별자리 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기간 : 2009.4~9
- 사업비 : 64백만원(시 50, 자부담 14)

나. 사업성과

-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나눔과 소통의 공동체 형성, 주민 주도의 마을 르네상스 운동으로 확산

4 거제시 망양마을
'섬 속의 우리마을이야기'

가. 사업내용

- 도로변 불법 무허가 펜션 간판 자진 정비, 주변 섬 전망을 위한 테마동산 조성(멧돌쉼터, 약수터, 돌탑 설치)
- 사업기간 : 2009.6~9
- 사업비 : 24백만원(시비 20, 자부담 4)

나. 사업성과

- 마을을 특색 있게 조성하여 마을 인지도 제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테마 및 보물 발굴

5 하동군 하삼천마을
옛 돌담길 복원사업

가. 사업내용

- 마을의 유래에 근거한 경관 개선(표지석 설치, 돌담길 조성),
  마을 시설을 보완해 주민소통 공간 조성(체육공원, 정자, 등산로 등)
- 사업기간 : 2009.1~9
- 사업비 : 65백만원(시·군비 55, 자부담 10)

나. 사업성과

- 주민 및 출향 향우들의 참여 의식 고취, 농촌체험 관광마을 이미지 창출, 마을의 전통문화 복원 및 계승발전의 기틀 마련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상북도

1 상주시 문창리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 녹동마을

가. 사업내용

- 단지내도로, 상하수도·오수 처리시설, 다목적 마당, 공동 이용시설, 전기통신 지중화 시설(건축비 제외) 조성
- 사업기간 : 2007.7~2009.12
- 사업비 : 2,614백만원(국비 1,467, 지방비 367, 융자 780)

나. 사업성과

-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계기,
  도시의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16가구의 주택 신축비 및 인구 유입)

2 문경시 석항리
산촌생태마을

가.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 체험시설 설치 등
- 사업기간 : 3년(설계 1, 조성 2)
- 사업비 : 14억~16억원(국비 70%, 지방비 30%)

나. 사업성과

- 마을 가구당 연소득 증가(1,300→3,000만원), 표고재배농가 증가(2→17가구)로 소득 증가(평균 순수익 8,300만원)
- 2008년 산림청 시행 '산촌생태마을 경영평가' 전국 최우수 수상

3 예천군·영양군
용두리·수하리 산촌생태마을

가. 사업내용

-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체험시설 조성
- 사업기간 : 3년(설계 1, 조성 2)
- 사업비 : 14억~16억원(국비 70%, 지방비 30%)

나. 사업성과

- 마을 가구당 연소득 증가(1,200→4,000만원), 주변의 관광 자원 활용한 관광객 유치, 임산물 판매로 고수익 창출
- 2009년 산림청 시행 '산촌생태마을 평가' 전국 우수 수상

4 영덕군 대진리
어촌체험마을

가. 사업내용

- 우렁쉥이 양식, 바다낚시, 송천강 재첩 채취,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스포츠 및 어촌 체험활동 운영
- 사업기간 : 2001~
- 사업비 : 8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나. 사업성과

- 2006년 어촌체험마을혁신대회 우수상 수상, 2007년 어촌체험마을혁신대회 최우수상 수상
-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익 창출(연간 4억3,000만원)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전라남도

1 무안군·장흥군·해남군
행복마을조성사업

가. 사업내용

- 마을 전체의 주택을 한옥으로 개량하여 한옥민박을 통한 수익 증대를 목표로 '행복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나. 사업성과

- 외지로부터 전입인구 증가(66명: 약실 35, 복룡 11, 매정 11, 우산 9), 방문객 증가(월평균 70명), 주변 지가 상승(80%)
- 한옥민박으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2009년 휴가철(50일간)에 호당 평균 55만원의 민박 수익

2 고흥군 명천
행복마을조성사업

가. 사업내용

- 마을 전체의 주택을 한옥으로 개량하여 한옥민박을 통한 수익 증대를 목표로 '행복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나. 사업성과

- 전입인구 증가(12명), 방문객 증가, 주변 지가 상승(200%),
  한옥민박으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2009년 휴가철(50일간)에 호당 평균 55만원의 민박 수익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전라북도

①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

가. 사업내용

- 188개 마을 조성(10년 28개, 11년 40개, 12년 40개, 13년 40개, 14년 40개)
- 사업기간 : 2010~2014
- 사업비 : 47,500백만원(광특 23,750, 도비 1,000, 시·군비 22,750)

나. 사업효과

- 지역성·차별성 있는 다양한 향토 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충청남도

① 태안군 소원면 법산1리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희망근로사업

가. 사업내용

- 체험다리(부교) 및 뗏목 제작, 꽃길 산책로(방조제 정비) 조성 등
- 갯벌, 염전, 육쪽마늘 등과 연계한 1일 관광체험 코스 운영
- 사업기간 :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2008.3~11, 희망근로사업(녹색마을) 2009.6~
- 사업비 :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33.9백만원(군비 20, 자부담 13.9),
  희망근로사업 200백만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나. 사업성과

- 체험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결속력 강화 및 지역발전 마인드 함양,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체험단지 조성

② 태안군 벗가리마을 사업

가. 사업내용

-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체험 프로그램 발굴(볏가릿대 놀이, 염전·갯벌·동물농장·농업 체험),
  체험기반 및 마을환경 정비(체험학습관, 농산물직판장 등)
- 홍보 마케팅(BI개발, 홈페이지 활성화, 박람회 참가(2008 노농교류 엑스포 등 7회)
- 사업기간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2003~200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2007)
- 사업비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200백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50백만원)

나. 사업성과

- 방문객 및 체험관광 수익(2008년 12,663명, 2억1,000만원),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상표·서비스표 등록 및 농특산물 판매 증대
-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2003 장려/2004 우수/2005 최우수), 최우수테마마을(2005, 농진청),
  홈페이지 우수(2005, 농진청), 식단분야 최우수(농진청, 2006), 한국농촌대상, 충남농어촌발전대상,
  한국농업근대화 100년 정부포상(한원석 추진위원장) 수상

③ 영목마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가. 사업내용

- 종합안내소, 갯벌진입로, 독살 체험장, 맨손물고기잡이 체험장, 산책로, 모래찜질장, 주차장, 화장실 등 조성
- 사업기간 : 2005~2007
- 사업비 : 970백만원

나. 사업성과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어업 이외의 소득 증대(숙박, 음식점 등), 어촌경제 활성화

④ 공주 정안밤톨이마을 정보화마을

가. 사업내용

- 마을정보센터 설치, 홈페이지 개설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가구별 PC 보급, 저온저장창고 설치
- 사업기간 : 2002.6~2003.7
- 사업비 : 440백만원(국비 320, 도비 50, 시비 70)

나. 사업성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2008년부터 매출실적 1억원 돌파, 마을정보센터 운영기금 확보,
  정안밤톨이마을 적극 홍보, 홈페이지 통한 활발한 정보 교류

⑤ 유구읍 만천1리 우렁이양식장 설치

가. 사업내용

- 우렁이 양식 하우스 3동(2,000㎡) 조성
- 사업기간 : 2008

• 사업비 : 111백만원(민간자본보조 60(시비), 농협 39, 자부담 12)

나. 사업성과

•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쌀)의 부가가치 향상 및 청정마을 이미지 부각, 우렁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6 정안면 산성리 신활력사업

가. 사업내용

• 체류형 주말농장펜션 2개 동, 밤가공 체험관 1개 동 조성

• 사업기간 : 2009

• 사업비 : 228백만원

나. 사업성과

• 친환경 밤 등 농산물 직거래 판매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소득 증대, 마을 홍보 효과

7 탄천면 대학2리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가. 사업내용

• 조경 시설물 설치(대나무 뗏목 2척, 알림표지판), 구명환(8개) 구입

• 사업기간 : 2007.10.14~2008.7.11

• 사업비 : 24.5백만원(보조 20, 자부담 4.5백만원)

나. 사업성과

• 뗏목 체험과 멜론·오이 등 농작물 체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 증대(체험객 10,000명, 농산물 직거래 5,600만원, 체험료 등 4,500만원)

※ 홍보활동: 2008.9~11 전광판 홍보(강남대로 동영상 20초), 공주 홍보 영상물에 뗏목체험 영상을 담아 시티투어에 활용, 서울 지하철 선릉역에 스크린도어에 홍보, 조선닷컴의 붐업코리아에 9~11월(3개월) 홍보, 네이버 문화면에 배너 홍보(9~11월), MBC 〈화제집중〉에 소개(2008.10.8)

8 정안면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체험장(2층 목구조, 연면적 148㎡)

• 사업기간 : 2009.5.18~8.1

• 사업비 : 187백만원(보조 153, 자부담 34)

나. 사업성과

• 방문객을 위한 농산물가공 및 다양한 체험활동 기반 조성, 각계의 사업 투자를 이끌어
연소득 증대(2008년 1억→2009년 1억5,000만원)

9 홍성군 문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내용

•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소규모 권역 단위로 개발

• 사업기간 : 2005~2009

• 사업비 : 6,775백만원

나. 사업성과

• 친환경 오리쌀 전용 도정시설과 친환경 농산물소포장센터 등 주민공동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10 태안군 별주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내용

•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소규모 권역 단위로 개발

• 사업기간 : 2007~2011

• 사업비 : 6,884백만원

나. 사업성과

• 독살·조개캐기, 어살문화축제, 샌드비치 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11 청양군 칠갑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내용

•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소규모 권역 단위로 개발

• 사업기간 : 2005~2009

• 사업비 : 6,126백만원

나. 사업성과

• 중소기업, 사회단체 등과 협약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각종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증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농가소득 증대

12 아산시 정보화마을육성 기쁨두배 정보화마을

가. 사업내용

• 오토캠핑장 조성 등

• 선정연도 : 2002.6.10

나. 사업성과

•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정보화 마을 인빌 쇼핑으로 소득 창출(약 1억원),
아산 배마을 배나무 분양(2008년 1,500만원), 기업체 및 단체 농촌체험행사(2008년 25회)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충청북도

① 제천시 포전리·송한리·도화리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내용

- 마을경관 및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기반 정비(황기 가공, 특산주), 역사·문화·관광사업(점말동굴 학습장 등) 실시, 생태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07.1~2011.12
- 사업비 : 6,746백만원(국비 5,396, 도비 675, 시비 675)

나. 사업성과

- 농촌 특유의 환경을 유지 보전하되 쾌적하게 정비해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의 균형 발전 도모

② 송학면
원마루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가. 사업내용

- 전원주거단지 조성(면적 62,240㎡, 주택가구 52호)
- 사업기간 : 2008~2011
- 사업비 : 13,500백만원(국비 1,600, 도비 200, 시비 200, 자부담 11,500)

나. 사업성과

-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정비,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 공간 확충으로 인구 유입 및 농촌 활성화

③ 백운면
애련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가. 사업내용

- 전원주거단지 조성(면적 46,387㎡, 주택가구 30호), 단지내도로(1,500m), 상하수도 등
- 사업기간 : 2006.3~2009.8
- 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1,200, 도비 150, 시비 150, 자부담 4,500)

나. 사업성과

-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정비,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 공간 확충으로 인구유입 및 농촌 활성화

④ 청풍면
청풍지구 황토체험농어촌테마공원

가. 사업내용

- 약초밀원, 생태숲, 황토농사체험장, 황토체력단련장, 황토공원, 비봉산 일주 트레킹 도로 조성
- 사업기간 : 2010.1~2013.12
- 사업비 : 9,400백만원(국비 2,700, 지방비 2,700, 기타(민자유치) 4,000)

나. 사업성과

- 청풍호 주변의 관광자원과 황토를 이용한 친환경 테마 공간 조성
-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황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⑤ 봉양읍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 웰빙약초타운 조성, 시가지 정비, 건강축구캠프장 조성
- 사업기간 : 2006~2010
- 사업비 : 20,2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3,000, 시비 7,200)

나. 사업성과

- 웰빙약초타운 활성화로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

⑥ 봉양읍
봉양읍 명암리 산촌생태마을

가. 사업내용

- 산림문화회관, 주민복지시설, 주민정보화시설, 산촌문화센터, 산림체험센터 조성, 등산로 정비
- 사업기간 : 2004.4~2006.12
- 사업비 : 1,38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나. 사업성과

- 생활 주변의 건축자재를 활용해 사업비 활용도 증대, 지역특산물 판매의 활로 개척, 마을경쟁력 기반 구축, 휴양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

⑦ 수안보면 안보리·사문리·미륵리
달두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내용

-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문화복지센터, 농가민박시설, 농산물공동선별장, 농산물판매장, 운동·휴양시설, 소공원 및 꽃길, 경관 담장, 등산로 조성 등
- 사업기간 : 2006.1~2010.12
- 사업비 : 6,70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나. 사업성과

- 기초생활환경 정비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지역특성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권역의 정착 기반 확충

8 살미면 재오개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가. 사업내용

- 소득기반 확충, 마을환경 개선 등
- 사업기간 : 2010.1~2012.12
- 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나. 사업성과

-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을 갖춰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 산촌·도시 간 교류 증진을 통해 체험활동의 장 마련, 임산물 직거래로 주민소득 증대

9 충주시
애플마 지역특화 명품농산물 육성

가. 사업내용

- 애플마 공동작업장(330m²) 및 가공시설 조성
- 사업기간 : 2009.3.1~10.30
- 사업비 : 368백만원(국비 184, 도비 36.8, 시비 36.8, 자부담 110.4)

나. 사업성과

- 애플마 확대 보급 및 충주 관광상품화로 농가소득 기대, 웰빙 시대에 적합한 기능건강식품 개발 및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

10 진천군
백곡명심체험마을

가. 사업내용

- 마을정보센터 설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설, 주민 PC 보급
- 사업기간 : 2008~2009
-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150)

나. 사업성과

- 도·농 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온라인 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 홈페이지 운영 및 주민교육 실시로 정보화 이용 활성화

11 증평군
상그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내용

- 권역관리센터 설치, 경관벨트, 주택 및 담장 정비 등
- 사업기간 : 2007~2011
- 사업비 : 7,000백만원

나. 사업성과

- 정주 기반 및 소득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인구 증대에 기여

12 청성면
장수리 농촌전통테마마을

가. 사업내용

- 체험관, 옥외 교육장, 향토음식체험장, 주차장 조성
- 사업비 : 230백만원

나. 사업성과

- 농촌체험방문객 증가(61회 2,418명), 농촌자원 활용 체험상품화 및 도·농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13 청성면
조령산 체험마을

가. 사업내용

- 정보화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05년

나. 사업성과

- 주민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 형성, 전자상거래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민소득 증대(2008년 4,000만원)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이야기

꿈이 있고 살고싶은 지역창조

발행 2009년 11월 13일

발행처 지역발전위원회(www.region.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기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이인재 국장 · 이경재 과장 · 김종구 과장 · 박명균 과장 · 강성탁 사무관)

제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www.cric.re.kr)

편집 (주)서울문화사(책임편집 정혜숙 · 진행팀장 박인숙 · 진행 조윤희, 박현구 · 교정 심영미)

디자인 design soop(02-6407-8246)

사진 이상훈, 전호성, 주은희(nov studio 02-548-6775)

일러스트 이호석

인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출력 (주)덕일칼라피아